

2023 한국육아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뉴패러다임 시대, 유아교육의 미래 통찰:
상호문화역량 함양을 통한
유아 글로벌 시민교육

- 일시 : 2023년 5월 20일(토) 09:00~13:30
- 장소 : 온라인(ZOOM) 학술대회(경인교육대학교)
(사전 등록자에게 접속링크 개별 연락)
- 후원 : 양서원 출판그룹



한국육아지원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모시는 글

존경하는 한국육아지원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록의 푸르름이 짙어지는 아름다운 오월, 회원 여러분을 모시고 “뉴패러다임 시대, 유아교육의 미래 통찰: 상호문화역량 함양을 통한 유아 글로벌 시민교육”이라는 주제로 2023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은 급격한 교육 체계의 지형 변화를 초래하여 교육 분야에서는 새로운 사회적·문화적 변화와 관점을 반영한 뉴노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변적인 뉴노멀시대에 대한 대응으로 공존, 상생, 상호 이해, 성찰 등의 키워드가 강조되면서, 미래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고유한 가치들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교육현장에서는 소통과 화합을 통하여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상호문화적 접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장한업 교수님을 모시고 상호문화적 접근에 대한 이해와 방향성을 탐색하고자 ‘유아교육에서의 상호문화적 접근: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기초 강연을 청해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수정 교수님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의 상호문화역량 함양 실천 가능성으로 ‘비판적 문해력 접근을 통한 유아의 상호문화역량 함양’에 대하여, 그리고 현장에서의 글로벌 시민교육에 대한 실천적 지식을 돕기 위하여 김미선 선생님은 ‘참여하고 협력하는 어린이 시민 이야기: 우리의, 우리에게 의한, 우리를 위한 변화’를 주제강연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학술대회를 통해 뉴노멀의 단초가 될 상호문화역량에 대한 담론의 장이 마련되어 유아교육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미래 유아교육의 교육생태계 방향과 실천과제를 함께 통찰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한국육아지원학회장 최 일 선

학술대회 일정

- 09:00~09:20 **대기실 입장**
사회 : 유주연(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09:20~09:30 **개회사**
최일선(한국육아지원학회 회장, 경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09:30~10:30 **기조강연-유아교육에서의 상호문화적 접근: 필요성과 가능성**
장한업(이화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다문화연구소장)
- 10:30~10:40 **정기총회**
- 10:40~11:50 **포스터 및 구두 논문발표**
- 11:50~12:00 **휴식**
- 12:00~12:40 **주제강연 I - 비판적 문해력 접근을 통한 유아의 상호문화역량 함양**
위수정(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s Angeles,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교수)
- 12:40~13:10 **주제강연 II - 참여하고 협력하는 어린이 시민 이야기:
우리의, 우리에게 의한, 우리를 위한 변화**
김미선(전 아이코리아부속새세대유치원 교사)
- 13:10~13:20 **종합토론**
김혜경(서울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 13:20~ **우수논문 시상 및 폐회**

■ 강사 약력

장 한 업

이화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다문화-상호문화(석박사)협동과정 주임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다문화연구소장
법무부 사회통합자문회의 위원
前)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교 교환교수

위 수 정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s Angeles,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교수
한국보육지원학회 편집위원
한국유아교육학회 편집위원
前) Purdue University Northwest, Department of Behavioral Sciences 부교수
前)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방문교수

김 미 선

前) 아이코리아부속새세대유치원 교사

▣ 구두 논문발표 및 지정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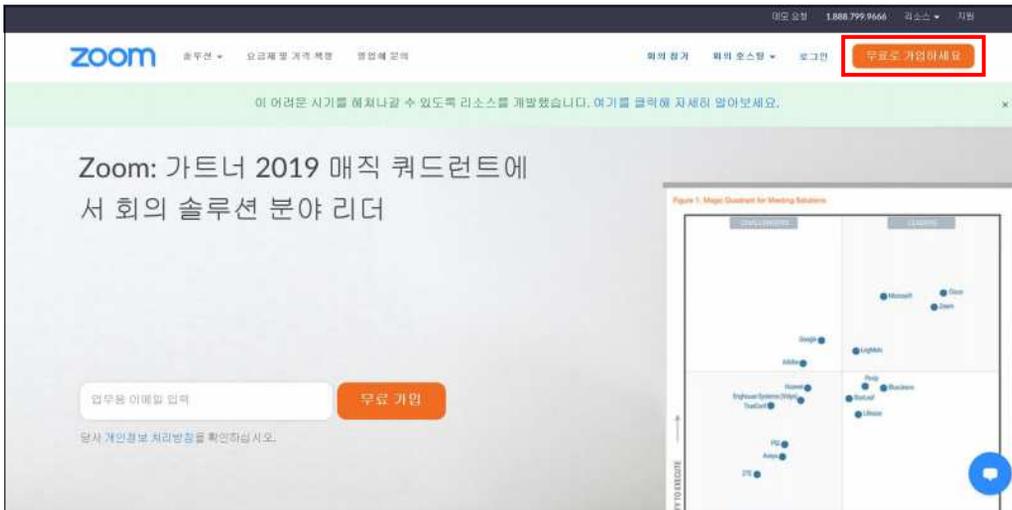
시간	제1분과 사회: 김언경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제2분과 사회: 장정윤 (강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제3분과 사회: 이지영 (동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제4분과 사회: 박신영 (부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제5분과 사회: 장현진 (한국성서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 교수)
10:40~ 11:00	<p>공정한 학습에 대한 유아의 생각</p> <p>안예슬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p> <p>엄정애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p>	<p>타인의 설명에 대한 비판적 이해의 발달: 인과적 설명에 대한 유아의 평가와 기억, 수용언어 능력과의 관계</p> <p>김은주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p> <p>정지인 (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p>	<p>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지원정책 분석: 2023년도 교사 지원 계획을 중심으로</p> <p>이성희 (공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p> <p>라지숙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p>	<p>국립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의 어린이 관람객 놀이 분석</p> <p>최일선 (경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p> <p>방은정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강사)</p> <p>하민경 (경상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p> <p>김민정 (안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p>	<p>유아의 의사결정권이 존중되는 교실문화 형성에 대한 교사의 경험 탐색</p> <p>이선미 (사이언스신성어린이집 교사)</p> <p>이진화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p>
11:00~ 11:20	<p>보육실습 전·후에 따른 예비보육교사의 영아반교사 이미지에 관한 메타포 분석</p> <p>유지혜 (배재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p>	<p>놀이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한 유아의 생각</p> <p>김민진 (곡반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p> <p>이승연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p>	<p>영유아 돌봄에 대한 정부의 서비스 지원 정책 고찰: 영유아 권리를 중심으로</p> <p>홍지연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p>	<p>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한 '예비유아교사의 음악 개념 이해 측정 도구' 개발</p> <p>곽진이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p>	<p>유아교육에 적용된 메타버스 기술의 국내외 동향분석</p> <p>신원애 (충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신학과 (가독교유아교육전공) 박사)</p>
11:20~ 11:40	<p>부모신념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성별 및 연령을 중심으로</p> <p>안예슬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p> <p>박성주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박사수료)</p>	<p>유아 또래관계 관련 연구동향 분석</p> <p>박진영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석사)</p> <p>이승연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p>	<p>K직장어린이집의 영아기 부모교육 운영 개선을 위한 실행연구</p> <p>김지현 (국회제2어린이집 원장)</p>	<p>예비유아교사의 자원 분배 행동 양상 및 이유</p> <p>신샘이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박사수료)</p> <p>안혜정 (인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p>	<p>지정특강 건강한 연구를 위한 실천적 노력</p> <p>이진화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p>
11:40~ 11:50	질 의 응 답 및 토 론				

온라인 학술대회 접속 안내: Zoom 사용법

- ※ Zoom 접속 시 반드시 음소거 상태를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 저작권 문제로 화면 캡처 및 타인과의 공유는 금지합니다.

1. PC로 온라인 학술대회 접속 방법

가. Zoom에 계정이 있으신 경우, 기존 계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Zoom에 계정이 없으실 경우, Zoom 사이트(<http://www.zoom.us>)에서 계정을 만듭니다.



나. 학술대회 당일 발송된 메일의 링크를 클릭하여 Zoom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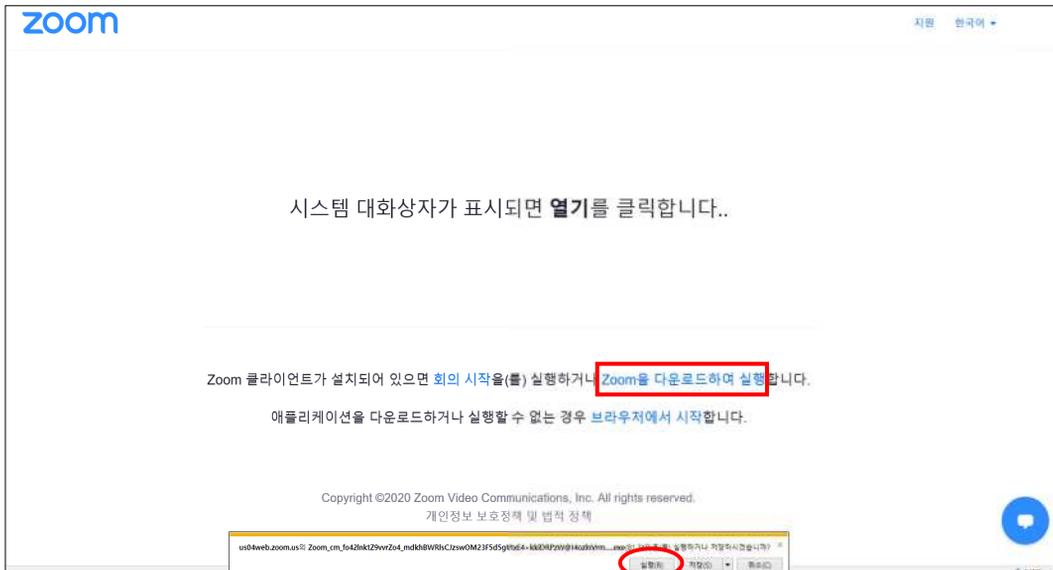


※ Zoom 가입 및 설치가 되어 있고 회의실 ID로 회의에 입장하시는 경우, 회의실 ID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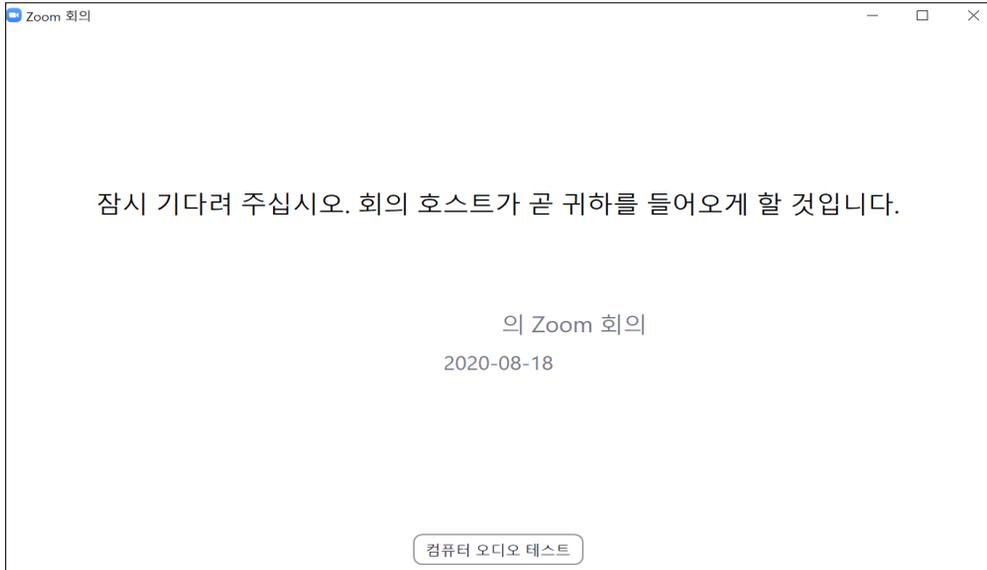
다. 다운로드 및 실행을 클릭합니다.

※ 기존에 다운로드 받으신 분은 다운로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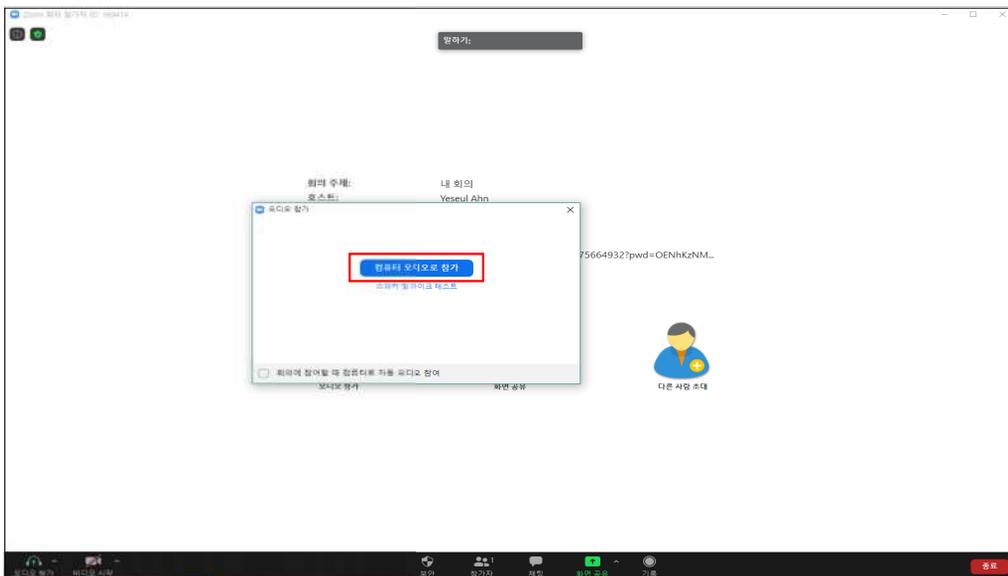


라. 사전등록 확인을 위한 대기화면에서 대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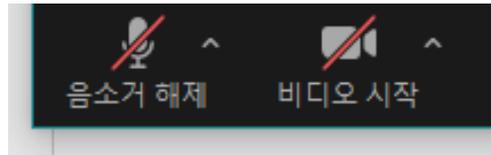
※ 사전등록자에 한하여 입장이 허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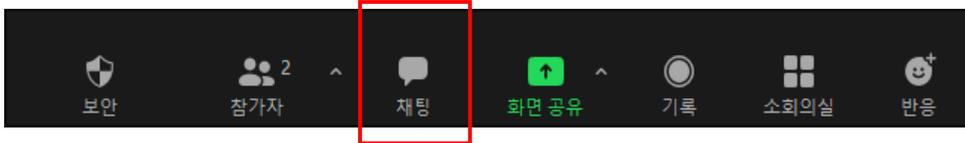
마. 오디오 참가 대화상자가 뜰 경우,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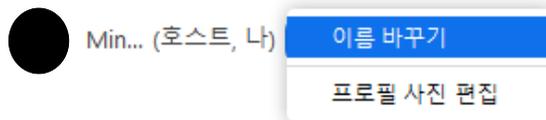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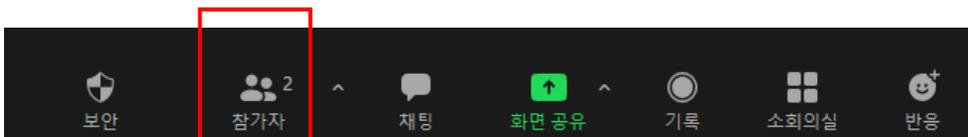
바. 접속 시 음소거 / 비디오 꺼짐 상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음소거 설정은 변경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음소거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잡음이 발생하여 강연에 방해가 됩니다. 비디오가 켜져 있을 경우 송출 화면에 접속자가 나오게 됩니다.



사. 채팅창으로 공지사항이 공지될 수 있으므로, 채팅창을 켜두시기 바랍니다.



※ 접속자가 사전등록자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으므로 zoom 계정 등록 시 사용자 이름을 등록하신 분의 성함으로 설정하시고, 이미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등록하신 성함으로 사용자 이름을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핸드폰으로 온라인 학술대회 접속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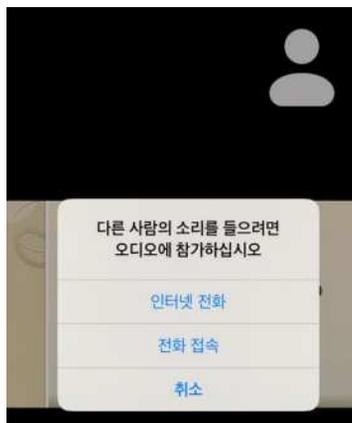
가. 핸드폰에서 앱 다운로드를 실행하여 'Zoom' 검색 후 설치합니다.



나. 문자를 통해 전송된 링크를 클릭하거나 메일로 전송된 링크를 클릭하여 Zoom 앱에 접속합니다.

※ 실행이 잘 안 될 경우, 링크 주소를 복사하여 인터넷(혹은 사파리) 어플을 실행하여 주소창에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다. 오디오 설정 대화상자가 뜰 경우 '인터넷 전화'를 선택해야 소리가 들립니다.



목 차

■ 기조강연 유아교육에서의 상호문화적 접근: 필요성과 가능성.....	16
장한업(이화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다문화연구소장)	
■ 주제강연 1 비판적 문해력 접근을 통한 유아의 상호문화역량 함양.....	30
위수정(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s Angeles,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교수)	
■ 주제강연 2 참여하고 협력하는 어린이 시민 이야기: 우리의, 우리에게 의한, 우리를 위한 변화	53
김미선(전 아이코리아부속새세대유치원 교사)	
■ 구두 논문발표 및 지정특강	
>>> 구두 논문발표 1분과	
• 공정한 학급에 대한 유아의 생각	70
안예슬(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엄정애(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보육실습 전·후에 따른 예비보육교사의 영아반교사 이미지에 관한 메타포 분석	76
유지혜(배재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 부모신념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성별 및 연령을 중심으로.....	82
안예슬(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박성주(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박사수료)	

>>> 구두 논문발표 2분과

- 타인의 설명에 대한 비판적 이해의 발달: 인과적 설명에 대한 유아의 평가와 기억, 수용언어 능력과의 관계..... 89
김은주(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정지인(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 놀이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한 유아의 생각..... 97
김민진(곡반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이승연(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유아 또래관계 관련 연구동향 분석..... 104
박진영(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석사)
이승연(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구두 논문발표 3분과

-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지원정책 분석: 2023년도 교사 지원 계획을 중심으로..... 111
이성희(공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라지숙(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 영유아 돌봄에 대한 정부의 서비스 지원 정책 고찰: 영유아 권리를 중심으로..... 122
홍지연(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 K직장어린이집의 영아기 부모교육 운영 개선을 위한 실행연구..... 131
김지현(국회제2어린이집 원장)

>>> 구두 논문발표 4분과

- 국립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의 어린이 관람객 놀이 분석..... 137
최일선(경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방은정(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강사)
하민경(경상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김민정(안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한 '예비유아교사의 음악 개념 이해 측정 도구' 개발..... 144
곽진이(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 예비유아교사의 자원 분배 행동 양상 및 이유..... 151
신샘이(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박사수료)
안혜정(인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구두 논문발표 5분과

- 유아의 의사결정권이 존중되는 교실문화 형성에 대한 교사의 경험 탐색..... 158
이선미(사이언스신성어린이집 교사)
이진화(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유아교육에 적용된 메타버스 기술의 국내외 동향분석..... 164
신원애(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신학과 기독교유아교육전공 박사)

>>> 지정특강

- 건강한 연구를 위한 실천적 노력..... 171
이진화(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Ⅰ 포스터 논문발표

1. 아동학대 관련 정책과 유아교육에의 시사점.....177
강민지(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2.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을 통해 살펴본 아동안전정책의 시사점..... 178
하지연(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석사과정)
 3. 예비유아교사와 예비특수교사의 세계시민성과 세계시민역량 비교..... 179
권미은(남부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4. 아동수당제도 도입 현황과 시사점: OECD 국가를 중심으로..... 180
황민지(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석사과정)
 5. 만 5세 유아 메이커 교육 기반 놀이에서의 교육적 의미 탐구..... 181
주가람(강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유치원 교사)
박희숙(강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6. 지방 중소도시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학생 의식 조사 연구..... 182
박주희(국립안동대학교 아동·사회복지학과 교수)
- 한국육아지원학회 회칙 / 183
 - 제10대 한국육아지원학회 이사 / 188
 - 이수증 / 189

기조강연

유아교육에서의 상호문화적 접근: 필요성과 가능성

장한업

(이화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다문화연구소장)

유아교육에서의 상호문화적 접근: 필요성과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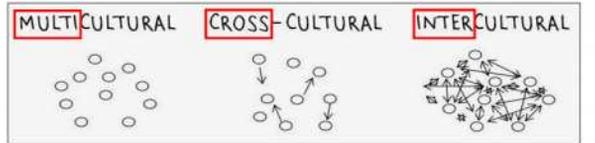
장한업(이화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다문화연구소장)

유아교육에서의 상호문화적 접근 - 필요성과 가능성 -

장 한 업

- 이화여대 불문과 교수
- 이화여대 다문화-상호문화석 박사과정 주임교수
- 이화다문화연구소장

접두사



- | | | |
|--|--|--|
| <p>MULTICULTURA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 많은 문화의 공존 • We live alongside each other. • 미국, 호주, 캐나다 등 • 백인, 인디언 따로 | <p>CROSS-CULTURA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너서’ • 한 문화 현상 비교 • There is some reaching across boundaries. • 강한 문화가 기준 • 백인이 본 인디언 | <p>INTERCULTURA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의’ • 문화 간의 상호작용 • There is comprehensive reciprocity. • 유럽평의회, 유럽연합 • 백인과 인디언 상호영향 |
|--|--|--|

유아교육과 상호문화교육

● 유아교육의 특징

- **인지적 측면**: 영아기 후반에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고정관념, 편견**이 3~5세에 더욱 확고해짐
- **대인적 측면**: 최초의 공식교육을 받게 되어 **또래와의 관계**가 중요해짐
- **내용적 측면**: 5개 영역을 **통합해 교육함**. *사회관계 (자신 존중, 사이 좋게, 다양한 문화 관심)
* 5개 영역: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 **방법적 측면**: **놀이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함 (자발성, 과정중시, 의사소통, 행복감)
- **환경적 측면**: **부모**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강함 (부모 교육 강조)

● 상호문화교육의 특징

- **상호문화교육**은 자신이 가진 **고정관념, 편견, 차별**에 대해서 성찰하게 하는 교육
- **상호문화교육**은 자신과 언어적, 문화적으로 다른 **타인과의 만남**을 가르치는 교육
- **상호문화교육**은 **모든 교과와 관련된** 교육으로 학제적 접근을 강조함
- **상호문화교육**은 학습자의 **현실세계**를 강조하는 교육 (학습자 중심)
- **상호문화교육**은 비공식, 공식, 준공식 교육으로 나뉘는데, 부모는 **비공식 교육**의 주체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상호+문화+교육

교육 教育 ★★ +
 명사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줌.

지능정보사회 암기력 > 창의력 = 차이 허용

인공지능 생명과학
 지능정보사회

4차 산업혁명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루어진 차세대 산업혁명

무인자동차 로봇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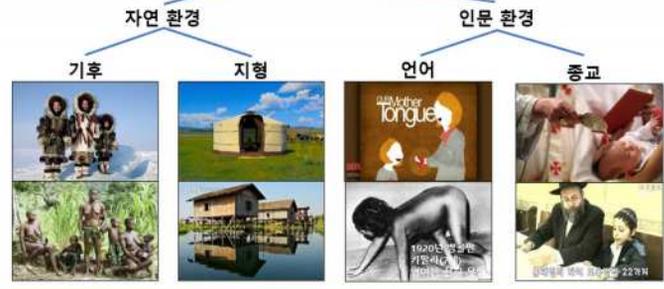
다문화사회 단일성 > 다양성 = 차이 존중

다문화사회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

유망 분야
 1인기업
 6인기업

문화

"인간이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 (장한영, 2023)



문화다양성 :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 (유네스코, 2005)

다+문화

- 본래 모든 문화는 다문화임



“모든 문화가 **혼성**의 결과다.”



“모든 문화의 역사는 **문화**와 **차이**의 역사다.”

- 현대 다문화의 특징

“동일한 공간에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혼재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현대사회**를 특징짓는 것은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변화의 **범위**도 매우 넓다는 것이다.”



다문화사회

1 교통수단의 발달

1975년 4억 명
1990년 10억 명
2009년 20억 명
2019년 43억 명

2 이동성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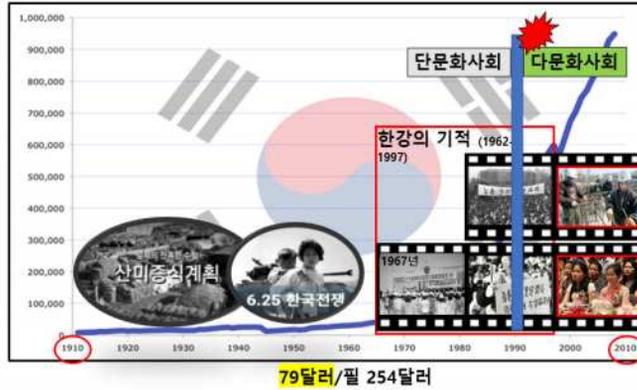
3 문화적 차이의 확산

4 다문화사회의 출현

What is a multicultural society?

It is a type of society in which people with different religions, ethnicities, nationalities and languages live together.

한국 사회의 변화



8

변혁적 교육 Transformative Educations

	The Second World War (1939-1945): A History Podcast	The Civil Rights Movement 1954 - 1968	1945-1975 LA FRANCE	GLOBALIZATION Killing Mother Earth
명칭	국제이해교육	다문화교육	상호문화교육	세계시민교육
배경	제2차대전	시민권운동	서유럽경제호황	세계화, 온난화
목표	전쟁 > 평화	차별 > 평등	공존 > 상생	파괴 > 지속
주관	유네스코	미국	유럽, 유네스코	유네스코
초점	국가 문화	집단 문화	개인 문화	지구 환경
유형	국외의 다양성	국내의 다양성	국내의 다양성	세계 다양성
도입	1997년	2007년	?	2015년

9

유럽의 상호문화교육

공통점 : 교육철학 (모든 교과목과 관련), 변혁적 교육(transformative education)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처럼 이민자들이 주류집단을 형성한 나라들은 다문화주의를 새로운 공식 이념으로 인정하기 위해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고, 기존의 정주자가 주류집단을 형성한 **유럽 국민국가**들은 다수집단과 소수집단의 통합을 위해 **상호문화교육**을 실시하는 경향이 있다." (2000, N. Palaiologou et al., 2015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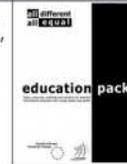


"**다문화교육**은 다른 문화를 가르쳐 이 문화를 **수용** 또는 적어도 **관용**하게 한다. **상호문화교육**은 소극적인 공존을 넘어서 다양한 문화집단들이 **이해, 존중, 대화**하여 다문화사회에 함께 살아가게 할 발전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을 찾게 한다." (2006, UNESCO Guidelines on Intercultural Education)



유럽평의회 Council of Europe

- 개요 : 1949년 창설, 46개 회원국, 8억2천만 명, 인권·민주주의·법치주의가 핵심 가치
- 상호문화교육을 가장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권장
- 1970년 이민자 자녀의 학업에 대한 결의를 공포
- 1975년 출신언어·문화교육을 권장함
- 1980년대 중반 '문화적으로 다른'(culturally different) 사람을 위한 특수교육에서 '문화적으로 추가되는'(culturally supplement) 일반교육으로 전환
- 1995년 Education Pack. All different All equal. 차이는 우리 사회의 현실, 차이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 "다문화사회의 교육적 대안"



독일의 상호문화교육

Interkulturelle Bildung und Erziehung in der Schule

(Beschluss der Kultusministerkonferenz vom 25.10.1996 i. d. F. vom 05.12.2013)

- 서론 : 학교에서 상호문화교육을 실행할 필요성 역설
- 제1부 : 학교에서 준수해야 할 목표와 일반원칙 제시
- 제2부 : 교육 당국의 책무
- **제3부 : 학교의 실행 강조**
- 제4부 : 구체적인 지원체계
- 제5부 : 외부협력자와의 협력
- 제6부 : 발전을 위한 권고



독일의 상호문화교육

Interkulturelle Bildung und Erziehung in der Schule

(Beschluss der Kultusministerkonferenz vom 25.10.1996 i. d. F. vom 05.12.2013)

- 제3부 학교의 실행 강조
- **① 학교는 다양성을 정상적이고 잠재력 있는 것으로 인식해야 함**
- ① 이주배경 학생 **환대지침** 마련. 최대한 빨리 적응하도록 유도
- ② 이주배경 학생과 학부모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 ③ 수준별 교육을 지원하고 **방과 후 교실**을 통해 도와 줌
- ④ **또래 지원(peer-training)** 또는 멘토(mentor) 프로그램 실시
- ⑤ 학생, 학부모, 교사 간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 ⑥ 학생들이 폭력, 인종차별, 이슬람혐오감, 유대인 배척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기
- ⑦ 출신국과 관련된 **다중언어능력**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독일의 상호문화교육

Interkulturelle Bildung und Erziehung in der Schule

(Beschluss der Kultusministerkonferenz vom 25.10.1996 i. d. F. vom 05.12.2013)

● 제3부 학교의 실행 강조

② 학교는 모든 교과시간과 방과 후 활동을 통해 상호문화역량을 신장시켜야 함

- ① 수업자료가 학생들의 다양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수정함
- ② 수업자료에 다양한 관점을 포함시켜 자신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게 함
- ③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 사과의 틀, 평가를 명료하게 하고, 공통점을 경험하게 함
- ④ 탐구적, 협력적 수업을 통해 다관점성을 갖도록 함
- ⑤ 학부모, 외부협력자, 학교 교류프로그램, 학교 교육과정을 밀접하게 연결하기
- ⑥ 유립교육, 민주교육, 지구적 학습,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시 [세계시민교육과 연결]



독일의 상호문화교육

Interkulturelle Bildung und Erziehung in der Schule

(Beschluss der Kultusministerkonferenz vom 25.10.1996 i. d. F. vom 05.12.2013)

● 제3부 학교의 실행 강조

② 학교는 학문적 언어능력신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공간이어야 함

- ① 모든 과목이 언어교육을 핵심과제로 여기고, 학교 교육과정 속에 언어능력과 관련된 목표를 제시함
- ② 언어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단계들 간의 이행을 원활히 함
- ③ 학생들의 제2언어 학습 과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이들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함
- ④ 수업시간에 학생의 다중언어능력을 활용함
- ⑤ 방과 후에 언어를 학습할 기회를 제공함



독일의 상호문화교육

Interkulturelle Bildung und Erziehung in der Schule

(Beschluss der Kultusministerkonferenz vom 25.10.1996 i. d. F. vom 05.12.2013)



● 제3부 학교의 실행 강조

④ 학교는 학부모와 적극적인 교육적 협력 관계를 수립해야 함

- ① 학교는 새로 들어온 학부모를 **환대**해야 함
- ② 학부모의 언어능력, 독일 학교에 대한 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상담**을 실시함
- ③ 학부모를 수업에 **참여**시켜 다양성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감
- ④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의 **협력자**가 될 수 있게 함
- ⑤ 학부모가 학교 의사결정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함

상호문화교육의 철학, 목표, 특징

철학 : 차이에의 **긍정적**인 접근. 차이가 위협이 아니라 **필요**의 원천임 - '다양성의 정상성'

목표 : "모든 학생이 자기 주위의 **문화**를 이해하고, 자기의 **편견**을 줄이고, **인종주의, 차별, 문화적 불평등**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민족중심주의**에서 벗어나 교류하게 하는 것"
(O. Meunier, 2007)

- 특징** :
1.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2. **모든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
 3. **모든 과목**과 관련되어 있다.
 4. **현실세계**에 초점을 맞춘다.
 5. **언어**는 상호문화역량의 핵심이다.
 6.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7. **학교**는 학습을 촉진하는 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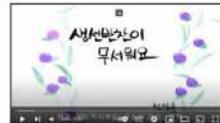
상호문화교육의 핵심주제

핵심주제	영역		
	가치와 태도	지식과 이해	기술과 능력
정체성과 소속감 Identity & belonging	모든 사람이 차이를 가질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기	자기 사회/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지식	개인 내적 기술과 대인 기술을 신장하기
유사점과 차이점 Similarity & difference	다양성의 정상성을 인정하기	다양성이 인간 생활의 정상적인 부분임을 이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과 협력하는 기술
인권과 책임 Huma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인권을 침해 받는 사람에 대한 지지사지	인권을 침해한 사례에 대한 지식과 이해	모든 상황에 인권 개념을 적용하는 기술
차별과 평등 Discrimination & equality	자신의 편견과 고정관념에 대한 비판적 성찰	다양한 직접 및 간접 차별에 대한 이해	주위의 차별에 도전하는 기술
갈등과 갈등해소 Conflicts & conflict resolution	타인의 입장에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기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에 대한 지식과 이해	사실에 근거해 판단하는 기술

18

상호문화교육 6단계

- 01** 문화개념 소개 : 가르칠 내용을 특정 국가와 연결시키지 않고 소개
(“학교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 점심시간”)
- 02** **자문화 인식** :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다른 관점이 있음을 확인
(“생선튀김을 좋아하는 사람/싫어하는 사람”)
- 03** **타문화 발견** : 글, 사진, 동영상을 통해 **타문화 소개**
(몽골 학생은 생선튀김을 싫어함)
- 04** **양문화 비교** : **단순 비교나 갈등 상황을 제시**
(한국 학생은 좋아하고 몽골 학생은 싫어함)
- 05** **문화상대성 이해** : **각 문화를 그 맥락 속에서 이해**
(몽골은 바다에 없는 나라라 생선을 먹어본 적이 없음)
- 06** **타문화 존중** : 다른 문화에 **가치를 부여하는 태도와 행동**
(생일날 몽골 친구를 위해서 생선버그는 시키지 않음)



19

정체성과 소속감

- 01** 문화개념 소개 : 사람마다 피부색이 다름
- 02** 자문화 인식 : 거울을 보면 자기 피부색 확인하기
물감으로 자기 피부색 만들기 - 여러 색 혼합
- 03** 타문화 발견 : 흑인, 백인의 피부색 확인하기
흑인이라도 완전히 검은 색이 아니고, 백인이라도 완전히 흰색은 아님
- 04** 양문화 비교 : 흑인, 황인, 백인의 피부색 비교
- 05** 문화상대성 이해 : 모든 피부색은 여러 색의 혼합의 결과임
- 06** 타문화 존중 : 피부색이 다르다고 놀리지 말기



20

유사점과 차이점

- 01** 문화개념 소개 : 어린이를 위한 노래가 있음
- 02** 자문화 인식 : Are you sleeping, are you sleeping?
Brother John... 도 그 중 하나임
- 03** 타문화 발견 : Frère Jacques, frère Jacques 소개
- 04** 양문화 비교 :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노래(유) /
잠자는 사람(차 - 오빠 vs 신부님)
- 05** 문화상대성 이해 : 같은 노래라도 받아들이는 나라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음
- 06** 타문화 존중 : 다양한 외국 노래 알고 즐기기



21

차별과 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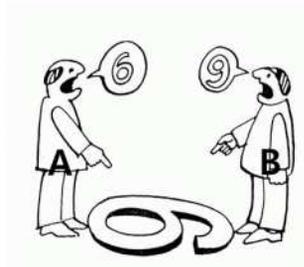
- 01** 문화개념 소개 : 사람마다 신체적 차이가 있음
- 02** **자문화 인식** : 보통 사슴코는 검은색
- 03** **타문화 발견** : 루돌프 사슴코는 빨간색
- 04** **양문화 비교** : 루돌프를 놀려대고 왕따시킴
- 05** **문화상대성 이해** : 산타가 루돌프의 장점을 존중함
- 06** **타문화 존중** : 이후 다른 사슴들이 그를 사랑함



22

인권과 책임

- 01** 문화개념 소개 : 인간은 다를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02** **자문화 인식** : A는 6으로 봄
- 03** **타문화 발견** : B는 9로 봄
- 04** **양문화 비교** : 두 사람은 다르게 봄
- 05** **문화상대성 이해** : 각자의 입장에서 보고 생각함
- 06** **타문화 존중** : 타인의 다를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야 함
자신의 다를 수 있는 권리를 존중 받기 위한 전제조건임



23

갈등과 갈등해소 (여우와 두루미)

- 01** 문화개념 소개 : 음식을 먹을 때 식기를 사용함
- 02** **자문화 인식** : 여우는 접시에 음식을 담아 먹음
- 03** **타문화 발견** : 두루미는 호리병에 음식을 담아 먹음
- 04** **양문화 비교** : 여우는 접시로, 두루미는 호리병에 음식을 담아 주어서 서로에게 불만을 가짐
- 05** **문화상대성 이해** : 식습관은 문화의 일부분으로 다를 수 있음
- 06** **타문화 존중** : 상대방의 식습관을 존중해야 함 (역지사지)



비판적 문해력 접근을 통한 유아의 상호문화역량 함양

위수정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s Angeles,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교수)

비판적 문해력 접근을 통한 유아의 상호문화역량 함양

위수정(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s Angeles,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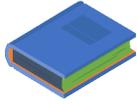
**비판적 문해력
접근을 통한
유아의 상호문화
역량 함양**

Cultivating young children's
intercultural competence through a
critical literacy approach

위수정 Su-Jeong Wee, PhD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s Angeles



The illustration depicts a man with a beard and a woman sitting on a stack of books. The man is holding a tablet and a book, while the woman is reading a book. There are several books floating around them, and a laptop is visible in the background. The overall theme is education and literacy.



개요



1. 다양성 이해하기
2. 상호문화 역량 (Intercultural competence)
3. 비판적 문해력 (Critical literacy)
4. 연구를 기반으로 한 비판적 문해력을 통한 유아의 상호문화 역량 함양하기 실제



“다양성” 이해하기

다양성의 주요 7 카테고리

- | | |
|---------------------------------|----------|
| 1. Race/Ethnicity (인종/민족성) | 추가적으로, |
| 2. Sex/Gender (성/성역할) | • 가족 조직 |
| 3. Social class (사회계층/계급) | • 직업 |
| 4. Ability (Special Needs) (장애) | • 이웃 |
| 5. Sexual Orientation (성정체성) | • 종교 |
| 6. Language (언어) | • 가족 출신 |
| 7. Age (나이) | • 문화 |
| | • 기질 |
| | • 학습 스타일 |
| | • 교육 |



상호문화 역량 Intercultural competence

상호문화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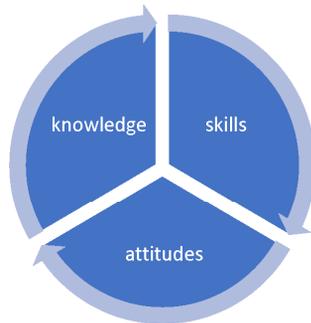
문화 간 상호 작용에서 효과적이고 적절한 가시적인 행동과 의사 소통으로 이어지는 목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개발하는 능력



상호문화 역량의 구성 요소

● 지식

- *문화적 자기 인식
- *문화 특정 지식
- *사회 언어 인식
- *글로벌 이슈 및 트렌드 파악



● 기술

- *경청, 관찰, 평가
- *분석, 해석, 연관
- *비판적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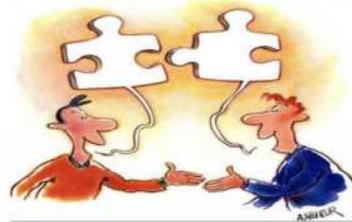
● 태도

- *존중
- *개방성
- *호기심
- *발견

상호문화적으로 유능한 사람의 프로필

- 적응 기술
- 겸손과 존중의 태도
- 문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 호스트 국가 및 문화에 대한 지식
- 관계 형성
- 자기 지식
- 상호문화 의사소통
- 조직 기술
- 개인적 및 직업적 헌신

Interculturally Competent Per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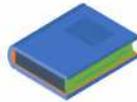


문화적 민감성

문화적 차이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문화적 차이와 유사성이 존재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



비판적 문해력을 통한 상호문화 역량 강화



문학 교육에 대한 접근법



전통적 문학 학습 지도 방법
VS.
비판적 문해력 접근법

비판적 문해력

- 언어(책에 나오는 단어와 텍스트)와 특정 그룹이 다른 그룹보다 유리한 사회적 관행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고 질문하고 도전하는 것(Wray, 2004)
- 지식이 진공 상태에 있다는 가정 거부(Luke, 2012)
- 기존의 비판적 사고 (critical thinking)를 넘어 공정성, 형평성 및 사회 정의와 관련된 문제에 초점



Intro to Critical Literacy:
Read the Word & The World

비판적 문해력 (Cont'd)

- 사회 정의와 형평성(예: 권력, 인종, 계급, 성별)에 대한 조사 및 도전(Janks, 2010, 2013)
- 텍스트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고 사회적 문제로 확장(Comber, 2013; Vasquez, 2014)



비판적 문해력 (Cont'd)

- 다음 질문을 통해 status quo 및 성별 역할에 대한 유아 자신의 가정과 편견에 도전:
 - "텍스트/그림/상황에 누가 나오는가?
누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 "누구의 목소리가 지배적이며 누구의 목소리가 소외/침묵 되는가?"
 - "대체할 수 있는 텍스트/그림/상황은 무엇일까?"
 - "형평성을 증진하기 위해 이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Harwood, 2011; McLaughlin & DeVogd, 2004)



3 R's

1. **Review** (검토): 텍스트 내용을 검사하고 조사하기
2. **Reflect** (반영): 텍스트의 내용과 포맷을 고려하기
3. **React** (반응): 입장을 취하고 대응 방법을 선택하기



비판적 문해력의 이점



- 유아의 적극적인 참여와 비판적 검토 촉진(Pradl, 1996)
- 텍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측면까지 생각하기
- 읽기가 결코 중립적이지 않으며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둔다는 것을 깨달음(Beck, 2005)
- 실생활의 문제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탐구하고 비판적으로 생각 (Fisher, 2008; Vasquez & Felderman, 2012)
- 사회 정의를 위한 행동 촉진

유아기 교실에서 비판적 문해력 접근

- 교실에서 비판적 문해력 실제의 부족
- 왜?
 - 비판적 문해력에 대한 교사의 지식 부족
 - 비판적 문해력이 교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교사의 불확실한 이해 (Lewison et al., 2002)
 - 비판적 사고와 비판적 문해력 사이의 잘못된 이해 (Lee, 2011)
 - 유아기 아동은 너무 어려서 사회적 관행을 논의할 수 없다는 교사의 인식 (Stribling,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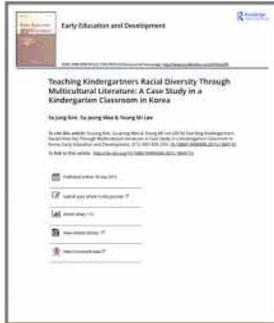
비판적 문해력을 통한 상호문화 역량에 관한 연구
 문해력을 통한 상호문화 역량에 관한 연구
 문해력을 통한 상호문화 역량에 관한 연구

비판적 문해력을 기반으로 한 상호문화 역량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

Project 1: 인종/문화 다양성

Project 2: 따돌림

프로젝트 1: 비판적 문해력을 통한 인종/문화 다양성 함양하기



Project 1-1. Teaching Kindergartners Racial Diversity through Multicultural Literature: A Case study in a Kindergarten classroom in Korea



Project 1-2. "The Color of Heart is More Important": Korean Kindergartners Exploring Racial Diversity through Poem Writing

18

연구 문제



프로젝트 1-1



프로젝트 1-2

- 한국 유치원 유아들은 아프리카/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등장하는 그림책에 어떻게 반응 하는가?
- 다문화 그림책을 읽는 것이 유아들의 인종에 대한 새로운 개념 발전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 한국 유치원 유아들은 인종적 다양성과 평등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동시에 어떻게 표현하는가?
- 유아들은 동시 쓰기 활동을 통해 사회 정의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연구방법

장소

서울의 한 유치원 5세 교실에서 진행

유아

유아 12명 (여아 6명, 남아 6명)

교사

문교사 - 8년의 교육 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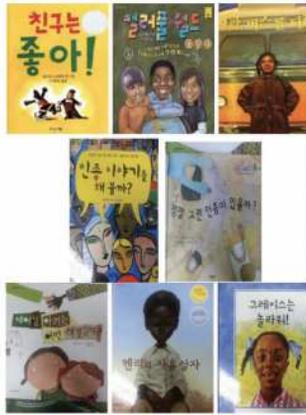
자료 수집

5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관찰 및 비디오 녹화, 다문화 도서 8권 읽기, 교사와의 정식 인터뷰 2회



연구 절차

연구에 사용된 다문화 그림책



제목	저자	삽화가	주제	출판 년도
그레이스는 놀라워	Mary Hoffman	Caroline Binch	고정관념, 차별	1991
정말 그런 인종이 있을까	Silvia Roncaglia	Christina Cerretti	인종적 다양성, 평등	2000
사라 버스를 타다	William Miller	John Ward, Rosa Parks	인종 차별, 분리	2004
인종 이야기를 해볼까?	Julius Lester	Karen Barbour	인종적 다양성, 평등	2007
친구는 좋아	Chris Raschka	Chris Raschka	인종간 관계	2007
헨리의 자유상자	Ellen Levine	Kadir Nelson	자유, 차별	2007
태어날 아기는 어떤 색깔일까	Adeline Issac	Anne Claire	인종적 다양성, 평등	2008
컬러풀 월드	CeCe Winans	Melodee Strong	고정관념 인종적 평등	2010

초기 반응: 한국 유아들의 아프리카인에 대한 고정 관념



교사: 아프리카 사람 본적 있는 사람?

동희: (손을 올리며) 텔레비전에서..

교사: 텔레비전에서 뭐 봤어요?

진영: 강통 들고 있어요.

소현: 맨발로 걸어서 두 시간 동안 걸어갔어요.

태희: 아프리카 사람들은 발에 신발과 양말이 아무도 없을 거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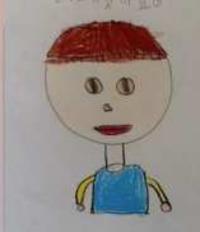


“태어날 아기는 어떤 색깔일까?”



아이들 이작 (2008). 태어날 아기는 어떤 색깔일까? (박창호 번역). 미래아이.

예측하기 & 그림 그리기

			
<p>백인이랑 백인이랑 만나서 하얀색 얼굴에 아기가 나오면 좋겠어요.</p>	<p>아프리카 사람과 대한민국의 사람이 결혼하면 흰색의 피부 가진 어린이가 태어날 거 같아요.</p>	<p>아프리카 사람과 한국 사람이 만나서 하얀 색깔이 될 것 같아요.</p>	<p>백인과 흑인이랑 만나서 흑인을 낳을 거 같아요.</p>



동시쓰기



흑인과 백인이 결혼하면 혼혈아를 낳아
 혼혈아는 백인보다는 잔하고,
 흑인보다는 흰색이지.
 혼혈아는 참 신기해.
 아프리카 사람과 한국 사람이
 결혼하면 혼혈아를 낳아
 내가 흑인과 결혼하면,
 혼혈아를 낳겠지?
 혼혈아 애기는 얼마나 귀여운
 걸까?



아기 띠 얼굴 색깔은
 왜까?
 아들의 색깔이 궁금해서
 사람은 뭐다 달라
 얼굴 색도 달라
 우리나라 사람과 아프리카
 사람 만나면 색깔은
 나도 마음에 색깔을 갖고 먹어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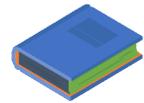
“그레이스는 놀라워!”



메리 호프만 (1991). 그레이스는 놀라워 (최순희 번역). 시공주니어.



“그레이스는 놀라워”에 대한 문학적 토론



교사: 그레이스는 “나는 피터팬을 하고 싶어” 그랬지만 친구들이 “넌 안돼” 라고 그랬어. 왜 그랬을까?

선정: 어, 여자여서

교사: “여자여서 안돼” 라고 했고, 또?

태희: 그리고 너는 흑인이야

교사: “흑인이니까 넌 안돼, 왜냐하면 피터팬은 백인만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맞아?

유아들: 아니요.

교사: 그렇지, 흑인이라고 안되고, 남자라고 안되고, 여자라고 안되고, 백인이라서 안되고 이게 아니라 사람은 모두가 다...

유아들: 다 평등해!

교사: 맞아요. 평등하기 때문에 모두 다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요. 내가 피터팬이 하고 싶으면 피부색에 상관없이 피터팬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동시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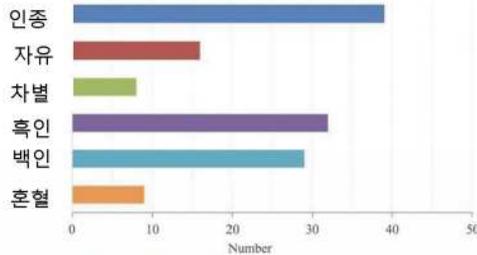
노력하면 할수있어요
 뭐든지 노력하면 할수있어요.
 여자남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자나 남자도 되고 남자 여자도 괜찮아요.
 못해도 잘 할수있어요.
 연습하면 못해도 잘 할수 있어요.
 못한다고 걱정 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고 연습하세요.
 할수있어요.
 그레이스처럼 도원관처럼 할수있어요.

내가만약에 농구선수라면
 나는 농구필드에 꼭 몸을넣을거예요.
 그래서 공메달을 딸래요.
 나는 유명한 농구선수 가 될 거예요.

그래서 피동용하고 싶어요.
 농구선수가 되어서 TV에 나올 거예요.
 왜냐면 자랑하고 싶어서요.
 아게 내 꿈이예요.

그레이스가 여자라고 흑인여었지만
 피터 판을 했던 것처럼
 나는 농구가 아주 크지 않아도
 농구를 열심히 할래요.

다른 문화/인종에 대한 유아의 태도와 지식의 변화



관찰기간 동안 사용된 인종 관련 용어들의 숫자

프로젝트 2: 비판적 문해력을 통한 다문화 유아 따돌림 방지



Project 2-1. Wiring letter to characters in bullying-themed stories: An approach to educating about bullying in early childhood



Project 2-2. Development of children's perspective-taking and empathy through bullying-themed books and role-playing



Project 2-3. “Don't bully! We are all different”: Pedagogical potential of early critical literacy with bullying-themes

연구 문제



프로젝트 2-1

- 따돌림을 주제로 한 이야기에 유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 유아들이 그림책 속 인물들에게 쓰는 편지에 무엇을 표현하는가?
- 따돌림 예방 활동을 통해 유아들의 태도와 이해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프로젝트 2-2

- 따돌림을 주제로 한 그림책과 역할극을 통해 유아들이 따돌림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 유아들의 공감 능력과 관점 수용 능력은 어떻게 발달하고 변화하는가?



프로젝트 2-3

- 교사는 다문화 유아들에 대한 따돌림을 다루기 위해 따돌림을 주제로 한 그림책/역할극, 쓰기 활동을 어떻게 통합하는가?
- 비판적 문해력은 유아들이 다문화 유아에 대한 이해와 태도를 바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



연구방법

장소

대한민국 서울에서 가장
부유하고 발전된 지역에
위치한 유치원의 5세 어린이
교실에서 진행

교사

조교사 -
10년의 3-5세 교육 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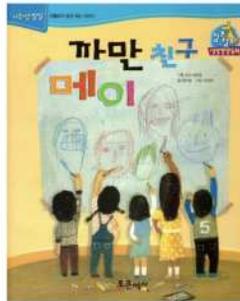


참여유아

유아 20명 (여아 10명,
남아 10명)

자료 수집

5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관찰 및 비디오
녹화, 따돌림 주제 그림책
8권 읽기, 교사와의 정식
인터뷰 2회



함지슬 (2016). *메이는 내 친구*. 한국세익스피어.



유아들의 초기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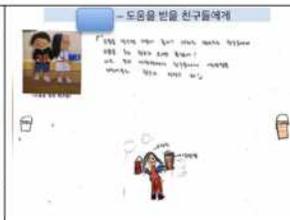
교사: 어떤 점이 기억에 남니?
 서현: 친구들이 메이를 놀렸던 것이 그게 좀 불쌍했어요.
 교사: 얼굴이 까만 친구가 우리 반에 왔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니?
 서현: 같이 안 놀았을 것 같아요.
 교사: 서현이는 친구가 안 됐을 것 같아? 놀렸을 것 같아?
 소현: 아니요.
 교사: 아~~ 놀리지는 않아도 친해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했니?
 소현: 얼굴이 까마니까!
 지원: 왜냐면 헛갈릴 수도 있으니까.
 교사: 어떤 점이 헛갈릴 수도 있으니까?
 진원: 얼굴이 까마면 얼굴이 탄 줄 알고 아프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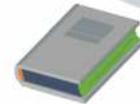
다른 인종에 대한 유아들의 고정관념과 편견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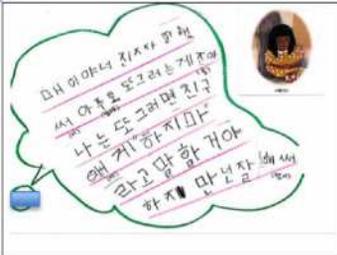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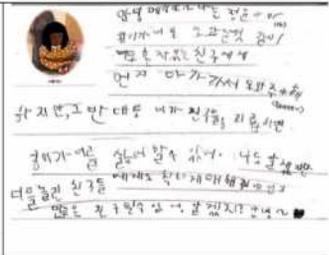


안녕 메이야. 친구들에게 책을 꺼내준 거 아주 잘했어. 너는 키가 커서 좋겠다! 나도 우리반에서 키가 큰 편이야. 키가 커서 다른 아이들을 도와준 적은 아직 없지만 나도 높은 곳에서 물건을 꺼내 주는 것을 도와 줄꺼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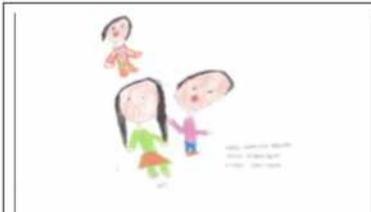


메이에게 도움을 받은 아이들에게. 너네 도움을 받아서 기분이 좋았니? 이제부터 너네도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 반에서 색연필을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아이가 될꺼야.



 <p>매이야 너 진짜 잘했어. 앞으로도 그러는게 좋아. 나는 또 그러면 친구에게 "하지마" 라고 말할꺼야. 하지만 넌 잘했어.</p>	 <p>안녕 매이야 나는 정윤이야. 콩이가 도와준 것 같이 나도 혼자 있는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서 도와주려해. 하지만 그 반대로 너가 친구들을 괴롭히면 콩이가 너를 싫어할 수 있어. 너도 알겠지만 너를 놀린 친구들에게도 착하게 대해줘야지 많은 친구 될 수 있어. 알겠지. 안녕</p>
<p>매이야 너 진짜 잘했어. 앞으로도 그러는게 좋아. 나는 또 그러면 친구에게 "하지마" 라고 말할꺼야. 하지만 넌 잘했어.</p>	<p>안녕 매이야. 나는 정윤이야. 콩이가 도와준 것 같이 나도 혼자 있는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서 도와주려해. 하지만 그 반대로 너가 친구들을 괴롭히면 콩이가 너를 싫어할 수 있어. 너도 알겠지만 너를 놀린 친구들에게도 착하게 대해줘야지 많은 친구 될 수 있어. 알겠지. 안녕</p>
<p>그림. 따돌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관해 유아들이 매이에게 쓴 편지</p>	

공감과 교실 생활의 연결

	
<p>이 그림은 아이들이 매이를 놀리는 장면이에요. 아이들이 매이가 키가 크고 못생겼다고 했어요. 내가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너무 슬펐기 때문이에요.</p>	<p>공부를 못한다고 놀림을 당해서 기분이 나빴어요. 이거는 책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내가 전에 들었던 말인데 너무 슬펐어요.</p>
<p>그림. 공감을 나타내는 유아들의 그림들</p>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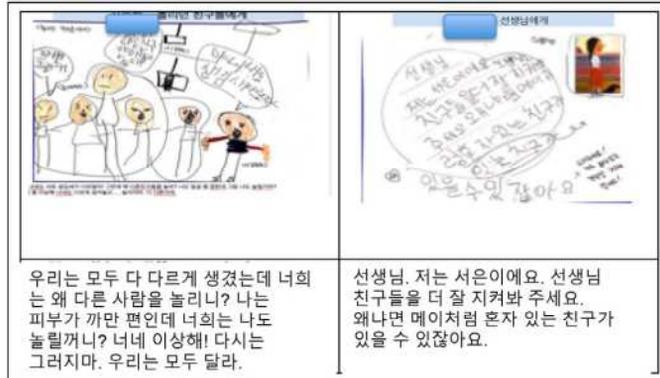


그림. 메이의 선생님/놀리는 친구들에게 쓴 유아들의 편지

38

비판적 문해력을 위한 제안



- 유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반영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
- 지배적/소외된 목소리와 성역할에 대해 비판적 질문하기
- 비판적 문해력 접근을 위한 그림책 선택
- 잘 계획된 일련의 활동을 통해 일관되고 체계적인 교육 제공
- 직접 참여를 통한 학습

비판적 문해력 사용 시 고려사항

- 대화의 시간
- 균형 잡힌 문해력
- 고차원적 사고 능력에 집중
- 다양한 텍스트



참고문헌

- Beck, A. S. (2005). A place for critical literacy. *Journal of Adolescent and Adult Literacy*, 48(5), 392–400.
- Comber, B. (2013). Critical literacy in the early years: Emergence and sustenance in an age of accountability. In J. Larson & J. Marsh (Eds.), *Handbook of early childhood literacy* (2nd ed., pp. 587–601). London, UK: SAGE
- Fisher, A. (2008). Teaching comprehension and critical literacy: Investigating guided reading in three primary classrooms. *Literacy*, 42(1), 19–28.
- Ham, J. (2015). *Dark-Skinned Friend May* [까만 친구 메이]. Seoul, Korea: Tongkeunsesang.
- Harwood, D. (2011). *Deconstructing and reconstructing Cinderella: Theoretical defense of critical literacy for young children*. Retrieved from <https://ejournals.library.ualberta.ca/index.php/langandlit/article/viewFile/9777/7691>
- Hoffman, M. (1991). *그래이스는 놀라워* [Amazing grace]. Seoul, South Korea: Sigong Junior.
- Isaac, A. (2008). *태어날 아기는 어떤 색깔일까?* [Wonder what color the baby will be?]. Seoul, South Korea: Mirae i.
- Janks, H. (2010). *Literacy and power*. New York, NY: Routledge.
- Janks, H. (2013). Critical literacy in teaching and research. *Education Inquiry*, 4(4), 225–242.
- Kim, S., Wee, S., & Lee, Y. (2016). Teaching kindergarteners racial diversity through multicultural literature: A case study in a kindergarten class in Korea. *Early Education & Development*, 27(3), 402–420.
- Kim, S., Wee, S., & Lee, Y. (2017). 'The color of heart is more important': Korean kindergartener's exploration of racial diversity through poem writing. *Australasi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42(1), 60–69
- Lee, C. J. (2011). Myths about critical literacy: What teachers need to unlearn. *Journal of Language and Literacy Education*, 7(1), 95–102. [Online]. Retrieved from http://www.coa.uga.edu/jolle/2011_1/lee.pdf
- Levine, E. (2007). *헨리의 자유상자* [Henry's freedom box]. Seoul, South Korea: Deindol ulinee.

참고문헌 (cont'd)

- Lewisohn, M., Flint, A. S., & Van Sluys, K. (2002). Taking on critical literacy: The journey of newcomers and novices. *Language Arts*, 79(5), 382–392.
- Luke, A. (1988). The non-neutrality of literacy: A critical introduction. *Australian Journal of Reading*, 11, 79–83.
- McLaughlin, M., & DeVoogd, G. L. (2004). *Critical literacy: Enhancing students' comprehension of text*. New York, NY: Scholastic.
- Pradl, G. M. (1996). *Literature for democracy: Reading as a social act*. Portsmouth, NH: Boynton/Cook.
- Stribling, S. (2014). Creating a critical literacy milieu in a kindergarten classroom. *Journal of Language & Literacy Education*, 10(1), 45–64.
- Vasquez, V. (2014). *Negotiating critical literacies with young children*. Mahwah, NJ: Lawrence Erlbaum.
- Vasquez, V., & Felderman, C. (2012). *Technology and critical literacy in early childhood*. New York, NY: Routledge.
- Wee, S., Kim, S., & Kim, K. (May, 2016). Case study of Korean children's understanding of racial diversity through role-play.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10(2), 127-151.
- Wee, S., & Lee, Y. (2020). Writing letter to characters in bullying-themed stories: An approach to preventing bullying in early childhood. *Australasi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45(3), 266-279. doi:[10.1177/1836939120936002](https://doi.org/10.1177/1836939120936002)
- Wee, S. J., Kim, S. J., Chung, K., et al. (2022). Development of children's perspective-taking and empathy through bullying-themed books and role-playing. *Journal of Research in Childhood Education*, 36, 96–111. DOI: 10.1080/02568543.2020.1864523
- Wee, S., Kim, S., & Kim, J. (2022). "Don't bully. We are all different": Bullying toward children with different racial backgrounds and special needs. *Journal of Early Child Research*, 20(4). doi.org/[10.1177/1476718X221087](https://doi.org/10.1177/1476718X221087)
- Wray, D. (2004). *Teaching literacy: Using texts to enhance learning*. Oxon, OX: David Fulton Publishers.



감사합니다



Do you have any questions?

swee@calstatela.edu

<https://www.calstatela.edu/hhs/cfs/su-jeong-wee>



참여하고 협력하는 어린이 시민 이야기: 우리의, 우리에게 의한, 우리를 위한 변화

김미선

(전 아이코리아부속새세대유치원 교사)

참여하고 협력하는 어린이 시민 이야기: 우리의, 우리에게 의한, 우리를 위한 변화

김미선(전 아이코리아부속새세대유치원 교사)



CONTENTS

사례 소개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어린이 시민



민주적으로
의사결정하는
어린이 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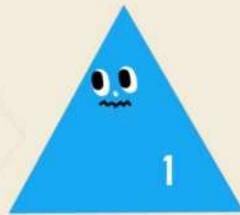


협력하고
문제해결하는
어린이 시민



공감과 참여,
연대를
아름어내는
어린이 시민

사례 속
의미 찾기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어린이 시민



동생들이 조심해!



방편적으로 사고하는 어린이 시민



안전을 조심해야 하는 장소. 이유



방편적으로 사고하는 어린이 시민



현장 조사 & 교사 면담



방역으로 시작하는 어린이 시민



민주적으로
의사결정하는
어린이 시민



투표로 의견 모으기



민주적으로 의사결정하는 어린이 시민



문제해결을 위한 회의



눈에 잘
띄는
표지

동생이 알아
볼 수 있는
그림

재미

민주적으로 의사결정하는 어린이 시민



동생들의 생각을 듣는 공청회

2023 육아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주제강연 2 | 김미진



누가 사탕을 가져갈까봐 미리 가져가고 싶어서
손잡이를 잡을 거 같아

사탕도 여러 맛이 있어

물고기는 여러 색깔이 있으니까
물고기가 좋아

사탕이 먹고 싶어서 마스크를 벗고
진짜 먹을 수도 있고 진짜 위험할 수도 있어

자기가 잡고 싶은 사탕을 잡다가 넘어지면 어떡해?
그리고 또 사탕을 싫어하면 어떡해? 이 썩을 수도 있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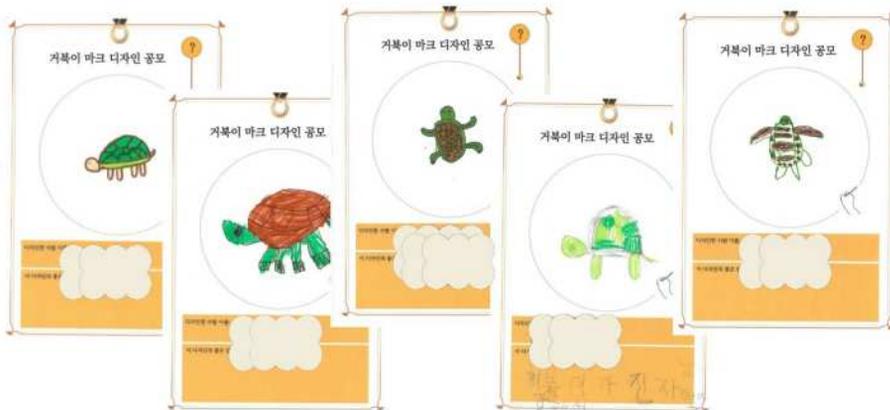
물고기랑 같이 가는 느낌이 드니까 좋아

민주적으로 의사결정하는 어린이 시민



관심과 참여를 격려하는 공모전

2023 육아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주제강연 2 | 김미진



민주적으로 의사결정하는 어린이 시민



더 많은 사람의 '참여할 권리'

"투표권"



민주적으로 의사결정하는 어린이 시민



협력하고
문제해결하는
어린이 시민



이웃 기관의 협조 구하기



영유아고 문제해결하는 어린이 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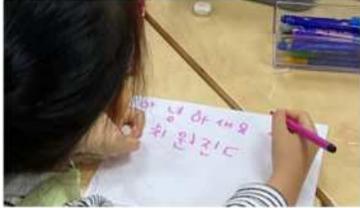
물고기 안전표지 만들어 붙이기



영유아고 문제해결하는 어린이 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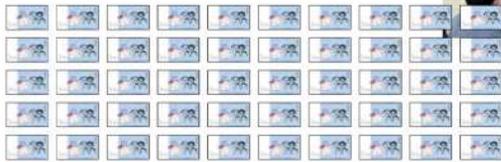
거북이 안전표지 주문제작을 위한 문제해결



임의하고 문제해결하는 어린이 시민



안전표지 구매를 위하여 기관의 동의 얻기



...



임의하고 문제해결하는 어린이 시민



공감과 참여,
연대를 이끌어내는
어린이 시민



안전표지 홍보영상 만들기



다들 어린이 크레디트를 물어봐요. 아예 안요.



거북이 안전표지 설치하기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동생들과 주고받는 영상편지



모두가 함께 하는 안전 캠페인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부모님들의 협력 이끌기



주변 지역사회에 홍보하기



육아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주제강연 2기 강연안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의 참여

1. 나의 참여는
전반의 모습이 들어있어,
거울이 되어 보건의 참여가 돼.

2. 나의 참여가 빨리 가면
재빨리 참여해서
부담 줄 수도 있어!

3. 나의 참여는
필요한 모습이 들어있어,
필요한 모습
필요한 참여가 돼.

4. 나의 참여는
필요한 모습이 들어있어,
필요한 모습
필요한 참여가 돼.

5. 나의 참여는
필요한 모습이 들어있어,
필요한 모습
필요한 참여가 돼.

6. 나의 참여는
필요한 모습이 들어있어,
필요한 모습
필요한 참여가 돼.

7. 나의 참여는
필요한 모습이 들어있어,
필요한 모습
필요한 참여가 돼.

진달래경찰
유치원 안전교육

내용: 제단, 복도, 대합실, 단 칸
방법: 실감, 체험
신청: 출근하는 날, 유치원 전 회
날짜, 시간:

차 수	주 1차	주 2차	주 3차	주 4차
1차	11:00 - 11:30			
2차	11:00 - 11:30			

* 1차일 당 20명씩 나누어 진행합니다.

신청하려면
반의름을 찾아주세요.

진달래 경찰

육아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주제강연 2기 강연안

참여하고 협력하는
어린이 시민 이야기

사례 속
의미 찾기

Inter -

- between
- among
- together

협력, 협상, 중재
상호작용, 대화
배려, 존중

- **between**
- **among**
- **together**

시선 속 의미 찾기

공동의 문제
공동유된 가치
공동선을 위하여
공동체성, 소속감

- **between**
- **among**
- **together**

시선 속 의미 찾기

Citizenship

의

우리의 **우리에 의한** **우리를 위한** **변화**
우리의 참여와 협력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
'우리'라는 정체성

의



감사합니다



개요순 어질, 세모순 정자를 위한
프렌드 디자인 가이드라인

공정한 학급에 대한 유아의 생각

Young children's thoughts about a fair class

안예슬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엄정애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공정한 학급에 대한 유아의 생각 *

Young children's thoughts about a fair class

안예슬(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엄정애(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I. 서론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공정성을 판단하게 된다. 공정성은 혼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의 개인 간에, 그리고 학교, 회사, 국가와 같은 집단 내에서, 집단 간에서 판단되는 특징이 있다(Gollwitzer & van Prooijen, 2016). 공정성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공정성은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Sandel, 2010/2014), 상황이나 타인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것(김명언, 1997; Skitka, Bauman & Mullen, 2016)으로 정의된 바 있다. 공정성의 특징과 공정성에 대한 기존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공정성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하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각 개인이 공정성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성은 집단의 유지 및 발전에 중요한 가치이며,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공성을 추구해야 한다(박효민, 2021). 유아가 공정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을 하는 공동체는 바로 학급이다. 공정성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판단임을 고려하면, 유아 또한 학급에서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에서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교사가 학급에서 일상적으로 공정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학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유아가 공정한 학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아가 생각하는 공정한 학급이 무엇인지를 드러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존에 유아 공정성 분야의 연구들은 공정성 중에서도 분배공정성에 초점이 있다(Shaw & Olson, 2012). 또한 연구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유아가 공정성 개념을 무엇으로 생각하는지를 드러내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Bentley, 2012), 이를 통해서 유아에게 중요한 공동체인 학급에서의 공정성에 대해 유아

* 본 논문은 2023년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 yeseulcpf1@hanmail.net

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힘들다.

그러므로 유아의 목소리를 통해 유아가 생각하는 공정한 학급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한 집단의 공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노력이 중요하므로, 학급의 구성원인 유아와 교사가 공정한 학급을 조성하는 데 있어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유아의 생각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가 생각하는 공정한 학급이 무엇인지를 유아의 목소리를 통해 심층적으로 드러내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선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는 공정한 학급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2. 유아는 어떤 교사를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유아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묘사, 해석하여 연구참여자의 관점을 발견하는 기본적 질적연구(Basic qualitative research, Merriam & Tisdell, 2016)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시에 있는 한 대학 부속유치원의 네 학급에 재원 중인 유아 77명이었다. 연령 별로는 만 4세 두 학급의 유아 35명, 만 5세 두 학급의 유아 42명이었고, 성별로는 남아 36명, 여아 41명이었으며, 유아의 월령은 만 4세 학급 유아가 52~63개월, 만 5세 학급 유아가 64~75개월이었다.

본 연구는 공정한 학급에 대한 유아의 생각을 유아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내는 것에 초점이 있었으므로, 주된 자료수집방법으로 유아면담을 채택하였다. 유아면담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학급 내 공정성 관련 에피소드(안예슬, 2023)’를 수정 및 보완하여 연구도구로 사용하였다. 에피소드는 학급에서 유아가 공정성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상황들을 토대로 하여, 상황에 대해 유아에게 들려준 이야기와 추가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유아에게 에피소드의 상황을 들려주고, 이에 대한 유아의 생각을 들었으며 추가로 관련 질문을 하여 유아가 생각하는 공정한 학급이 무엇인지를 도출하였다.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예비연구로써 연구도구가 연구 참여 학급에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과 전반을 참여관찰하였으며,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하여 에피소드를 연구도구로 확정하였다. 본연구 시에는 유아 소집단면담을 단계적으로 3회 실시하였다. 에피소드를 활용하여 1, 2회차 소집단면담을 실시한 후, 개방적 질문으로 3회차 소집단면담을 하였다. 소집단면담 시,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지 않거나 친구의 말을 따라하는 경우와 같이 개별면

답이 필요하다고 본 유아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개별면담을 1회 실시하기도 하였다. 소집단 구성은 담임교사의 도움을 받아 평소 친밀하거나 함께 놀이하는 유아들로, 한 집단 당 2~3명으로 구성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소집단면담 78회, 개별면담 32회를 실시하게 되었다. Bogdan과 Biklen(2015)의 절차에 따라 자료를 축소해나가며 자료분석을 하였으며, 연구자의 분석 및 해석이 타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구성된 최종코딩체계를 네 학급의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연구 참여 기관의 교사 1인, 유아교육전문가 1인에게 검증받는 과정을 거쳤다.

Ⅲ. 연구결과

1. 공정한 학급을 만들기 위해 유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유아들은 공정한 학급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첫째, 유아들은 공정한 학급을 만들기 위해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유아들은 규칙이 있기 때문에 학급의 질서가 유지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유아들에게 규칙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유아들은 규칙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둘째, 유아들은 교사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유아들은 공정한 학급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의 말을 잘 듣고 따라야 한다고 보았으며, 교사가 결정하는 모든 것은 공정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었다. 셋째, 유아들은 또래와 잘 지내는 것이 공정한 학급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보았다. 유아들은 현재 자신의 학급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로 친구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지내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또래 간 힘의 차이로 인해 경험했던 친구와의 부정적 사건은 공정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유아에게 있어 또래와의 친밀한 관계는 학급 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유아들은 서로 배려 및 존중함으로써 공정한 학급을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넷째, 유아들은 공정한 학급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유아들은 교사에게 발표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거나, 잘못을 한 또래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한 것과 같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교사 및 또래에게 직접, 또는 교사의 도움을 받아 또래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유아들이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는 상황을 개선해보려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다 실천적인 것이었다.

2. 유아가 생각하는 공정한 교사

유아들은 대체로 교사는 공정하고 옳은 행동과 말을 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유

아가 생각하는 공정한 교사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유아들은 동등한 대우를 하는 교사를 공정한 교사로 보았다. 유아들은 기본적으로 교사는 모든 유아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보았고, 두 명의 노력 정도나 결과물이 다른 경우에도 교사는 두 유아 모두를 동등하게 격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둘째, 유아들은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교사를 공정한 교사로 생각하였다. 유아들은 놀잇감을 나누어야 하거나, 또래갈등이 발생하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잘 되지 않았을 때와 같이 학급에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사가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특히 유아들의 입장에서 교사가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일들은 또래관계와 관련된 것이었다. 셋째, 유아들은 나를 존중해주는 교사를 공정한 교사로 인식하였다. 유아들은 교사가 자신이 학급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지내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하였으며, 자신 또는 친구의 입장이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어야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넷째, 유아들은 신뢰할 수 있는 교사를 공정한 교사로 보았다. 유아들은 교사를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만큼 교사의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교사의 말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사가 상황에 따라 약속을 변경하거나 강조하는 것이 달라진 경우에 있어, 유아들은 이를 불공정했던 상황으로 떠올리고 있었다. 유아들이 교사의 권위를 매우 잘 인식하고 있는 만큼 유아들은 교사가 일관된 말과 행동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존재이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들은 공정한 학급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유아들은 규칙 준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는데, 이를 통해 교사는 학급 규칙을 만들 때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아에게 교사는 절대적이고 권위 있는 존재인 것이 드러났으므로, 교사는 자신의 권위를 인식하고 교사가 가진 힘을 부정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유아들이 공정한 학급에 있어 또래와의 친밀한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교사는 유아의 또래갈등 시 이를 민주적으로 중재하여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아들은 공정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교사는 유아가 학급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에 대해 주체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민주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유아가 생각하는 공정한 교사는 동등한 대우를 하고, 어려운 일을 도와주고, 존중해주고, 신뢰할 수 있는 교사였다. 유아들은 교사를 대체로 늘 공정한 존재라고 생각하여 교사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유아

들의 생각을 종합해보면 유아들에게 공정한 교사는 공정한 대우를 실천하는 교사였다. 유아들은 동등한 대우를 통해 평등을 실천하면서, 각 유아의 상황에 맞는 개별적 도움을 주는 배려를 실천하는 교사를 공정하다고 보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유아들은 공정한 학급을 만들기 위해 교사의 역할이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 책무성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이 드러나 의미가 있다. 이를 고려하여 교사는 학급 운영 시 유아를 학급의 주체로 인식하여 유아의 참여를 격려하고 자신의 권위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아는 교사의 권위를 매우 절대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교사는 자신이 내리는 교육적 판단이 유아에게 그 자체로 공정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교사는 공정한 학급을 만들기 위해 매사에 숙고해야 하며 학급의 일상이 유아가 공정성 발달을 해내갈 수 있는 교육적 기회가 되고, 유아가 공정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명언(1997). 정부정책, 가족생활, 그리고 직장에서의 공정성. 석현호(편),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나남출판.
- 박효민(2021). 공정성의 사회적 의미. 이한주, 오재호(편), *공정한 사회의 길을 묻다*. 시공사.
- 안예슬(2023). 유아 면담을 위한 '학급 내 공정성 관련 에피소드' 개발. *교육과학연구*, 54(1), 75-101.
- 이건(2015). 사회갈등 해소 기제로서의 공정성 탐색.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9(4), 27-51.
- 임채운(2021). 공정성은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나?. 이한주, 오재호(편), *공정한 사회의 길을 묻다*. 시공사.
- Bogdan, R., & Biklen, S. K. (2015). *교육의 초보연구자를 위한 질적 연구방법론의 기초*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methods*(박혜준 역). 경문사. (원전 2007 출판)
- Bentley, D. F. (2012). "Rights are the words for being fair": Multicultural practice in the early childhood classroom.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40(4), 195-202.
- Gollwitzer, M., & van Prooijen, J. W. (2016). Psychology in justice. In C. Sabbagh & M. Schmitt (Eds.), *Handbook of social justice theory and research*. Springer.
- Merriam, S. B., & Tisdell, E. J. (2016).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to design and implementation*. (4th ed.). John Wiley & Sons.
- Sandel, M. J. (2014). *정의란 무엇인가*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김명철 역). 미래엔. (원전 2010 출판)
- Shaw, A., & Olson, K. R. (2012). Children discard a resource to avoid inequit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41(2), 382-395.
- Skitka, L. J., Bauman, C. W., & Mullen, E. (2016). Morality and justice. In C. Sabbagh & M. Schmitt (Eds.), *Handbook of social justice theory and research*. Springer.

보육실습 전 · 후에 따른 예비보육교사의 영아반교사 이미지에 관한 메타포 분석

A metaphor analysis of pre-service child care teachers on the image of
infant teachers before and after child care practicum

유지혜

(배재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보육실습 전·후에 따른 예비보육교사의 영아반교사 이미지에 관한 메타포 분석*

A metaphor analysis of pre-service child care teachers on the image of
infant teachers before and after child care practicum

유지혜(배재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I.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변화된 산업구조와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 부담이 커지게 되면서 영유아의 양육과 교육을 국가가 주도하는 다양한 보육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는 만 0세~만 2세 영아 무상 보육 정책(보건복지부, 2012)을 시작으로 각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등 영·유아 보육에 힘을 쏟고 있다.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높아짐에 따라 영아를 보육하는 영아반 보육교사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영아반 교사는 인생에서 가장 급격한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영아기에 긍정적인 발달 및 학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영아반 교사의 전문화된 기술과 영아 발달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서문희, 2013). 영아반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있어 요구되는 것은 확고한 전문성 인식에 의한 직업만족감과 높은 사명 의식이며, 이러한 확고한 신념과 전문성 인식은 영아 보육의 질적 향상에 있어서 하나의 출발점이 된다(홍영숙, 1997).

영아반 교사의 역할에 대한 전문성 인식은 영아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결정적 변인 중 하나이며 이는 영아반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긍정적인 방향임을 시사한다(김주희, 황희숙, 2019). 영아반 교사의 전문성 향상의 첫 단계는 예비교사 스스로 전문성을 자각할 때 시작

* 본 논문은 2022년도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일부의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 youjihye88@daum.net

되므로 예비교사가 영아반 교사의 전문성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인식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비교사들은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보육교사 관련 교과목의 학점을 이수하고 보육교사 자격취득 기준에 맞는 보육실습을 이행한다. 보육실습은 예비교사들이 교사의 역할을 경험하고 교사의 자질을 갖추어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이춘자, 2010). 그러므로 영아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영아반 교사 스스로 전문성을 인식하고 영아반 교사에 대한 올바른 신념을 갖는 것이 최우선이며, 예비교사의 신념과 가치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본 연구는 예비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영아반 보육교사에 대한 메타포 분석을 통해 '영아반 교사'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영아반 교사의 역할을 이해하고 보다 긍정적이고 전문적인 방향으로 예비교사가 정체성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영아반 교사 관련 교육 및 영아반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에 두고 있다. 연구 문제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1. 예비교사의 보육실습 전 영아반 교사 이미지는 어떠한가?
2. 예비교사의 보육실습 후 영아반 교사 이미지 변화양상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대전·충남 지역 소재 3년제, 4년제 대학(교)에서 보육 교과를 이수하고 있는 예비보육교사 160명을 대상으로 메타포 설문지를 진행하였다. 또한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보육실습 전·후 영아반 교사 이미지에 대한 변화양상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보육실습 전·후 예비교사가 인식하는 영아반 교사 이미지 변화양상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시작으로 예비조사를 통해 연구의 내용을 구체화 및 체계화하여, 2022년 4월부터 10월까지 연구가 진행되었다. 메타포 설문지는 총 2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심층면담은 영아반에서 보육실습을 마친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에 동의한 10명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1차 메타포 설문지는 보육실습 경험을 하기 전 예비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영아반 교사 이미지에 대해 작성하였고, 2차 메타포 설문지는 보육실습 경험을 한 후 예비교사가 인식한 영아반 교사 이미지에 대하여 작성하였다. 메타포 설문지 분석은 1, 2차 메타포 설문지를 반복적으로 읽고 범주화하였으며 재해석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범주의 타당성을 위해 지도교수로부터 자료를 검토 받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내용을 객관화하였다.

심층면담은 영아반에서 실습을 거친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1차에 작성한 메타포와 보육 실습 후 2차 메타포가 변화된 이유에 대해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전사한 내용은 범주의 타당성을 위해 유아교육과 교수 1인으로부터 자료 검토 후 내용을 객관화하였다. 이후 자료 해석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 참여자와 함께 읽어보았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예비교사의 보육실습 전 영아반 교사 이미지

1) 인성적 특성 메타포

영아를 먹이고, 재우고, 돌보며, 위협으로부터 영아를 지키기 위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관찰 및 보호하는 존재로 영아반 교사를 인식하고 있는 관점이 담긴 메타포 표현을 모아 범주화하였으며 69%로 가장 높은 이미지로 나타났다.

2) 전문적 특성 메타포

영아반 교사가 갖춰야 할 전문가적인 모습으로 다재다능하고 영아를 먹이고, 재우고, 돌보며, 위협으로부터 영아를 지키기 위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관찰 및 보호하는 존재로 영아반 교사의 전문성을 인식하고 있는 관점이 담긴 메타포 표현을 모아 범주화하였으며 46%로 두 번째로 높은 이미지로 나타났다.

3) 직업적 특성 메타포

영아반 교사 직업의 특성적인 모습으로 영아 곁에 머물러 있으며 도움을 주고, 영아를 위해 인내심과 희생 및 감정조절이 필요하고 쉬 없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 직업으로 영아반 교사를 인식하고 있는 관점이 담긴 메타포 표현을 모아 범주화하였으며 40%로 가장 낮은 이미지로 나타났다.

2. 예비교사의 보육실습 후 영아반 교사 이미지 변화양상

1) 보육실습 전·후 변화 없이 고정된 영아반 교사 이미지

보육실습 전·후로 변화되지 않은 보존적 메타포는 보육실습 경험을 통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영아반 교사 이미지에 관한 메타포가 더 확실해진 경우이며, 이 경우 보육실습 경

힘을 통해 영아반 교사에 대한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더 단단하게 성립하였다. 또한 보육실습 전·후로 인성적 이미지가 많은 것으로 보아 예비교사가 인식하는 영아반 교사 이미지는 전통적으로 영아를 사랑하고 따뜻한 양육자의 이미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보육실습 전·후 인성적 특성으로 변화된 교사 이미지

인성적 특성에서 전문가적 특성으로 변화양상이 가장 높았다. 보육실습 전에는 단순 돌봄으로 영아를 보호하거나 양육하는 이미지에 멈춰 있었으나 보육실습을 겪으며 돌봄에 대한 의미가 영아에게는 가치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영아들을 가르치는 일을 단순히 영아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양육자의 영아반 교사 이미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교육적이고 전문가적인 역할로 인식을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보육실습 전·후 직업적 특성으로 변화된 교사 이미지

인성적 특성에서 직업적 특성으로 변한 경우 보육실습 경험을 통해 영아반 교사의 다양한 역할을 인식한 경우이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반 교사는 영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줄 뿐 아니라 영아를 교육하고 가르치며 위험에서부터 안전하게 영아를 보호해야 하는 역할을 다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보육실습 전·후 직업적 특성에서 인성적 특성으로 변화된 교사 이미지

직업적 특성에서 인성적 특성으로의 변화로 영아와 함께 보내는 영아반 교사는 부모를 대신하여 양육하고 지도함에 따라 그만큼 인내와 책임이 따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예비교사가 보육실습 전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영아에 대한 인내와 존중이 보육실습을 경험하면서 더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예비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영아반 보육교사에 대한 메타포 분석을 통해 ‘영아반 보육교사’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들이 인식한 보육실습 전·후 영아반 교사 이미지 중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낸 것은 영아를 사랑하고 따뜻하게 보호하는 이미지로 나타났다.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

에 따라 영아반 교사의 돌봄을 영아를 위한 교육적이고 전문가적인 행위로 인식할 수 있도록 보육 교육과정의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 교육과 보육이 함께 공존하는 전문적인 돌봄에 대한 시각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예비교사들이 보육실습을 거치며 영아반 교사 이미지 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영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겪은 영아에 대한 이해도로 나타났다. 이는 영아를 실제 대면해보고 실천적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보육실습의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예비교사들이 영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보육실습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하며 영아를 보육하고 지도하는데 필요한 전문적 보육지식을 보육교사 양성기관과 보육실습 기관에서 심도 있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보육실습 전과 보육실습 후 가장 대비가 되어 나타난 영아반 교사의 이미지는 보수에 비해 힘든 직업,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와 위상으로 나타났다. 예비교사가 가지고 있는 영아반 교사에 대한 낮은 사회적 위치와 지위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영아반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과 국가 차원에서의 영아반 교사의 전문성 인식 향상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보육실습 과정이 예비 교사에게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 결과들에 근거하여, 예비교사들이 보육실습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영아반 교사 이미지에 대한 변화를 심층적으로 탐구해 보았다. 또한, 예비교사 양성과정에 영아반 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탐구해 보았다. 본 연구 결과는 영아반 교사 관련 교육 및 영아반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주희, 황희숙(2019). 메타포 분석을 통한 예비 영유아교사의 영아보육에 대한 인식. *한국영유아보육학*, 114, 69-91.
- 서문희(2013). 아이사랑플랜의 성과와 시사점. *육아정책포럼*, 34, 6-13.
- 이춘자(2010).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한 유아 이미지 변화 분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6), 219-239.
- 보건복지부(2021). *영아 무상 보육정책*. 보건복지부.
- 홍영숙(1997). 교사의 교직 전문성 인식과 역할수행 및 직무만족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부모신념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성별 및 연령을 중심으로

The effects of parental beliefs on the self-esteem of young children:

Focusing on children's gender and age

안예슬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박성주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박사수료)

부모신념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성별 및 연령을 중심으로

The effects of parental beliefs on the self-esteem of young children:
Focusing on children's gender and age

안예슬(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박성주(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박사수료)*

I. 서론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어려움을 잘 극복한다. 유아기는 자아존중감이 발달해가는 시기이며, 유아기에 형성된 자아존중감은 이후에도 지속되므로, 유아기에 높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것은 중요한 과업이다. 유아의 자아존중감 형성에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Kostelink et al., 2002).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주로 양육행동 및 양육태도에 초점을 두어 이루어져, 양육의 토대가 되는 부모신념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대한 탐색은 부족한 실정이다.

부모의 양육과 자아존중감 간 관계를 알아본 연구들은 주로 유아보다는 초등학교생이나 중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다. 유아 대상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이유는 자아존중감은 그 특성상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할 때 정확한데(Taforodi & Ho, 2006), 그동안 유아의 자아존중감을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기에 적절한 척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박성주, 이영선, 이승연, 2023). 초등학교생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들에서 자녀의 성별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어머니 및 아버지의 영향력이 다르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는데(Hurtig, 1991), 유아의 성별을 나누어 살펴본 시도는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외에도 유아기는 급격한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유아의 연령을 나누어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신념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도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아버

* 교신저자: tjdah4fk@naver.com

지의 부모신념이 유아의 성별, 연령별로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부모신념과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2. 부모신념과 유아의 성별, 연령별 자아존중감의 관계는 어떠한가?
3. 부모신념이 유아의 성별, 연령별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의 3개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 4, 5세 유아와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유아는 유아 220명(여아 103명, 남아 117명)이었고, 부모는 404명(어머니 208명, 아버지 196명)이었다. 연구대상 유아의 수와 어머니, 아버지 수가 다른 것은 연구대상 유아의 부모 중 설문지에 부모 모두 응답한 경우와 부모 중 한 명만 응답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었다.

부모신념 측정을 위해 안예슬, 이영선, 이승연(2022)이 개발한 ‘유아기 자녀 부모용 부모신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 척도는 4가지 하위요인의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5점 척도(1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점 ‘매우 동의한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신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유아의 자아존중감 측정을 위해서는 박성주 등(2023)이 개발한 ‘유아용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 척도는 2가지 하위요인의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3점 척도(0점, ‘보통이다’, 1점, ‘그렇다’, 2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자아존중감을 높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 220명의 검사 결과와 응답이 완료된 부모 설문지 404개를 최종적으로 자료분석에 활용하였다. 부모신념과 유아의 자아존중감 결과를 빈도분석하였고, 부모신념과 유아의 자아존중감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유아를 연령에 따라 구분할 경우 표본의 수가 적어 유의도 수준을 .10으로 설정하였다(성태제, 시기자, 2006). 부모신념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부모신념과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전반적 경향

부모신념과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모신념은 자녀 본성에 대한 신념이 가장 높았고, 부모 역할에 대한 신념이 가장 낮았다. 유아의 자아존중감은 자아존중감 전체, 가치, 유능성 모두 여아가 남아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만 3세, 만 4세, 만 5세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1 >

부모신념 (n=404)	어머니						아버지								
	자녀 본성	자녀 발달	부모 역할	자녀 양육 목표 및 가치	양육 시 가치	전체	자녀 본성	자녀 발달	부모 역할	자녀 양육 목표 및 가치	양육 시 가치	전체			
평균	4.48	3.80	3.15	3.85		3.81	4.36	3.83	3.14	3.76		3.76			
표준편차	.40	.52	.53	.43		.32	.42	.66	.62	.51		.51			
유아의 자아존중감 (n=220)	성별						연령별								
	가치		유능성		전체		가치			유능성			전체		
	남아	여아	남아	여아	남아	여아	만 3세	만 4세	만 5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남아	여아	남아	여아	남아	여아	만 3세	만 4세	만 5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평균	1.55	1.67	1.41	1.46	1.48	1.56	1.68	1.62	1.52	1.48	1.47	1.35	1.58	1.54	1.43
표준편차	.47	.34	.55	.44	.47	.35	.38	.38	.48	.47	.47	.56	.38	.38	.48

2. 부모신념과 유아의 성별, 연령별 자아존중감의 관계

부모신념과 유아의 성별, 연령별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면 표 2, 표 3과 같다. 먼저 유아를 성별로 구분한 표 2를 살펴보면, 남아의 자아존중감 전체, 가치, 유능성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모신념과 부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었던 반면, 여아의 자아존중감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모신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연령을 구분한 표 3을 살펴보면, 만 3세와 만 5세의 자아존중감은 부분적으로 어머니, 아버지의 부모신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만 4세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신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부모신념		어머니 (n=208)					아버지 (n=196)				
		자녀 본성	자녀 발달	부모 역할	자녀 양육 시 목표 및 가치	전체	자녀 본성	자녀 발달	부모 역할	자녀 양육 시 목표 및 가치	전체
남아 (n=117)	가치	.17	.29**	.07	.17	.25*	.19*	.09	.24*	.23*	.27**
	유능성	.23*	.31**	-.02	.16	.25*	.11	.08	.14	.09	.15
	전체	.21*	.33***	.02	.18	.27**	.16	.10	.20*	.17	.23*
여아 (n=103)	가치	.16	.03	.00	.01	.05	.15	.07	.07	.05	.14
	유능성	.10	-.06	.01	.00	-.00	.04	-.05	.13	-.03	.05
	전체	.15	-.03	.01	.00	-.02	.10	.01	.12	.01	.10

* $p < .05$, ** $p < .01$, *** $p < .001$

< 3>

부모신념		어머니					아버지				
		자녀 본성	자녀 발달	부모 역할	자녀 양육 시 목표 및 가치	전체	자녀 본성	자녀 발달	부모 역할	자녀 양육 시 목표 및 가치	전체
만 3세 (n=65)	가치	.20	.23 [†]	.04	.00	.15	.16	.01	.27 [†]	.18	.22 [†]
	유능성	.10	.19	.03	-.10	.09	-.02	-.18	.35**	.08	.10
	전체	.16	.23 [†]	.04	-.06	.13	.07	-.11	.35**	.14	.18
만 4세 (n=81)	가치	.00	.07	.02	.03	.04	.10	-.02	.06	-.05	.01
	유능성	.05	.00	-.08	.01	-.03	.09	-.00	-.01	-.10	-.03
	전체	.03	.04	-.04	.02	.00	.11	-.01	.02	-.09	-.01
만 5세 (n=74)	가치	.27*	.25*	.09	.22 [†]	.28*	.17	.18	.13	.21	.30*
	유능성	.29*	.24*	.05	.28*	.29*	.08	.17	.04	.09	.18
	전체	.30*	.26*	.07	.27*	.31**	.14	.20	.09	.16	.26*

[†] $p < .10$, * $p < .05$, ** $p < .01$

3. 부모신념이 유아의 성별, 연령별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부모신념이 유아의 성별, 연령별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부모신념 하위요인 중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던 하위요인들을 바탕으로 단계적 선택법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 4, 표 5와 같다.

< 4>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수정된 R^2	F	DW	VIF
가치	어머니	자녀 발달	.25	.08	.29	3.06**	.08	9.36**	1.75	1.00
	아버지	부모 역할	.18	.07	.25	2.63**	.06	6.91**	1.56	1.00
유능성	어머니	자녀 발달	.31	.09	.31	3.30**	.09	10.91**	1.83	1.00
	아버지	부모 역할	.28	.08	.33	3.50**	.10	12.23**	1.76	1.00
자아존중감	어머니	자녀 발달	.28	.08	.33	3.50**	.10	12.23**	1.76	1.00
	아버지	부모 역할	.15	.07	.21	2.16*	.04	4.66*	1.63	1.00

* $p < .05$, ** $p < .01$, *** $p < .001$

어머니의 자녀 발달에 대한 신념($F=9.36, p < .01$)과 아버지의 부모 역할에 대한 신념($F=6.91, p < .01$)은 남아의 가치를 각각 8%, 6% 설명하였고, 어머니의 자녀 발달에 대한 신념($F=10.91, p < .01$)은 남아의 유능성을 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녀 발달에 대한 신념($F=12.23, p < .01$)과 아버지의 부모 역할에 대한 신념($F=4.66, p < .05$)은 남아의 자아존중감 전체를 각각 10%, 4% 설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어머니가 자녀 발달의 가능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남아의 자아존중감 전체, 가치, 유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율성을 많이 줄수록 남아의 가치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 5 >

3 , 5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수정된 R^2	F	DW	VIF
만 3세	가치	아버지	부모 역할	.14	.07	.27	2.11*	.06	4.46*	2.08	1.00
	유능성	아버지	부모 역할	.23	.08	.35	2.82**	.11	7.96**	2.27	1.00
	전체	아버지	부모 역할	.19	.07	.35	2.84**	.11	8.04**	2.27	1.00
만 5세	가치	어머니	자녀 본성	.29	.13	.26	2.18*	.05	4.76*	1.55	1.00
	유능성	어머니	자녀 본성	.37	.16	.28	2.37*	.06	5.62*	1.91	1.00
	전체	어머니	자녀 본성	.33	.13	.29	2.51*	.07	6.31*	1.76	1.00

* $p < .05$, ** $p < .01$

아버지의 부모 역할에 대한 신념은 만 3세 유아의 자아존중감 전체($F=8.04, p < .01$), 가치($F=4.46, p < .05$), 유능성($F=7.96, p < .01$)을 각각 11%, 11%, 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녀 본성에 대한 신념은 만 5세 유아의 자아존중감 전체($F=6.31, p < .05$), 가치($F=4.76, p < .05$), 유능성($F=5.62, p < .01$)을 각각 7%, 5%, 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만 3세 유아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율성을 많이 줄수록 만 3세 유아의 자아존중감 전체, 가치, 유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만 5세 유아의 어머니가 자녀를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인식할수록 만 5세 유아의 자아존중감 전체, 가치, 유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부모신념과 유아의 자아존중감 간 관계 및 부모신념의 영향을 파악하였다. 어머니는 자녀 본성에 대한 신념과 자녀 발달에 대한 신념이, 아버지는 부모 역할에 대한 신념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므로, 이에 대한 신념을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아의 성별, 연령을 나누어 살펴본 결과, 유아의 성별, 연령에 따라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및 아버지의 부모신념 요인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의 자아존중감에 어머니 및 아버지 부모신념의 영향력이 있었던 반면, 여아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신념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유아의 긍정적 자아존중감 형성에 있어 성별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연령별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만 4세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신념 간에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던 반면, 유치원 입학 시기인 만 3세는 아버지의 부모 역할에 대한 신념이, 초등학교 입학 직전 시기인 만 5세는 어머니의 자녀 본성에 대한 신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유아기의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형성을 위해 유아의 연령별로 부모를 대상으로 한 지원이 다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박성주, 이영선, 이승연(2023. 3. 25). '유아용 자아존중감 척도' 개발 및 타당해구두 발표. 한국유아교육학회 2023 춘계정기학술대회, 대구.
- 안예슬, 이영선, 이승연(2022). '유아기 자녀 부모용 부모신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육아지원연구*, 17(4), 45-73.
- 성태제, 시기자(2006). *연구방법론*. 학지사.
- Hurtig, A. L. (1991). Adolescent personality in girls and boys: The role of mothers and father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5(1), 65-81.
- Kostelnik, M. J., Whiren, A. P., Soderman, A. K., Stein, L. C., & Gregory, K. (2002). *Guiding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Theory to practice* (4th ed.). Delmar.
- Tafarodi, R. W., & Ho, C. (2006). Self-esteem issues and answers: A sourcebook of current perspectives. In M. H. Kernis (Ed.), *What needs to be done?* (pp. 110-118). Psychology Press.

타인의 설명에 대한 비판적 이해의 발달: 인과적 설명에 대한 유아의 평가와 기억, 수용언어 능력과의 관계

Development of critical understanding of others' explanations :
Relationship among young children's evaluation and memory of
causal explanations, and receptive language ability

김은주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정지인

(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타인의 설명에 대한 비판적 이해의 발달: 인과적 설명에 대한 유아의 평가와 기억, 수용언어 능력과의 관계

Development of critical understanding of others' explanations:
Relationship among young children's evaluation and memory of
causal explanations, and receptive language ability

김은주(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정지인(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I. 서론

유아들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얻기 어려운 다양한 지식을 타인의 설명을 통해 배워나간다. 특히 '왜'와 관련하여 유아들이 듣는 설명은 현상의 이면에 존재하는 이치나 이유에 대한 인과적 이해를 돕기 때문에 논리적 사고나 유아의 학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Frazier et al., 2016). 그러나 인과적 설명을 포함하는 타인의 설명에는 잘못된 기억, 무지, 혹은 속이기 위한 의도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설명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설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이 필요하다(Ma & Ganea, 2010; Sperber et al., 2010).

최근의 다양한 연구들에 따르면, 만 2-3세 유아들도 정보를 주는 사람의 정확성이나 지식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보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irch et al., 2008; Krogh-Jespersen & Echols, 2012), 4세 이상의 유아들은 정보 제공자의 정확성이 변화하는 양상을 고려하여 신뢰의 정도를 조절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Ronfard & Lane, 2018). 그러나 초기 유아기의 영유아들은 타인이 주는 정보에 대해 편향적으로 신뢰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는 연구들도 있는데, 특히 만 2-3세 유아들의 경우 누구의 말을 신뢰할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이 주는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Jaswal et al., 2010; Vanderbilt et al., 2011). 예를 들어 성인이 스티커나

* 교신저자: jeongjee@pusan.ac.kr

물건의 위치에 대해 계속해서 틀린 위치를 말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만 3세 유아들은 그 사람이 주는 정보를 계속해서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고, 만 4세가 되어야 이러한 편향적 신뢰가 극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Jaswal et al., 2010).

그러나 다양한 연구를 통해 타인의 정보에 대한 유아의 선택적 신뢰와 그 발달 양상이 다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제공하는 인과적 설명에 대해 유아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인과적 정보가 포함된 설명과 그렇지 않은 설명을 구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평가 능력이 유아기에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를 통해 알려진 바가 부족하다. 더불어 들었던 설명을 얼마나 기억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설명에 대한 수용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으므로, 인과적 설명의 수준에 따라 유아들이 기억하는 정도가 달라지는지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특정 상황이나 정보를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함을 고려할 때(Boland et al., 2003), 인과적 설명에 대한 평가 및 기억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용언어 능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언어 능력은 문장의 처리와 이해는 물론(Jones, 2012) 정보에 대한 기억용량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iller & Vernon,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령의 증가뿐만 아니라 수용언어 능력의 향상이 인과적 설명에 대한 평가 및 기억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연구문제 1. 인과적 설명의 수준과 유아의 연령에 따라 설명의 질에 대한 유아의 평가와 설명에 대한 기억 정도가 달라지는가?
- 연구문제 2. 인과적 설명에 대한 유아의 평가, 기억점수, 수용언어 능력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B시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총 4곳에 재원하고 있는 만 3세 24명, 만 4세 36명, 만 5세 41명, 총 1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2. 연구 도구 및 절차

연구자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조용한 공간에서 유아와 일대일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인과적 설명 과제를 위해 유아들에게는 노트북 화면을 통해 총 6개의 사진을 차례로 보여주었으며 각 사진에 대해 “이 사진 속 아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 친구(화면 하단의 캐릭터)설명을 들어보자”라고 소개하며 설명을 들려주었다(그림 1 참고). 설명은 1-3 수준 중 하나로 설계되었는데 1수준 설



[1]

명은그림과 전혀 무관한 설명이었으며, 예를 들어 그림1과 같이 어린이가 빵에 풀을 바르고 있는 그림에 대해 “왜냐하면 비가 올 때에는 우산을 쓰고 장화를 신어야 옷이 젖지 않기 때문이야”라고 설명하였다. 2수준 설명은 그림 속 상황의 이유에 대한 정보 없이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는 설명이었으며(“왜냐하면 이 친구는 지금 식탁에 앉아 식빵에 풀을 바르고 있기 때문이야.”), 3수준 설명만이 상황의 이유를 제공하는 설명이었다(예:“왜냐하면 이 풀 모양 통 안에는 잼이 들어 있어서 빵에 발라 먹기 때문이야.”). 따라서 1수준에서 3수준으로 갈수록 설명의 질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으며 3수준 설명만이 인과적 정보를 포함한다. 유아들은 1수준 설명을 두 가지, 2수준 설명을 두 가지, 3수준 설명을 두 가지 평가하였다.

이렇듯 사진과 그 사진에 해당하는 설명(1, 2, 3 수준 설명 중 하나)을 들은 후, 연구자는 “이 친구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얼마나 잘해주었나요? 설명을 잘 하지 못했나요? 조금 잘했나요? 아주 잘 해주었나요?”라고 질문하며 유아들에게 인과적 설명의 질에 대해 스마일 표시(짱그린 얼굴=1, 무표정 얼굴=2, 웃는 얼굴=3)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명에 인과적 정보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지 보기 위해, “이 친구가 왜 그런지 이유를 말해주었나요? 말해주지 않았나요?”라고 질문을 하였다. 3수준 설명에서만 상황에 대한 이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수준 설명에서 ‘이유를 말해주었다’ 라고 응답했을 때에만 1점을 주었다.

이후 방해 자극으로 5분~7분 정도 인과적 설명 과제와 관계가 없는 카드게임을 하였으며, 카드게임 이후 설명에 대한 유아들의 기억을 측정하였다. 유아들에게는 그림을 하나씩 손가락으로 짚으며 “아까 친구가 이 그림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 했었나요?”라고 질문하였으며 유아들이 회상하는 내용은 녹음 후 전사하였다. 유아들의 기억 점수를 채점하기 위

해, 캐릭터의 설명에서 “왜냐하면, 때문이야”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의미 단위로 구분하여 해당 단위 내에서 완전하지 않더라도 일치하는 단어가 있으면 1점으로 인정하였다.

유아의 수용언어 능력은 취학 전 언어 능력 평가도구(PRES : Preschool Receptive-Expressive Language Scale, 김영태 외, 2013)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설명수준에 따른 유아의 평가

1) 설명의 질에 대한 평정

설명수준과 연령에 따라 유아의 설명에 대한 평정(1~3)이 달라지는지 반복측정 ANOVA를 통해 살펴본 결과, 연령과 설명수준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F = 4.78, p < .01$)가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그림과 무관한 설명을 하였던 1수준 설명에서 3세($M=1.98$)와 4세($M=1.85$)가 5세보다($M=1.21$) 더 높은 평정 점수를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인과적 정보 여부에 대한 판단

설명 안에 인과적 정보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에 설명수준과 연령에 따른 효과가 있는지 반복측정 ANOVA를 통해 살펴본 결과, 연령과 설명수준간의 상호작용 효과($F = 4.09, p < .01$)가 있었으며, 그림과 관련이 없는 설명을 하였던 1수준과 그림에 대한 묘사적 설명에 그쳤던 2수준 설명을 들었을 때 연령이 높은 유아들이 연령이 낮은 유아들보다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수준 설명에서는 2점 만점에 3세가 평균 0.92점, 4세가 1.19점, 5세가 1.93점을 받아 5세가 3, 4세보다 정확한 판단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수준 설명에서는 3세가 2점 만점에 평균 0.63점, 4세가 0.86점, 5세가 1.20을 받아 5세가 3세보다 설명에 인과적 정보가 없었다고 정확하게 판단하였다.

2. 설명 수준과 연령에 따른 유아의 기억점수

설명수준과 연령에 따른 유아의 기억점수를 반복측정 ANOVA를 통해 살펴본 결과, 5세가 3세보다 설명에 대한 기억 점수가 높았으며, 유아들은 그림과 일치하지 않는 설명이었던 1수준 설명보다 그림에 대한 묘사적 설명인 2수준, 또는 그림에 대한 인과적 설명이었던 3수준 설명을 더 잘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수준과 3수준 설명에 대한 기억의 정

도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인과적 설명을 들었을 때 그림과 일치하는 설명을 들었을 때 만큼 기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설명수준에 따른 평가와 기억 점수, 수용언어 능력과의 관계

설명에 대한 평가 능력, 기억 점수, 수용언어 능력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함께 증가하는 양상이 있었기 때문에, 연령에 의한 효과를 통제하면서 변수간의 편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수용언어점수는 기억점수와 정적상관이 있었다. 또한 1수준 설명에 대해 높은 평정을 한 유아들은 2수준 설명에서도 높은 평정을 하였으며, 반대로 인과적 정보 여부에 대한 판단은 부정확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2수준 설명에 대해 높은 평정을 한 유아들은 인과적 정보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부정확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 결과, 그림과 관련이 없었던 1수준 설명을 들었을 때 3, 4세보다는 5세가 설명의 질에 대해 낮게 평정하였으며, 인과적 정보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3, 4세보다는 5세가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유아기일수록 타인이 주는 정보에 대해 무비판적인 수용을 하는 경향이 높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타인의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한다는 이전 연구결과와 유사한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Jaswal et al., 2010; Ma & Ganea, 2010). 본 연구의 결과는 인과적 설명에 대한 비판적 판단이 만 4세에서 5세 사이에 유의하게 발달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림에 대한 묘사에 그쳤던 2수준 설명을 들은 후, 만 5세 유아들도 인과적 정보가 있었는지에 대해 우연 수준(50%) 정도로만 정확한 판단을 하였음을 고려할 때, 인과적 정보가 담겨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만 5세 이후에도 발달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그림에 대한 묘사적 설명이었던 2수준 설명을 들었을 때와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었던 3수준 설명을 들었을 때, 유아들이 기억하는 정도가 유사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그림과 일치해서 이해가 용이한 설명을 듣는 것만큼이나 상황 이면의 원리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이 유아들의 기억에 많이 남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과적 설명에 대한 유아의 관심과 주의를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령의 효과를 통제하더라도 수용언어 능력이 높을수록 설명에 대한 기억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언어능력이 높을수록 설명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기억 역시 촉진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홍성인 외, 2002; Gathercole, 1998).

본 연구는 유아의 논리적 사고와 세상에 대한 이해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설명에 대해(Frazier et al., 2016) 유아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수용하는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유아기에 인과적 정보나 설명의 질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하는 만큼, 유아들에게 양질의 인과적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유아들에게 정보를 평가하거나 주어진 설명에 본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있었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유아의 논리적 사고와 비판적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영태, 성태제, 이윤경(2003).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 장애인복지관.
- 홍성인, 전세일, 배소영, 이익환 (2002). 한국 아동의 음운인식 발달. *언어청각장애연구*, 7(1),49-64
- Birch, S. A. J., Vauthier, S. A., & Bloom, P. (2008). Three- and four-year-olds spontaneously use others' past performance to guide their learning. *Cognition*, 107(3), 1018-1034. <https://doi.org/10.1016/j.cognition.2007.12.008>
- Boland, A. M., Haden, C. A., & Ornstein, P. A. (2003). Boosting children's memory by training mothers in the use of an elaborative conversational style as an event unfolds. *Journal of cognition and development*, 4(1), 39-65.
- Frazier, B. N., Gelman, S. A., & Wellman, H. M. (2016). Young Children Prefer and Remember Satisfying Explanations. *Journal of Cognition and Development*, 17(5), 718-736. <https://doi.org/10.1080/15248372.2015.1098649>
- Gathercole, S. E. (1998). The development of memory. *Th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39(1), 3-27.
- Jaswal, V. K., Croft, A. C., Setia, A. R., & Cole, C. A. (2010). Young children have a specific, highly robust bias to trust testimony. *Psychological Science*, 21(10), 1541-1547.
- Jones, G. (2012). Why chunking should be considered as an explanation for developmental change before short-term memory capacity and processing speed. *Frontiers in Psychology*, 3, 167. <https://doi.org/10.3389/fpsyg.2012.00167>
- Krogh-Jespersen, S., & Echols, C. H. (2012). The influence of speaker reliability on first versus second label learning. *Child Development*, 83(2), 581-590. <https://doi.org/10.1111/j.1467-8624.2011.01713>

- Ma, L., & Ganea, P. A. (2010). Dealing with conflicting information: Young children's reliance on what they see versus what they are told. *Developmental Science, 13*(1), 151-160.
- Miller, L. T., & Vernon, P. A. (1997). Developmental changes in speed of information processing in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3*(3), 549-554.
- Ronfard, S., & Lane, J. D. (2018). Preschoolers continually adjust their epistemic trust based on an informant's ongoing accuracy. *Child Development, 89*(2), 414-429. <https://doi.org/10.1111/cdev.1272>.
- Soluyanov, A. A., & Vanderbilt, D. (2011). Wannier representation of Z_2 topological insulators. *Physical Review B, 83*(3), 035108.
- Sperber, D., Clément, F., Heintz, C., Mascaro, O., Mercier, H., Origg, G., & Wilson, D. (2010). Epistemic vigilance. *Mind & Language, 25*(4), 359-393.

놀이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한 유아의 생각

Young children's thoughts on the roles of teachers in play

김민진

(곡반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이승연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놀이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한 유아의 생각

Young children's thoughts on the roles of teachers in play

김민진(곡반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이승연(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I. 서론

교육부, 보건복지부(2019)는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해 유아와 놀이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교육과정임을 강조하며,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에게 실외놀이를 포함한 하루 2시간 이상의 놀이 시간을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 이러한 유아 중심 및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는 놀이에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는 놀이를 촉진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교사의 상호작용은 유아가 경험하는 놀이의 질뿐만 아니라 유아의 자존감 형성 등 사회성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Sluss, 2005/2006). 또한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서 배움은 놀이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놀이에서 유아에게 의미 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교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정혜옥 등, 2019).

그동안 자유 놀이에서 교사의 역할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대부분의 문헌에서는 주로 실내 자유 놀이를 중심으로 교사의 역할을 논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Johnson 등(1999/2001)은 놀이 중 교사의 역할을 '비참여자', '방관자', '무대 관리자', '공동 놀이자', '놀이 지도자', '감독자/교수자'로 제시하였다.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놀이에서도 교사의 역할은 중요하며, 놀이에서 교사의 역할은 공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Sakellariou와 Banou(2020)는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실외놀이에서 교사의 역할을 '평가자 및 제공자', '놀이 환경을 구성하는 설계자',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중재자', '관찰자', '참여자'로 제시하였다.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놀이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해 누리과정의 실행자로서 '유아의

* 교신저자: mihjih@hanmail.net

놀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그 역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놀이 지원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은 현장에서 다양하게 해석되고, 교사들은 놀이 지원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받지 못하여 불안과 혼란을 느끼고 있다(박지희, 2021).

놀이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해 교사와 유아의 인식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놀이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해 유아들의 목소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유아들이 유아교육기관에서 경험하는 것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유아이며, 그들의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역시 유아이기 때문이다(Godfrey & Cemore, 2005). 이렇듯 유아들이 경험하는 것을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듣는 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의 권리 보장과도 관련이 있다. 더불어 이를 토대로 놀이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반영한다면, 단순히 목소리를 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결과가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는 점에서 유아의 '참여'의 조건(나원정, 장민영, 이승연, 2015)에도 부합한다.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해 유아들의 생각을 물어본 선행연구들(김은주, 이가은, 전지혜, 2020; Einarsdottir, 2014)은 하루 일과에서 교사의 역할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놀이라는 상황에 한정하여 교사의 역할을 알기는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면담과 그림그리기를 통해 유아들이 실내놀이와 실외놀이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지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놀이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나아가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서 바람직한 교사의 역할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1. 실내놀이에서 유아들이 생각하는 교사의 역할은 무엇이고,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가?
- 연구문제2. 실외놀이에서 유아들이 생각하는 교사의 역할은 무엇이고,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3개의 공립유치원 4학급과 2개의 사립유치원 3학급에 재학 중인 만 5세 유아 160명이었다. 연구 시기는 유아들이 유치원에서 경험한 놀이가 가장 많은 시점인 12월과 1월로 선정하였고, 각 학급별 상황에 따라 졸업 2-3주

전에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연구를 하기 전 유아에게 연구 목적을 알리고, 유아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해 설명한 후 동의를 구하고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의 집단 구성에 있어서는 면담 전 유아들에게 친구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지, 혼자 이야기하고 싶은지 의견을 물어본 후 유아의 선택에 따라 면담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면담은 도서관이나 블록 놀이방 등 조용한 장소에서 실시하였고, 면담 시간은 면담 그룹의 형태에 따라 편차가 존재했지만 평균적으로 15분에서 20분가량 소요되었다. 면담 과정에서 녹음기를 사용하여 유아와의 면담 내용을 녹음하였고, 이후 녹음 자료를 전사하여 기록하였다. 면담 순서에 있어서는 유아들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놀이 경험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하여 이후 ‘교실에서 놀이를 할 때 선생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니?’의 질문을 통해 놀이를 할 때 교사의 역할에 대해 질문하였고, 이어 ‘교실에서 놀이를 할 때 선생님이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니?’라는 질문을 통해 유아가 바라는 놀이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해 물어보았다. 이 과정에서 이야기한 것을 그림으로 그리도록 제안하였는데, 유아들은 대부분 선생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동일한 과정을 실외놀이에 대해 반복하였다.

연구기간 동안 수집한 유아의 면담과 그림 모두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Creswell과 Poth(2018/2021)의 ‘나선형 자료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료를 관리하고 조직하기’, ‘읽고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메모하기’, ‘기술하고 코드를 주제로 분류하기’, ‘해석을 발전시키고 평가하기’, ‘자료를 제시하고 시각화하기’의 과정을 순환적으로 반복하였으며, 최종 범주에 따라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과 해석의 적절성을 판단하였으며, 범주화와 해석에 있어서 담임교사의 의견을 구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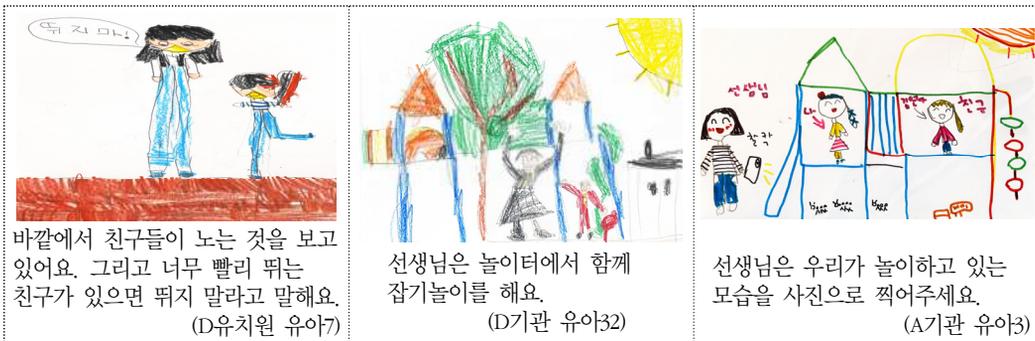
먼저 실내놀이에서 유아들이 생각하는 교사의 역할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유아들의 그림과 면담의 예시는 그림 1과 같다. 첫째, 유아들은 실내놀이에서 교사가 놀이를 지켜보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으며, 안전하게 놀이를 하는지 지켜보거나 지켜보다가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다가와서 도와준다고 하였다. 둘째, 유아들은 실내놀이에서 교사가 함께 놀이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는데, 함께 놀이에 구성원으로 참여하거나 놀이에 참여하며 놀이의 시간이나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였다. 셋째, 유아들은 실내놀이에서 교사가 일을 한다고 하였는데, 일에는 놀이와 관련된 일과 놀이와 관련되지 않은 일이 있었다.



[1]

다음으로 실내놀이에서 유아들이 바라는 교사의 역할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들은 실내놀이에서 교사가 함께 놀이하는 역할을 해주기를 가장 많이 원하고 있었다. 둘째, 유아들은 실내놀이에서 교사가 즐겁게 놀이하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였는데, 더 많은 시간과 놀이감을 제공하거나 즐겁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바랐다. 셋째, 유아들은 실내놀이에서 교사가 안전하게 놀이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였는데, 놀이를 지켜보다가 위험한 상황에서 적절히 도움을 주거나 친구들이 싸울 때 개입하여 해결해주면 좋겠다고 하였다.

실외놀이에서 유아들이 생각하는 교사의 역할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유아들이 그린 그림과 면담의 예시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첫째, 유아들은 실외놀이에서 교사가 안전하게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둘째, 유아들은 실외에서 교사가 함께 놀이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으며, 셋째, 유아들은 실외놀이에서 교사가 사진을 찍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2]

다음으로 실외놀이에서 유아들이 바라는 교사의 역할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들은 실외놀이에서 교사가 함께 놀이하는 역할을 해주기를 가장 많이 원하였으며, 둘째로는 교사가 안전하게 놀이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였다. 셋째, 유아들은 실외놀이에서 교사가 즐겁게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였는데, 더 많은 시간이나 더 많은 놀잇감을 제공해 주거나 더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도록 공간이나 규칙의 제약들을 줄여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I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및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들이 생각하는 교사의 역할은 기존 문헌에 제시된 교사의 역할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유아들이 생각하는 교사의 역할은 선행연구(김은주 등, 2020; Einarsdottir, 2014)에 비추어 볼 때 ‘감독자’, ‘공동놀이자’, ‘놀이 환경조정자’ 등으로 제시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모두 놀이에 필요한 교사의 역할로서 유아들 역시 실제로 이러한 교사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놀이에서 유아들이 생각하는 교사의 역할과 유아들이 바라는 교사의 역할은 일치하지 않았다. 실내와 실외놀이에서 유아들이 가장 많이 인식한 교사의 역할은 지켜보는 역할이었지만, 가장 원하는 역할은 함께 놀이하는 역할이었다. 하지만 유아들이 원하는 역할을 교사가 계속해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유아들이 원하는 것처럼 교사가 일부 유아들과 몰입해서 함께 놀이하기 위해서는 유아들의 안전을 관리하는 또 다른 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놀이 시 두 명 이상의 성인이 배치되어 감독자와 공동 놀이자의 역할을 나누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아들이 생각하는 교사의 역할에는 일을 하는 역할이 있었으나, 유아들이 바라는 교사의 역할에는 일을 하는 역할이 나타나지 않았다. 놀이 중 교사가 일을 하는 것은 교사에게 주어진 과도한 업무와도 관련이 있다. 행정이나 행사 등의 업무가 많아 교사가 수업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선행연구 결과(김주영, 김정희, 2022; 안혜정, 이승연, 2018)를 토대로 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및 교사의 인식 개선 등 다각도의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실내놀이와 실외놀이에서 교사의 역할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안전을 지도하는 교사의 역할은 실외놀이에서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실외라는 공간의 특성상 안전에 대해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고, 교사들 역시 실외에서는 안전을 담당하는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실내놀이와 실외놀이로 나누어 놀이에서 유아들이 인식하는 교사의 역할과 유아들이 원하는 교사의 역할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놀이에서 적절한 교사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놀이에서 교사의 역할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탐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 보건복지부(2019).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 김은주, 이가은, 전지혜(2020). 일곱 살 아이들은 유치원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역할 및 교사를 중심으로. *교사교육연구*, 59(2), 131-148. <https://doi.org/10.15812/ter.59.2.202006.131>
- 김주영, 김정희(2022. 9. 24.). 공립유치원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및 교무행정지원사 지원에 관한 연구구두발표. 한국유아교육학회 2022년 추계학술대회, 대구.
- 나원정, 장민영, 이승연(2015). 유아의 참여 및 참여권에 대한 고찰. *어린이미디어연구*, 14(4), 307-339.
- 박지희(2021).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교사의 역할 이해와 놀이지원방안: 놀이지원자를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25(3), 55-82. <https://doi.org/10.32349/ECERR.2021.6.25.3.55>
- 안혜정, 이승연(2018). 유치원 교사의 업무수행 경향성과 업무시간 운영의 실제 및 효율성에 대한 인식. *육아정책연구*, 12(3), 3-27 <https://doi.org/10.5718/kcep.2018.12.3.3>
- 정혜옥, 김은영, 윤진주, 송정아, 안정원, 정혜원(2019).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서의 교사 역할 바로 알기. 창지사.
- Creswell, J. W., & Poth, C. N. (2021).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공역). 학지사. (원전 2018 출판)
- Einarsdottir, J. (2014). Children's perspectives on the role of preschool teachers. *Europ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Journal*, 22(5), 679-697. <https://doi.org/10.1080/1350293X.2014.969087>
- Godfrey, M. K., & Cemore, J. J. (2005). "Yeah, I like it!": Assessing what children think of child care. *Young Children*, 60(4), 86-93. <http://www.jstor.org/stable/42729268>
- Johnson, J., Cristie, J., & Yawkey, T. (2001). *놀이와 유아교육*(신은수, 김은정, 안부금, 유영의 공역). 학지사. (원전 1999 출판)
- Sakellariou, M., & Banou, M. (2020). Play within outdoor preschool learning environments of Greece: A comparative study on current and prospective kindergarten educator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90, 887-903. <https://doi.org/10.1080/03004430.2020.1813123>
- Sluss, D. J. (2006). *놀이의 이해와 지도: 출생에서 8세까지*(김미숙, 박숙영, 최민숙, 최은미 공역). 박학사. (원전 2005 출판)

유아 또래관계 관련 연구동향 분석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early childhood peer relationships

박진영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석사)

이승연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유아 또래관계 관련 연구동향 분석*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early childhood peer relationships

박진영(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석사)**

이승연(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I. 서론

유아는 삶 속에서 다양한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성장해나간다. 특히 사회·경제적인 변화로 인해 또래를 경험하는 시기가 빨라지면서 유아기에 또래의 영향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정옥분, 2018). 나아가 유아가 또래와 맺는 관계인 또래관계는 유아가 또래와 겪게 되는 직간접적인 모든 현상을 의미하며, 이는 또래와의 행동, 영향, 인식, 동기, 관계 등을 포함한다(Rubin, Bukowski, & Bowker, 2015). 유아기에 경험하는 또래관계는 향후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성공적인 또래관계의 경험이 중요하다. 긍정적인 또래관계는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사회적 기술의 습득과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을 높이는 반면(김수영, 정정희, 2001), 부정적인 또래관계는 향후 부적응 문제와 또래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한다(Parker & Asher, 1987).

이와 같은 유아기 또래관계의 중요성에 따라 유아 또래관계 관련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다양한 주제(친구관계, 또래유능성, 또래상호작용, 또래수용, 또래지위, 또래갈등, 또래문화 등)로 연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는 유아 또래관계 연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정리하고자 유아 또래관계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되어왔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의 대부분은 학술지논문으로만 대상이 한정되어 있거나 또래관계 중 일부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분석대상 논문의 발행 기간이 분절되어 전체적인 연구동향을 살피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유아 또래관계의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을 포괄하는

* 본 논문은 2021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 abccode10@gamil.com

연구동향 분석이 요구되며, 유아 또래관계는 다양한 주제로 연구되고 있어 각 주제에 따른 연구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검색된 최초의 논문이 있는 1984년부터 2022년까지의 국내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에 제시된 유아 또래관계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연구주제에 따른 경향을 알아봄으로써 향후 유아 또래관계 관련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 또래관계 연구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2. 유아 또래관계 연구의 연구주제에 따른 경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1984년도부터 2022년까지 만 3세-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또래관계를 다룬 국내 학위논문 534편과 학술지논문 265편, 총 799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위논문은 석사학위논문과 박사학위논문을 모두 포함하였으며, 학술지논문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와 등재후보지에 수록된 논문으로 한정하였다. 제목과 초록으로 판단하였을 때, '특수, 장애, 치료' 등 특수교육과 연관이 깊은 논문을 제외하였으며,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학위논문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기준은 다음과 같다. 연구주제는 유아 또래관계를 '또래관계', '친구관계', '또래유능성', '또래상호작용', '또래수용', '또래지위', '또래갈등', '또래문화' 등으로 분류하며, 코딩은 이승연 등(2015)의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대로 한 논문이 한 주제인 경우 2점을 부여하고, 한 논문이 두 주제인 경우 각 주제에 1점을 부여하며, 세 주제인 경우 가장 두드러진 범주에 1점, 그 외의 범주에 각각 0.5점씩 부여하여, 최종 분석 시 1/2로 계산하여 합이 1이 되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은 만 3세, 만 4세, 만 5세, 기타로 분류하였다. 대상 연령이 두 연령인 경우 각 0.5점을 부여하였고, 세 연령인 경우 가장 많은 대상 수에 해당하는 연령에 0.4점을, 나머지 연령에 각각 0.3점씩을 부여하였다. 연구방법은 양적연구, 질적연구, 문헌연구, 혼합연구, 기타연구로 나뉘었으며, 양적연구는 양적혼합연구, 관찰연구, 실험연구, 조사연구로 세분화하고, 질적연구는 질적일반, 문화기술연구, 사례연구, 실행연구, 질적기타로 나누어 코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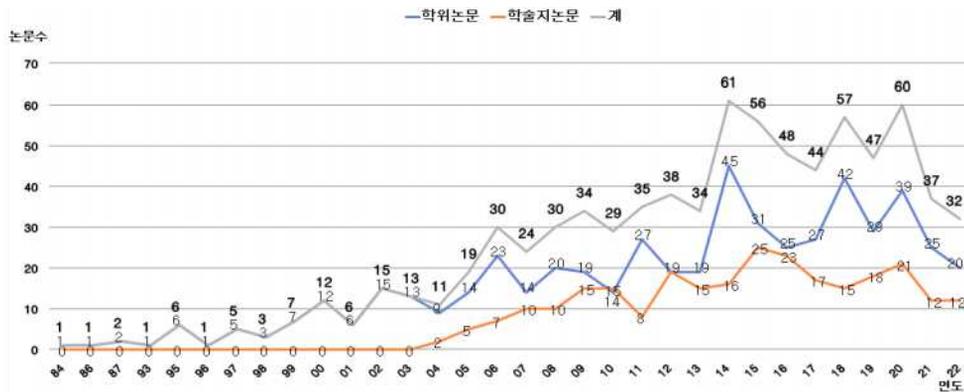
본 연구의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유아 또래관계 연구동향 분석의 방향을 설정하고, 자료 검색 및 분석대상을 구체화하고 분석기준을 확정하였다. 둘째,

교육경력 4년의 유아교육과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생 1인과 무선 표집한 학위논문 10편, 학술지논문 10편을 코딩하며 분석기준을 수정 및 보완하였고, 유아교육과 교수 1인에게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셋째, 확정된 최종 분석기준에 따라 한 논문당 합이 1이 되도록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에 대한 코딩을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주제에 따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별도의 EXCEL 파일에 연구주제별로 한 시트씩 탭으로 구분하였으며, 한 논문에 여러 주제가 포함되는 경우 '중복' 시트 탭에 정리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유아 또래관계 관련 연구의 전반적 경향

유아 또래관계 연구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전반적으로 유아 또래관계 연구는 2004년까지는 다소 미미하게 연구되다가 2005년부터 매해 15편 이상 꾸준히 연구되고 있었다. 2014년 기점으로 40편 이상의 연구가 지속되었으나 2021년 이후 40편 이하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1]

유아 또래관계 연구의 연구주제별, 연구대상별, 연구방법별 경향을 살펴본 결과, 연구주제별 경향에서 전반적으로 '또래유능성'과 관련된 연구(304편, 38.0%)가 가장 많았으며, '또래상호작용'과 관련된 연구(183.5편, 23.0%)가 두 번째로 많았다. 연구대상별 경향에서는 만 5세를 대상으로 한 연구(466편, 58.3%)가 과반수 이상이었으며, 연구방법별 경향에서는 양적연구(665편, 83.2%)가 압도적이었고, 이는 질적연구보다 약 6배 높은 것이었다. 양적연구

구 중에서는 특히 혼합연구(391편, 48.9%)가 두드러졌다.

2. 유아 또래관계 관련 연구주제에 따른 경향

유아 또래관계 관련 논문의 연구주제에 따른 연구대상과 연구방법별 경향을 살펴본 결과, 연구대상별 경향에서는 '또래유능성'과 관련된 연구가 만 3세 41.95편(40.5%), 만 4세 80.35편(40.2%), 만 5세 178.2편(38.2%)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방법별 경향에서는 질적일반 연구와 문화기술적연구 방법으로만 연구된 '또래문화'를 제외한 모든 연구주제에서 양적혼합연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연구주제별로 양적연구에 사용된 연구도구를 살펴본 결과, '또래관계', '또래상호작용'과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Fantuzzo, Coolahan, Mendez, McDermott와 Sutton-Smith(1998)가 제작한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PIPPS)'을 변안한 연구도구를 주로 사용하였고, '친구관계'와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교사지명과 유아 행동관찰이 함께 이루어지는 Farver와 Branstetter(1994)의 '또래관계조사'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또래유능성'과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박주희, 이은혜(2001)가 제작한 '유아용 또래유능성 척도'를 주로 사용하였고, '또래수용', '또래지위'와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주로 Asher, Singleton, Tinsley와 Hymel(1979)이 유아용으로 제작한 'How I Feel Toward Others(HIFTO)'를 사용하였다. '또래갈등'과 관련된 연구들 중 '갈등'과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주로 Chung과 Asher(1996)의 'Children's Conflict Resolution Measure(CCRM)'를 유아의 갈등해결전략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괴롭힘'과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Kochenderfer와 Ladd(1996)의 'Friendship Features Interview for Young Children(FFIYC)'을 김혜연(2008)이 교사용 설문지로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 또래관계 관련 연구의 전반적 경향 중 연구주제의 측면에서는 '또래유능성'과 관련된 연구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하나의 주제에만 편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비교적 관심도가 낮은 주제들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연구대상의 측면에서는 만 5세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만 3세와 만 4세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다소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만 3세는 가정에서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의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이며,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충분히 이루어지므로, 어린 연령을 대상으로 한 또래관계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연구방법의 측면에서는 매우 높은 비율로 양적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양적연구에만 치중하는 것보다는 유아 또래관계 연구의 다각화를 위해 보다 심층적이고 해석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둘째, 유아 또래관계 관련 연구의 연구주제에 따른 경향을 살펴본 결과, 연구주제별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의 분포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각 연구주제별로 중점이 되는 측면이 다르므로 연구목적에 맞는 다양한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주제에 따른 연구도구를 살펴보았을 때, 유아 위주의 도구보다는 성인 위주의 양적연구를 위한 연구도구가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대부분이 국외 제작 도구를 번역한 형태였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과 우리나라 유아들에게 적합한 연구도구의 개발과 질적연구의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수영, 정정희(2001). 유아의 또래수용도, 정서지능, 적응행동과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26, 239-257.
- 김혜연(2008). 유아기 또래괴롭힘의 피해에 관련된 변인 연구: 유아의 언어능력, 사회·정서적 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교사-유아 관계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주희, 이은해(2001). 취학 전 아동용 또래 유능성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 221-232.
- 이승연, 권수현, 권연정, 김언경, 나영이, 유주연, 최정아(2015). 국내외 '영아' 관련 연구물의 최근 동향 분석: 2000년~2013년 발간 논문을 대상으로. *교육과학연구*, 46(3), 91-117.
- 정옥분(2018). *영유아발달의 이해*(3판). 학지사.
- Asher, S. R., Singleton, L. C., Tinsley, B. R., & Hymel, S. (1979). A reliable sociometric measure for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5(4), 443-444.
- Chung, T., & Asher, S. R. (1996). Children's goals and strategies in peer conflict situations. *Merrill-Palmer Quarterly*, 42(1), 125-147.
- Fantuzzo, J., Coolahan, K. C., Mendez, J., McDermott, & Sutton-Smith, B. (1998). Contextually-relevant validation of peer play constructs with African American Head Start children: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3(3), 411-431.
- Farver, J. A. M., & Branstetter, W. H. (1994). Preschoolers' prosocial responses to their peers' di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30(3), 334-341.
- Kochenderfer, B. J., & Ladd, G. W. (1996). Peer victimization: Cause or consequence of

- school mal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4), 1305-1317.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3), 357-389.
- Rubin, K., Bukowski, W., & Bowker, J. (2015). Children in peer groups. In R. M. Lerner (Series Eds.) & M. H. Bornstein & T. Leventhal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and developmental science* (7th ed., pp. 175-222). John Wiley & Sons.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지원정책 분석: 2023년도 교사 지원 계획을 중심으로

Analysis of teacher support policies for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Focusing on teacher support plans for 2023

이성희

(공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라지숙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지원정책 분석: 2023년도 교사 지원 계획을 중심으로

Analysis of teacher support policies for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Focusing on teacher support plans for 2023

이성희(공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라지숙(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I.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영유아는 교육부 소속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소속의 어린이집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한다. 현 정부는 이원화된 체제에서 기관 선택에 따른 차이가 아동의 격차로 연결될 우려를 해소시키고 질 높은 교육·돌봄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해소와 통합기반을 마련하고 이후 시도교육청, 지자체, 관계부처와의 통합을 점차 추진한다고 한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1.30).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정책 효과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핵이 되는 것은 교사이다(이미화, 2017). 현 정부의 교육 전문성 실현 차원에서 제시한 정책은 교원 업무 경감에 일부 반영되는 수준이고 교원의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성을 정립하는 정책은 미흡하다 할 수 있다(이용수, 2022). 유보통합을 위한 교원정책의 가장 상위 목적은 교원의 질 향상을 통하여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조부경, 2013). 유보통합 단계별 추진을 앞둔 현 시점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교원의 질 향상을 위한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의 교사 전문성 지원정책이 수립되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감독 기관이며, 일원화의 추진 대상인 시도

* 교신저자: lajisuk@nate.com

교육청과 지자체의 2023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지원정책을 비교해 봄으로써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교사의 지원정책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2023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지원정책 분석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유보통합의 관계부처 일원화로 추진되는 교육청과 시·도청의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지원정책의 내용을 정리하여 비교하였다. 교육부는 유치원의 관리 감독 기관이고 보건복지부 산하 시·도청은 어린이집 관리 감독 기관으로 매년 주요업무계획을 공시하고 예산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다. 교육청의 23년 주요업무계획 중 유아교육과의 지원정책과 시·도청의 2023년 주요업무계획 중 사회복지시설의 어린이집 지원정책을 비교 분석하였다.

정책분석 활동은 ‘정책을 위한 분석’과 ‘정책에 관한 분석’으로 나눌 수 있는데(노화준, 2010) 이 연구는 시·도별로 추진하고 있는 교사 지원정책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므로 ‘정책에 관한 분석’에 해당된다. 또한 결정되어 추진하기로 계획한 ‘정책의 내용’에 대한 분석으로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 정책의 실제 추진 내용은 연구범위에서 제외된다(박수정, 박정우, 2020). 연구대상 17개 시·도교육청과 17개 시·도청의 주요업무계획은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을 알 수 있는 근거 자료이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제시된 정책 중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지원정책의 내용을 도출하여 정리하고 이를 다시 교사의 교수학습 지원, 교수자료 지원, 인건비 지원으로 세분화하였다. 각 지자체별 교사 지원정책의 내용 및 현황을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종합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교사 지원정책의 현황에 대한 이해와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Ⅲ. 연구결과

1. 2023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지원정책 비교

교육청과 시·도청의 교사 지원정책 중 관련성 있는 내용을 항목별로 분류하면 1. 교수학습 지원(컨설팅, 학습공동체), 2. 교수자료 지원, 3. 인건비 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

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지원정책을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17대 교육청 유치원의 교사 지원정책은 교수학습 지원, 교수자료 지원, 인건비 지원 순으로 많았으며, 17대 시·도청의 어린이집 교사 지원정책은 인건비 지원, 교수학습 지원 순으로 나타났고, 교수자료 지원정책은 없음을 알 수 있다.

< 1> 17

지역	교수학습 지원		교수자료 지원		인건비 지원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강원	3		1		2	
광주	5		1		4	
경기	4		4			
경남	5		1		3	
경북	5		6		2	4
대구	3		5			2
대전	3	2	1			1
부산	5	1	2		4	
서울	5		3			2
세종	2		4		1	2
울산	10	1	4		3	3
인천	5		3		3	
전남	7		1		1	
전북	3		2			1
제주	1				2	
충남	5		1			1
충북	5					2
총계	76	4	39	0	25	18

시·도별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유치원의 교사 지원정책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지원정책은 교수학습 지원이며, 17대 교육청 중 울산지역이 가장 높았다. 어린이집은 17대 시·도청에서 교수자료 지원정책은 없으며 교사 지원정책 중 가장 많은 수는 인건비 지원이며 경북지역이 가장 높은 정책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듯 17대 시·도청의 지원정책은 정책수와 내용이 지자체별로 상이함을 알 수 있다. 교사의 지원정책 내용을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수학습 지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지원정책 개수 차이가 큰 항목은 교수학습 지원이다. 교수학습 지원의 내용에 따라 재분류하면 교사의 연수와 학습공동체로 나눌 수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 유치원의 전문성 지원 중 교사의 연수는 46개의 지원정책이 있으며, 학습공동체

지원정책은 30개로 확인된다. 이에 비해 어린이집의 교사 연수는 대전, 부산, 울산 3개 지역의 4개의 정책만 있으며 학습공동체 지원은 마련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2 >

지역	교수학습 지원			
	연수	유치원	어린이집	공동체
강원	1.놀이중심 연수	1.사계 나눔회 2.지역별 우수사례 발굴		
광주	1.시범유치원 운영 2.위탁연수 3.유치원 문화연수	1.교원수업나눔 동아리 2.교원연구 실천대회		
경기	1.현장의견 수립 2.역량강화	1.유초 협력네트워크 2.마음이음 유치원 실천		
경남	1.예비교사 2.관리자 연수 3.한국교원대 직무연수	1.학습공동체 2.유치원소통방		
경북	1.자율장학 2.사립유치원 지원장학	1.학습공동체 2.놀이지원단 3.협력유치원		
대구	1.안전 우수유치원운영 2.마음케어 운영 3.공공형 유치원 운영			
대전	1.수업컨설팅 2.교원연수	1.학습공동체	1.전문성 연수 2.힐링연수	
부산	1.교원연수 2.동행장학	1.교사단모임 2.수업혁신사례연구회 3.수업나눔	1.거점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서울	1.교원연수 2.퇴직예정 교원연수	1.저경력-고경력 교사 수업나눔 2.공·사립유치원 지역 네트워크 3.기후관련 공동수업		
세종		1.마을배움터 운영 2.교직원-학부모 교육공동체		
울산	1.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2.미래교육연수 3.디지털연수 4.퇴직예정교원 연수 5.메타버스 연수 6.현장맞춤 연수 7.체험담당 연수	1.운영컨설팅 성과공유 2.학교밖 네트워크 직무연수 3.학습공동체	1.사회복지 종사자 연수	
인천	1.전문가 위촉 2.시범유치원 3.사립유치원 역량강화 4.놀이공간 5.사립유치원 교사정서			

전남	1.교육과정 연수 2.현장 지원단 3.아동권리존중 연수 4.유아언어심리정서 연수 5.놀이중심연수	1.교육공동체 2.연구학교 및 연구대회		
전북	1.개정누리과정 지원단 2.소규모 유치원 현장연수	1.소규모 유치원 공동 교육과정 운영		
제주	1.누리과정 연수			
충남	1.소규모 통합유치원 시범운영 2.소규모 유치원 공동 교육과정 운영 3.유아교육 지원센터 운영	1.현장지원단 네트워크 구성 2.전문직 학습공동체		
충북	1.맞춤형 장학 2.미래수업 연수 3.사립유치원 연수	1.학습공동체 2.수업나눔축제		
총계	46	30	4	0

2) 교수자료 지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지원정책 중 어린이집 정책에 확인되지 않는 지원은 교수자료 지원정책이다. 교사의 교수자료 지원의 항목을 내용에 따라 재분류하면 현장지원, 미래교육지원, 생태·기후에 관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장지원의 경우 유치원은 32개, 미래지원은 8개, 생태·기후 프로그램은 1개의 정책이 있으나 어린이집은 교수자료 지원정책이 확인되지 않는다.

< 3>

지역	교수자료 지원					
	현장 지원		미래교육 지원		생태, ·기후 프로그램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강원	1.지역형 교육과정					
광주	1.교육과정					
경기	1.놀이온 플랫폼 2.놀이콘텐츠 3.유초이음 실행지원자료 4.인성교육과정 5.창의성 놀이중심		1.온오프라인 교육과정 프로그램			
경남	1.소규모 유치원 교육과정					

경북	1.교육과정 운영지침 2.소규모 놀이중심 3.지역 특수성 4.놀이기록 사례집 5.진흥원 자료집 6.진흥원 콘텐츠				
대구	1.놀이중심 운영지침 2.별별별 특색교육과정 3.소규모 유치원 교육과정	1.교육과정 연계놀이 원격수업 자료			
대전		1.교육 기자재			
부산	1.놀이중심 교사지원 자료 2.놀이중심 교육과정				
서울	1.현장지원	1.디지털기 활용수업 자료	1.생태전화교 육 프로그램		
세종	1.아이다음 교육과정 2.놀이중심 교육자료	1.미래형 운영지원 2.원격수업지원			
울산	1.놀이중심 교육과정 2.현장지원 자료 3.교수학습자 료	1.디지털 놀이교육			
인천	1.홍보물 제작 2.작은 음악회	1.‘인천아이’ 미래형유치원 지원			
전남	1.독서교육지원				
전북	1.교육과정 운영지침 2.놀이중심 지원자료				
제주					
충남	1.놀이중심 교육과정 2.교원연수 자료개발				
충북					
총계	32	0	8	0	1 0

3) 인건비 지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지원정책 중 인건비 지원을 내용에 따라 재분류하면 교사 직접지원과 기관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교사 직접지원의 경우 유치원은 14개, 어린이집은 12개로 수당 및 처우 개선비 지원 항목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기관 지원 중 인력비용 지원은 유치원은 10개, 어린이집은 4개로 교사의 인력 대체를 위한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항목임을 알 수 있다. 기관 지원 중 운영지원은 유치원은 1개, 어린이집은 2개로 교사 전체 지원이 아닌 기관의 운영 특성에 따른 교사 지원으로 볼 수 있다.

< 4 >

지역	인건비 지원					
	교사 직접지원		기관 지원			
			인력비용 지원		운영 지원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강원	1.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비 지원		1. 사립유치원 단기 대체인력 인건비지원			
광주	1. 사립유치원 교원기본급 증액 2. 사립유치원 수당지원 3. 사립유치원 교원 육아휴직수당 지원		1. 신학기 적용을 위한 예비교사 봉사활동 추진			
경남	1. 사립유치원 담임수당 2. 교원기본급 보조지원 3. 육아휴직수당 지원					
경북	1.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지원	1.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호봉적용 2. 명절휴가비 (봉급액의 60%) 지원 3. 교직원 가족수당 4. 종사자수당 (월 14만원)		1. 사립유치원 단기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대구			1.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1. 대체조리원 파견지원		
대전			1. 보육교사 처우개선 수당증액			
부산	1. 사립유치원 교원기본급 보조비 6만원 인상 2. 사립유치원 육아휴직수당		1. 놀이활성화위한 예비교사 및 자원봉사자 지원 2. 사립유치원 단기대체교사 인건비 15천원 인상			
서울					1. 0세전담반 교사교육 수당 지원 2. 아동비율 축소에 따른 교사수당	

세종		1.맞춤형 복지포인트 및 수당지급		1.대체교사 지원확대	1.사립유치원 운영지원을 위한 인력비 지원
울산	1.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비 지원 2.사립유치원 육아휴직수당 지원	1.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2.맞춤형 처우개선 지원	1.사립유치원 단기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1.대체인력지원	
인천			1.소규모병설유치원 보조인력지원 2.공립유치원 종일제 강사운영지원 3.사립유치원 교사 결원시 단기 대체교사 인건비지원		
전남	1.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확대				
전북				1.사회서비스원 종사자 휴식을 위한 대체인력지원	
제주	1.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지원		1.단기 대체교사 인건비지원		
충남		1.정부미지원 시설 교사인건비 전액지원			
충북		1.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2.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심리상담비 지원			
총계	14	12	10	4	1 2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유보통합의 일원화를 앞둔 해당 관계부처인 17대 시·도교육청과 시·도청의 주요업무계획 중 2023년의 교사 지원정책의 내용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교육청과 시·도청의 교사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통해 교사의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17대 시·도청의 교사지원 정책은 유치원은 17개 시·도교육청, 어린이집 지원정책은 10개로 확인된다.

교사의 교수학습 지원을 살펴보면 교사의 연수와 학습공동체로 나눌 수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 유치원 교사는 교사의 연수가 46개, 학습공동체 지원정책은 30개로 확인된다. 이에 비해 어린이집 교사의 교수학습 지원에서 교사 연수는 대전, 부산, 울산 3개 지역의 4개의 정책만 있으며 학습공동체 지원은 마련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내용은 전문성 연수, 힐링연수로 다양한 연수지원이라 보기 어렵다. 교사지원 중 교수자료 지원은 유치원은 39개로 확인되고 어린이집은 교사의 지원정책에 교수자료 지원이 포함되지 않아 교사의 전문성 지원이 미흡하다 할 수 있다. 인건비 지원을 내용에 따라 재분류하면 교사 직접지원, 기관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교사 직접지원의 경우 유치원은 14개, 어린이집은 12개로 수당 및 처우 개선비 지원 항목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교사의 지원 중 인건비 지원은 다른 지원정책에 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정책 수와 내용이 가장 비슷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23년 영유아 교육·보육기관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지원정책을 비교해 보았다. 각 지자체별 교사 지원정책의 내용 및 정책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23년 현재 유아교사의 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의 내용은 무엇이며 지자체별 지원격차를 통해 시급히 보완해야 할 지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토대로 교원을 위한 정책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강원도(2023). 2023 도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강원도.
- 강원도교육청(2023). 2023 주요업무계획. 강원도교육청.
- 광주광역시(2023). 2023 광주광역시 시정방향.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교육청(2023). 2023 주요업무 추진계획. 광주광역시교육청.
- 경기도(2023). 2023년 도정 업무계획. 경기도.
- 경기도교육청(2023). 2023 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 경기도교육청.

경상남도(2023). 2023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2023). 2023년 주요업무계획.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북도(2023). 2023년도 업무계획.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2023). 2023 주요업무계획. 경상북도교육청.
 노화준(2010). 기획과 결정을 위한 정책분석론. 박영사.
 대구광역시(2023). 2023 달라지는 제도.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2023). 2023 대구미래역량교육.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2023). 2023 주요업무계획.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2023). 2023 주요업무계획. 대전광역시교육청.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3). 유보통합추진방안,
<https://www.korea.kr/archive/speechView.do?newsId=132034906>에서 2023년 4월 4일 인출.
 박선영(2022). 유럽의 아동 청소년 권리정책 비교. 한국청소년활동연구, 8(3), 44-72.
 박수정, 박정우(2020). 시도교육청의 혁신학교 정책분석: 2019학년도 혁신학교 계획을 중심으로. 학
 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9), 621-645.
 부산광역시(2023). 2023 주요업무계획.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2023). 2023 주요업무계획. 부산광역시교육청.
 서울특별시(2023). 주요업무보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2023). 2023 서울교육 주요업무. 서울특별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2023). 2023 세종특별자치시 주요업무계획.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2023). 2023 주요업무계획.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울산광역시(2023). 2023 주요업무계획.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2023). 2023 울산교육계획. 울산광역시교육청.
 이미화(2017).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유아교원정책의 쟁점과 과제.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57-89.
 이용수(2022). 윤석열 정부의 교원정책 방향 탐색. 한국교원교육연구, 39(2), 199-220.
 인천광역시(2023). 2023년 주요업무계획.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2023). 2023 인천교육계획. 인천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2023). 2023년 주요업무계획.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2023). 2023 전남교육 주요업무계획.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2023).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2023). 2023 주요업무계획. 전라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2023). 2023년 정책 방향 및 주요업무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23). 2023 제주교육 주요업무계획.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부경(2013). 유아교육 보육 통합을 위한 교원 정책 방안. 한국유아교육연구, 15(1), 25-53.
 충청남도(2023).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2023). 2023 주요업무계획.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2023). 2023 달라지는 제도 시책.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2023). 2023 주요업무계획. 충청북도교육청.

영유아 돌봄에 대한 정부의 서비스 지원 정책 고찰: 영유아 권리를 중심으로

A review of government service policies to support early childhood care:
Focusing on the rights of young children

홍지연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영유아 돌봄에 대한 정부의 서비스 지원 정책 고찰: 영유아 권리를 중심으로

A review of government service policies to support early childhood care:
Focusing on the rights of young children

홍지연(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I. 서론

지난 10년간 영유아를 둘러싼 환경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가장 주요한 변화는 영유아의 돌봄에 대한 책임이 가족에서 가족 밖으로 이양되는 돌봄의 탈가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12개월 이하 영아 수는 2010년 기준 28.6%(육아정책연구소, 2011)에서 2021년 기준 47.1%(육아정책연구소, 2022) 크게 늘어났으며, 최초 이용 시기 또한 2021년 전체 영아 평균 21.8개월로 2015년 대비 2.3개월 줄어들어 가정 밖에서 돌봄을 받는 시기가 조기화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2. 4. 27.). 여기에 정부의 아이돌보미서비스와 기타 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영유아를 포함할 경우, 오히려 가정에서 가족구성원에 의해 돌봄을 받는 영유아의 수는 상당히 적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회적 변화에는 극심한 저출산 문제가 크게 작용하였다. 정부는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국가 의제로 설정하고,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자녀의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으며, 특히 돌봄의 시장화로 인한 양육비 부담과 돌봄 공백으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 문제를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보고 돌봄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0). 현재 정부는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해 근로시간 조정과 휴직을 보장하는 양육 친화적인 노동환경 조성 및 돌봄서비스 확대 및 비용 지원의 방식으로 돌봄에 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돌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증가하고 다각화되며, 공적 돌봄에 대한 양적 확충은 일정

* 교신저자: widus36@naver.com

수준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돌봄 정책이 저출산 극복을 목적으로 출산유도 정책과 여성 정책으로서 개선되어 옴에 따라 정작 돌봄의 대상이자 주체인 영유아들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부차적으로 취급되어온 경향이 있다(백정훈, 2022). 영유아는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사회의 ‘인적자본’이거나 여성 혹은 남성의 ‘자녀’이기 전에 고유한 권리를 가진 온전한 권리주체자이다. 이에 영유아의 거취와 안위에 대한 문제에서 정작 영유아의 권리가 부차적으로 취급된다면, 해당 정책은 정당하거나 정의로울 수 없다. 더불어 영유아의 안녕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성 또한 안녕에 이를 수 없다는 점(Kittay, 1999)에서 정부의 정책 효과 또한 클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권리를 중심으로 영유아 돌봄에 대한 정부의 서비스 지원 정책들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정부의 영유아 돌봄 서비스 지원 정책 현황 및 평가

영유아의 돌봄은 사회 여러 영역을 아우르는 사안이기에 다양한 부처에서 각기 조금씩 다른 주안점을 두며 관련 정책을 주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부의 유치원 방과후과정,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연장보육, 시간제보육,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1. 유치원 방과후 과정

유치원 방과후과정은 교육과정 이후 이뤄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 및 돌봄활동으로, 2012년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시간에 따라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 세 개의 체제로 구분되었던 것이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 두 개의 체제로 구분됨으로써(교육부, 2012. 2. 27.),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오후돌봄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 같은 법 개정은 특성화프로그램이 교육과정 시간 내에 행해지며 기본 교육비가 증가하는 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체제 개편은 유아들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현재 방과후과정의 운영은 수요가 있을 때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기관차원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의무사항은 아니나, 2022년 기준 전국 유치원의 99.7%가 참여하고 있어(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2023) 방과후과정에 대한 접근성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방과후과정의 운영시간을 크게 아침돌봄, 기본운영, 저녁돌봄, 온종일돌봄으로 구분하고, 방과후과정 지원에 대한 최소운영시간을 교육과정 시간을 포함해 1

일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2023). ‘유치원 알리미’에 따르면, 2023년 4월 기준으로 약 77% 가량의 유치원에서 방과후과정의 기본운영만을 제공하여 17시를 전후로 종료하고 있다. 직장인들의 일반적인 퇴근시간을 고려하면 하원시간부터 1~2시간 가량의 돌봄공백이 발생하는데, 조부모, 도우미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메꾸기 위한 방편으로 학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고민서, 이진한, 2019. 5. 21.). 사교육 이용이 영유아의 발달과 놀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학원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성과중심으로 운영되어 과도한 조기 학습과 학업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더불어 학원은 유치원과 달리 모니터링이 어렵다는 점에서 영유아의 발달과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방과후과정 운영내용과 관련해서는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정책이 진행되어 옴에 따라 방과후과정의 과정적 질 강화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어 온 측면이 있다. 방과후과정의 경우, 현재 별도의 정해진 정규과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유아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학습 위주의 활동이 아닌 체험 및 놀이와 쉼을 중심으로 운영할 것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놀이와 쉼’이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는지, 질 관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별도의 방침이나 지원계획 또한 교육부 및 교육청 지침에서 찾아볼 수 없는데, 특히 국공립유치원을 중심으로는 교육과정 전담 교사와 방과후과정 전담 강사간의 소통 부재와 갈등 또한 심각해(정재훈, 2020. 3. 20.) 유아들의 일과에 있어 심각한 단절을 초래하고 있다.

2. 어린이집 연장보육

연장보육은 어린이집에서 기본보육 후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영유아에게 오후 4시부터 제공하는 영유아 보육서비스로, 놀이와 쉼을 중심으로 19시 30분까지 운영된다(보건복지부, 2020). 연장보육은 보건복지부가 수요에 맞는 보육서비스 다각화와 영유아의 기관보육 이용시간 적정화라는 목적 아래 2020년 3월 보육체제를 개편하며 실시되었다.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의 주요과제 중 하나였던 보육체제 개편은 ‘맞춤반’(9시~15시)과 ‘중일반’(7시 30분~19시 30분)으로 구분했던 기존의 보육체제가 중일반에 대한 단일 지원 체계로 인해 어린이집으로 하여금 중일반 장시간 운영에 장점을 느끼지 못하고 실제 운영 시간과 달리 맞벌이 가정에 이른 하원을 유도해 돌봄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보건복지부, 2018)는 문제의식에서 실시되었다. 이에 어린이집에 등하원에 대한 전

자출결시스템을 등록해 기본보육 후 실제 하원시간에 맞춰 보육료를 30분 단위로 차등 계산해 이를 보완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맞춤형 돌봄에 대한 초석을 다진 만큼 보육체제 개편의 방향과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체제 개편을 통해 연장보육에 대한 전담교사를 채용할 것을 의무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 정원 및 인력 확보 난항 시 일부 예외를 두기는 했으나 이 같은 지침은 보육교사의 과도한 장시간 노동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교사의 노동권 차원에서도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보육교사의 근로환경이 보육의 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영유아들의 권리 증진 차원에서도 의의가 있다. 다만, 근무시간이 비선호 시간대에 조성돼 있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연장보육교사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희조, 2020. 4. 28.)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유치원의 방과후과정과 유사하게 연장보육에서도 보육 주체들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 연장보육에 대한 정보 공유가 가정 및 기본보육 담임교사에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특히 연장보육 담당교사와 가정과의 소통은 기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세 주체가 보다 통합적이고 동시에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강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3. 시간제보육

시간제보육은 가정양육가구가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시간 단위로 지정된 제공기관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를 일컫는다(보건복지부, 2022).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월 최대 80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기존의 정책이 기관 이용을 강조하며 가정양육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2014년에 시범사업을 거쳐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되었다(보건복지부, 2019. 12. 18.). 현재 각 시군구로부터 지정된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용이 가능한데, 시간제보육 운영 기관에서는 정규보육 학급과는 독립된 별도의 시간제보육 학급을 편성해야 하며, 전담 교사를 채용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교사 대 영아 비율이 1:3을 넘지 않도록 운영 지침을 내리고 있다.

관련하여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영아들의 이용이 제한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정부는 이에 대한 개편안을 발표하고 시범사업 중에 있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집을 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해 정규학급에서 빈자리가 있을 때 이를 시간제보육 신청 영아로 채울 수 있도록 하는 통합형 학급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보건복지부, 2022. 6. 16.),

현재 전국에서 132개의 통합형 학급이 운영 중에 있다(보건복지부, 2023. 1. 11.). 아직 시범운영 중이어서 별도의 보고된 결과는 없으나, 영아들의 적응 등의 측면을 고려할 때 다소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시간제보육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재원 영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 정책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하다.

4.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의 이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로,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개별보육을 선호하는 가정의 돌봄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아이돌보미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자격기준이 요구되는데, 인·적성 및 면접심사 등을 통해 부적격 사유가 없음을 확인 후 80시간의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여성가족부, 2023).

현재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지만, 수요 대비 공급이 현저히 부족해 아이돌보미 배치까지 대기시간이 긴 것이 문제로서 지적되고 있다(정혜인, 2023. 3. 16.). 특히 어린이 집, 유치원, 학교의 등하원 및 등하교 시간에 이용자가 몰려 25~30%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올 2월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통해 관련 대책을 발표하였다(여성가족부, 2023. 2. 16.). 수급미스매치를 보완하기 위해 현행 최소 2시간 이상 이용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 이용자의 추가부담을 늘리되 1시간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단시간 돌봄서비스 도입과, 4시간 이내 신청 시에도 이용이 가능한 긴급 돌봄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가정과 아이돌보미 간의 매칭 시간 단축을 위한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다(관계부처 협동, 2023). 세부 실행 계획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관련 내용들이 영유아의 권리와 발달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성인의 편의 중심으로 돌봄에 대한 수급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는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Ⅲ.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돌봄에 대한 정부의 서비스 지원 정책을 영유아들의 권리 차원에서 평가해보자 하였다. 각각의 지원 정책이 갖는 성과는 상당하지만, 영유아의 관점에서 일부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 첫째, 유아교육기관 재원 유아들의 오후 돌봄의 과정적 질에 대한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유치원

방과후과정과 어린이집 연장보육의 운영과 관련해 정부는 그동안 특성화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서비스 다각화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오후돌봄 운영의 질을 어떠한 방식으로 강화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사실상 부족했다. 현재 정부는 오후돌봄과 관련해 놀이와 쉬를 표방하고 있으나, 유의해야 할 것은 놀이와 쉬에도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놀이 운영의 질적 차이가 유아의 발달에 지대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점(엄정애, 2001)에서 오후돌봄 시간동안의 과정적 질의 차이는 교육기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유아들의 교육권과 평등권 차원에서 이를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유아교육기관 재원 유아들이 가정에서 방과후과정(혹은 연장보육)까지 유기적이고 일관된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교육과정-방과후과정-가정(기본보육-연장보육-가정)이 유아를 중심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소통을 할 것이며, 하나의 팀으로서 정보를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개별 기관의 역량으로서 방관해온 측면이 있다. 영유아의 돌봄에 대한 일관되고 유기적인 지도와 지원은 영유아의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일관되지 않은 지원은 불안감을 유발한다는 점(유주연, 2018)에서 이에 대한 연계는 영유아들의 발달권, 보호권과 직결되어있다. 따라서 유보통합을 앞두고 있는 만큼, 유아를 둘러싼 세 주체간의 소통과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협력적 모형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정양육 중인 영유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서비스 정책과 관련해 영유아들의 초기 적응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통합형 학급 운영에 대한 시간제보육 개편안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영아에게는 기관에서의 초기적응 경험이 단발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상대적 영향력이 덜할 수는 있으나, 문제는 초기적응에 수반되는 불안의 감정은 영아들에게 전파력이 있으며(우현경, 홍용희, 1998), 통합형 학급의 재원 원아에게는 그 경험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통합형 학급 운영에 대한 개편안의 방향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이것의 운영이 효율성 측면에서 불가피할 경우 영유아의 적응과 관련해 예상되는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인력지원 등의 방안 또한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끝으로, 영유아 돌봄에 대한 서비스 지원 정책이 성인의 필요와 기준에 맞춰 분절되고 파편화된 시간 체제 속에서 영유아들의 하루일과를 조직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영유아가 매일의 일과에서 각기 다른 환경에 노출돼 이에 적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돌봄의 제공하는 사람과 돌봄을 제공받는 환경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 규칙과 분위기, 문화적 코드를 갖는 것이 다소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영유아 돌봄

에 대한 정부의 서비스 지원 정책은 단순히 접근성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에 단시간 돌봄과 긴급 돌봄에 대한 대책이 영유아를 시간 단위의 단절적이고 단편적인 돌봄 환경에 노출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영유아의 권리를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등 양육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오히려 기업들의 면책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고민서, 이진한(2019. 5. 21.). '5시 땡' 국공립 유치원...에타는 워킹맘들. 매일경제. <https://www.mk.co.kr/>에서 인출.
- 관계부처협동(2023).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
- 교육부(2012. 2. 27.). 3~4세 누리과정 확대 및 유아교육 선진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 완료보도자료.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2023).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내실화 계획.
- 대한민국정부(2010).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0.
- 백경훈(2022). 돌봄윤리 관점의 성평등한 아동돌봄 제도. 비판사회정책, 75, 61-94.
- 보건복지부(2018). 제 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 보건복지부(2019. 12. 18.). 다양한 보육수요에 맞춰 시간제 보육반 지원 확대한다[보도자료].
- 보건복지부(2020). 온종일활기찬 어린이집. 보육체제 개편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안내(원장용)
- 보건복지부(2022). 2022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22. 4. 27.). 어린이집 이용만족도 4.10(5점 만점)으로 2015년(4.02점), 2018년(4.03점)에 이어 지속 상승 중[보도자료].
- 보건복지부(2022. 6. 16.). 시간제보육 개편 시범사업 실시.
- 보건복지부(2023. 1. 10.). 시간제보육 현장결제 대신 앱(app)으로 결제 가능.
- 엄정애(2001). 놀이와 유아교육: 그 조화의 방향에 대한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5(3), 1-25.
- 여성가족부(2023). 2023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 여성가족부(2023. 2. 16.).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더 빠르고 편리하게[보도자료].
- 우현경, 홍용희(1998). 걸음마기 유아의 어린이집 초기 적응에 대한 문화기술지 연구. 교육과학연구, 27, 29-50.
- 유주연(2018). 생태학적 변인이 영아의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113(1), 183-204.
- 육아정책연구소(2011). 유아교육 보육 주요 통계(연구자료 2011-03). 육아정책연구소.
- 육아정책연구소(2022). 2021 영유아 주요통계(연구자료 2022-01). 육아정책연구소.
- 이희조(2022. 4. 28.). “보육에 방역까지...” 뺄 빠지는 보육교사. 매일경제. <https://www.mk.co.kr/>에서 인출.

- 정재훈(2020. 3. 20). “교사-교육공무직 갈등 증폭... 교사들 “역차별” 청와대 청원 봇물. 에듀프레스.
<http://www.edupress.kr>에서 인출.
- 정혜인(2023. 3. 16). “몇 달을 기다려야 겨우”...말로만 ‘아이돌봄’ 확대. MBC.
<https://www.imbc.com/>에서 인출.
- Kittay, E. F. (1999). *Love's labor: Essays on women, equality and dependency*. Routledge.

K직장어린이집의 영아기 부모교육 운영 개선을 위한 실행연구

An action research for improving the operation of parent education for
parents raising infants at K workplace childcare center

김지현
(국회제2어린이집 원장)

K직장어린이집의 영아기 부모교육 운영 개선을 위한 실행연구*

An action research for improving the operation of parent education for parents raising infants at K workplace childcare center

김지현(국회제2어린이집 원장)**

I. 서론

영아기는 급격한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개별성, 독특성, 다양성 등이 두드러지는 특성이 있어(Recchia & Dvorakova, 2018), 유아기보다 더욱 세심하고 전문적인 보살핌이 요구되는 등 부모의 자녀양육에서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Recchia & Dvorakova, 2018). 많은 선행연구(김갑순, 김남연, 이은형, 2012; 김은설, 장혜진, 김문정, Walker, 2011)에서 영아기 부모의 어려움과 영아기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에 반해, 영아기에 특화된 부모교육 운영에 대한 예시나 가이드라인은 찾아보기 어렵다(남지영, 정혜원, 2016; 정미라, 이방실, 문원선, 2012).

특히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맞벌이 부모는 자녀양육과 직장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울 뿐 아니라(이재희, 박원순, 2020), 부모교육을 받기 위해 별도의 시간을 내는 것도 어려워 어린이집으로부터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기대하며, 양육지원적 부모교육을 필요로 한다(배현지, 2014; 이해순, 2020). 그러나 기존의 맞벌이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은 실효성의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고(정보미, 김낙홍, 2016), 직장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한 영아기 부모교육 운영을 위해 참고할 만한 예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직장어린이집에서의 효과적인 부모교육을 위해서는 영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의 개별적 상황과 특수성에 대한 고려와 배려가 필요하다(심윤희, 2013). 부모의 양육역량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은 자녀를 기르는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으로 접근하여야 한다(이명순, 고여훈, 2016). 또한 영아기 부모들은 구체적인 사례

* 본 논문은 2023년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 abtain@daum.net

중심의 일대일 상담과 지속적인 양육코칭을 희망하는데(윤미경, 배지희, 2021), 효과적인 부모교육 운영을 위해 개별 영아에 대한 이해가 높은 원장과 교사가 협력하여 부모교육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고, 원장과 교사가 실시하는 부모 맞춤형 지원은 개별 영아의 발달 특성과 가정 상황에 맞출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부모교육의 목적은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인데(김희진, 2005), 이를 자녀양육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사가 도우려면, 먼저 교사가 영아 발달 지식과 상담 기술을 습득하고 개별 사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며, 부모와 협력적인 관계 형성이 가능하도록 기관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김성은, 2022; McMullen & Apple, 2012).

이에 본 연구는 K직장어린이집의 기존 영아기 부모교육 운영의 문제점 분석과 문헌연구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하여, 개별 영아와 개별 부모를 최대한 지원하고, 이 과정에 교사를 참여시켜 보고자 하였다.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K직장어린이집 영아기 부모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2. K직장어린이집 영아기 부모교육 실행에 따른 부모, 교사, 원장의 변화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K직장어린이집에서 실시되었으며, 연구참여자는 영아 및 부모 57명, 영아반 교사 12명, 원장(연구자)이었다. 연구 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 까지로, 계획-실행-반성 및 평가의 3단계가 통합된 하나의 과정을 개선될 때까지 순환적으로 거듭해나가는 Kemmis와 McTaggart(2000)의 실행연구 모형을 적용하였다.

개별 영아와 개별 부모를 고려하여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서의 변화와 적용을 반복적으로 시도하며 직장어린이집 내 영아기 부모교육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부모 맞춤형 지원과 이를 위한 교사지원의 효율적 방안을 찾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영아기 부모교육 운영 개선을 위한 문제 인식과 개선방안 모색의 준비과정을 거친 후, 영아기 개인차를 반영하여 개별 부모의 이해를 돕는 부모교육 운영에 주안점을 둔 1차 실행, 부모 개별지원을 위한 교사지원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둔 2차 실행, 지속적 개별지원이 용이한 효율적 체계를 모색하기 위한 3차 실행, 종합 평가의 실행과정을 거쳤다. 연구를 위해 부모 및 교사 대상 사전 질문지, 면담 기록, 부모 맞춤형 지원 기록, 교사 협의록, 교육 평가서, 원장-교사 간 피드백 일지, 연구자 저널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연구문제에 따른 개방 코딩과 귀납적 분석과정을 거쳤다.

Ⅲ. 연구결과

1. K직장어린이집 영아기 부모교육 운영 개선방안

K직장어린이집 영아기 부모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개선하였다. 기존에 운영해 온 영아기 부모교육은 교육내용 면에서 획일적인 이론 중심이었기 때문에 실제 적용에서의 어려움이 있었다. 교육방법 면에서는 대면 집합교육으로 인해 맞벌이 부모의 참여에 한계가 있었고, 원장 중심의 일회성 교육으로 적용과 지속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교육내용의 측면에서는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개별 양육상황에의 적용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고, 개별 영아와 개별 부모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교육방법의 측면에서는 부모의 접근성과 편의성 및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비대면 영상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고, 지속적인 맞춤형 지원을 위해 교사를 참여시키고, 이를 위해 교사 지원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

1차 실행(주제: 배변훈련)에서는 개별 부모의 이해를 돕는 기본원리와 단계별 사례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하였고, 사전 조사를 통해 수립한 부모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반영하였다. 교육방법으로는 공통 영상교육 및 맞춤형 지원을 병행하고, 맞춤형 지원에서는 양육상황에서 부모의 이해를 높이는 것에 집중하였다. 교사에게는 부모 맞춤형 지원을 위해 전문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차 실행(주제: 영아기 자녀와의 대화)에서는 1차 실행에서의 영아의 개인차 및 개별 부모의 적용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포함하는 교육내용 구성으로 기본원리에 연령별 원리를 추가하고, 다양성을 강화하였다. 교육방법에 있어서는 공통의 영상교육에 더하여 영아의 언어발달 수준을 고려한 연령별 심화교육을 추가하였고, 맞춤형 지원에서는 양육상황에서 부모의 실천력을 높이는 것에 집중하였다. 또한 원활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부모와의 소통방법 중심의 교사지원을 강화하였다.

3차 실행(주제: 영아기 자녀의 훈육)에서는 개별 영아 및 부모의 특성을 존중하고 실제적인 양육지원 효과를 높이고자 부모에게 사전 조사한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범주를 좁혀 기본원리와 함께 교육내용을 구성하였다. 교육방법으로는 공통의 영상교육과 맞춤형 지원을 병행하며, 일회성 교육 개선을 위해 자료 배부를 추가하였고, 맞춤형 지원에서는 부모 역할을 점검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맞춤형 지원이 용이한 효율적 체계를 모색하고자 초임교사 및 영아반 신규 진입교사에게 보다 집중적인 지원을 실시하였다. 1차, 2차, 3차 실행과정을 거치며 개별 영아 및 부모가 필요로 하는 교육과 지원을 제공해 나갈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 교사를 참여시키고 지원함으로써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2. K직장어린이집 영아기 부모교육 참여자의 변화

본 연구의 실행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에게도 변화가 나타났다. 부모들은 K직장어린이집 영아기 부모교육에 참여하면서 부모로서 스스로에 대한 점검의 기회를 가지고, 부모 역할에 대해 좀 더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양육역량이 증진되었으며,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사와의 관계도 긍정적으로 증진되어 협력자, 조연자로서 교사를 인식하게 되었다. 교사들은 영아반 교사로서 효능감이 증진되었다. 특히 초임교사 및 영아반 신규 진입교사들은 전문지식을 쌓아 자신감을 가지고 부모를 대하면서 효능감이 높아졌으며, 경력교사들은 개별 영아와 개별 부모를 고려한 적용의 측면에서 교사로서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교사들은 실행과정 전반에서 부모와의 긍정적 관계가 증진되어 협력자, 동반자로 부모를 인식하고,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원장은 영아기 부모가 필요로 하는 부모교육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효율적 교사지원 방안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었다. 또한 원장으로서 실행과정에서 무수한 균형과 조절의 필요성을 경험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아기 부모교육 운영의 개선방안으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서 개별 영아와 개별 부모가 필요로 하는 교육과 지원에 중점을 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교육방법에서 공통교육과 맞춤형 지원을 병행하면서 부모교육의 실행 주체로 원장뿐 아니라 교사를 포함시켜 영아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부모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것은 영아기 부모교육의 효과적 운영사례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참여를 높이고 부모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모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사전 조사를 부모교육 운영에 포함해야 한다. 둘째, 서로 다른 가정 내 양육상황에서 부모의 적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원리를 제시한 후 다양한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맞춤형 지원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교육 실행 주체로 교사를 참여시키고, 이를 위한 교사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가 영아기 부모교육 운영방안 탐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보육현장에서 영아기에 특화된 부모교육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갑순, 김남연, 이은형(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어린이집에 대한 요구. *한국교육문제연구*, 30(3), 165-184.
- 김성은(2022). 부모와의 좋은 관계 형성에 관한 영아반 교사의 경험 탐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김은설, 장혜진, 김문정, Walker, S. (2011). 영유아기 자녀 부모 특성별 부모교육 강화 방안(연구보고 2011-16). 육아정책연구소.
- 김희진(2005). *현대부모 및 가족지원프로그램: 포괄적 관점*. 창지사.
- 남지영, 정혜원(2016). 가정어린이집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요구 및 활성화 방안. *열린 유아교육연구*, 21(2), 29-53.
- 배현지(2014). 직장어린이집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윤희(2013). 부모 참여에 대한 취업모의 인식,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유아교육보육 복지연구*, 17(2), 6-27.
- 윤미경, 배지희(2021).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부모교육 운영을 위한 노력과 어려움 및 요구. *열린유아 교육연구*, 26(4), 1-30.
- 이명순, 고여훈(2016). 영아부모 양육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부모역량 및 요구 분석. *유아교육보육 복지연구*, 20(4), 435-456.
- 이재희, 박원순(2020). 영유아 아버지 및 맞벌이 부모 대상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열린 유아교육연구*, 25(6), 275-293.
- 이혜순(2020). 어린이집 신입 영아의 부모를 위한 양육역량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미라, 이방실, 문원선(2012). 영아 프로그램 관련 연구경향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7(2), 127-149.
- 정보미, 김낙홍(2016). 영아기 첫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부모교육 경험 및 요구. *아동교육*, 25(3), 377-393.
- Kemmis, S., & McTaggart, R. (2000).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In N. Denzin & Y.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2nd ed., pp. 567-605). Sage.
- McMullen, M. B., & Apple, P. (2012). Babies (and their families) on board! Directors juggle the key elements of infant/toddler care and education. *YC Young Children*, 67(4), 42.
- Recchia, S. L., & Dvorakova, K. (2018). Moving from an infant to a toddler child care classroom. *YC Young Children*, 73(3), 43-49.

국립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의 어린이 관람객 놀이 분석

Analysis of children's play at the children's museum of
the national museum

최일선

(경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방은정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강사)

하민경

(경상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김민정

(안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국립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의 어린이 관람객 놀이 분석*

Analysis of children's play at the children's museum of the national museum

최일선(경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방은정(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강사)

하민정(경상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김민정(안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I. 서론

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배움에 동기를 부여하는 전시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의 흥미와 요구를 충족시키는 비영리 교육 및 문화 기관이다(Association of Children's Museums, 2019). 시대적 변화에 따라 어린이박물관의 체험공간은 다양한 체험 요소와 관람객의 직접적인 자극과 반응이 상호작용하여 어린이들의 학습도구가 되는 새로운 인터페이스 공간일 뿐 아니라 어린이 스스로 자율적인 체험과 능동적인 관찰을 통해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열린 체험공간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어린이박물관은 놀이를 통해서 사려 깊은 방식으로 어린이의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통로를 제공할 수 있다(Silverstein, 2021). 기존의 일반 박물관과 달리 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의 특정 발달을 도모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하며 어린이의 신체적, 정신적 환경과 학습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 즉, 놀이를 매개로 진행되는 어린이박물관의 체험전시경험은 어린이들의 문제해결기술, 운동발달기술, 언어능력, 공간구성능력과 눈과의 손의 협응력, 의사소통 및 협상기술, 창의력 및 문해능력 등의 배움을 촉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Children's Museum of Richmond, 2022).

놀이는 어린이가 주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을 배우는 데 있어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어린이박물관의 핵심적인 가치와 맥을 같이 한다. 왜냐하면 박물관에서 '체험(hands on)'을 강조하는 것은 놀이와 배움을 통합된 노력으로 보는 '공감 (minds on)'

* 본 논문은 2022년도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의 연구보고서 일부 내용을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 김민정(edumin@naver.com)

접근 방식의 촉매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인터랙티브 전시는 일반적으로 경험에 기반한 전시로, 우리 삶과 관련된 개념을 구현하는 것이다(Encyclopedia, 2022). 놀이를 통한 배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놀이 중심의 어린이박물관의 체험전시물이 어떠한 배움과 발달적 가치로 연결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어린이박물관의 활용방안을 수립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립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의 관람객인 어린이의 놀이 특성을 분석하여 어린이박물관 체험전시공간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국립박물관 어린이박물관에서 어린이 관람객의 놀이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2. 국립박물관 어린이박물관에서 어린이 관람객의 놀이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3. 국립박물관 어린이박물관에서 어린이 관람객의 놀이 경험 의미는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국립나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에 연구참여 신청서(온라인)를 제출한 부모의 자녀 연령과 성별, 어린이박물관 관람시간대를 고려하여 가족 단위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부모에게 전화로 어린이박물관 방문 전 연구목적 및 연구 참여 안내를 하였다. 사전에 선정된 가족 중 취소된 경우, 당일 현장에서 추가적으로 관람객을 섭외하여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연구대상 가족들에게는 개인정보활용 및 연구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본 연구는 관찰 및 면담을 위해 총 39가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15가족, 국립나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 11가족, 국립제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 13가족으로 어린이는 총 55명(미취학 어린이 31명, 취학 어린이 24명)이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22년 9월 9일 - 9월 24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나주박물관과 국립제주박물관의 어린이박물관에 방문한 39가족을 대상으로 관찰과 면담을 시행하였다. 관찰은 각 어린이박물관 관람시간대(국립중앙박물관 80분~110분, 국립나주박물관 자유관람(유아놀이터 40분), 국립제주박물관 자유관람)동안에 부모와 다자녀인

경우, 부-자녀와 모-자녀로 분리하여 각 1회씩 총 45회(국립중앙박물관 17회, 국립나주박물관 13회, 국립제주박물관 15회)를 하였다. 면담은 어린이박물관 내 독립적인 공간(강의실, 회의실 등)에서 관람시간 이후, 다자녀 가족이 원하는 경우에 동시면담을 실시하여 총 41회(국립중앙박물관 15회, 국립나주박물관 11회, 국립제주박물관 15회) 시행하였다. 면담은 1시간 내외로 소요되었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반구조화된 질문(사전경험, 전시체험물 선호 및 이해, 상호작용 등)으로 진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회차별로 전사를 하였고, 전사 자료는 범주화하여 분석을 하였다. 분석 자료는 유아교육 전문가 4인이 반복하여 검토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자료 해석의 정확성을 기했다. 또한, 어린이박물관 학예사 7인이 자료해석 내용을 검토하여 자료 해석의 오류를 줄이고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어린이박물관에서 어린이의 놀이 출현

1) 일회적 놀이

일회적 놀이는 놀이 행동의 지속성이 없는 것으로 체험전시물에 흥미가 없거나,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선이해 또는 선지식과 다른 방식의 체험전시물일 때 나타났다. 또한, 단순한 방식으로 구조화된 체험전시물이고 친숙하지 않을 때 출현하였다.

2) 반복적 놀이

반복적 놀이는 놀이 행동의 지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감각적으로 즐거움을 유발하거나 반복을 통해 몰입감과 자발적 실험을 유발할 때 나타났다. 체험전시물을 통해 목표를 설정하거나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만들고, 반복적 체험전시경험을 통해 순수한 즐거움을 경험할 때 이루어졌다.

2. 어린이박물관에서 어린이의 놀이 특성

1) 직관적 놀이

직관적 놀이는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놀이를 하는 경우, 감각적 직관과 지각적 직관에 의해 놀이 행동이 나타났다. 감각적 직관과 지각적 직관에 의해 놀이 행동이 발현되었다. 감각적 직관은 단순히 사물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고(오향숙, 2006), 지적인 직관은

비감각적인 개념, 형식적 관계, 이론 등을 다루는 즉각적 형태의 지식을 의미한다(박현주, 2004).

2) 모방적 놀이

모방적 놀이는 탐색형 모방놀이와 문제해결형 모방놀이를 나타냈다. 탐색형 모방놀이는 무경험이거나 새로운 체험전시물일 때 나타났다. 문제해결형 모방놀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상을 주의집중하여 관찰하고 기억하고 재생하여 해결하는 놀이행동으로 출현하였다.

3) 정보수용적 놀이

정보수용적 놀이는 알려준 정보대로 놀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놀이, 자기수정놀이를 나타냈다. 알려준 정보대로 놀이는 체험전시물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때 나타난 반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놀이는 체험전시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때 나타났다. 이외에, 자기수정놀이는 어려운 체험 전시물일 경우, 정보를 안내 받아 놀이가 이루어질 때 나타났다.

4) 변형적 놀이

변형적 놀이는 마음대로 놀이, 체험전시물의 가작화놀이, 목표달성놀이, 또 다른 새로운 놀이 형태로 나타났다. 마음대로 놀이는 체험전시물에 대한 낯설음과 정보 및 지식이 부재하여 나타났고, 가작화놀이는 체험전시물과 유사한 대상으로 가작화하는 놀이가 나타났다. 목표달성놀이는 스스로 목표 만들어 놀이하는 형태이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새로운 놀이는 기존의 체험전시 행동 놀이 양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놀이로서 방법을 고안하여 창의적으로 놀이행동을 보였다.

3. 어린이박물관에서 어린이의 놀이 경험 의미

1) 즐거움의 놀이 경험

어린이박물관에서 어린이는 즐거움을 경험하였다. 어린이박물관의 체험전시물을 통해 재미와 흥미를 느끼고 놀이로 표현하였다. 어린이는 어린이박물관에서 체험전시가 재미있고 신나는 경험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성장의 놀이 경험

어린이는 어린이박물관의 체험전시를 놀이하는 동안 신체를 움직이고 동작을 정교화하며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고 새로운 것을 깨닫고 알아갔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어린이는 몸, 마음, 사고가 성장하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린이박물관의 핵심적인 가치인 놀이가 체험전시활동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놀이 양상과 의미를 도출함으로써 체험전시활동에서 이루어지는 놀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어린이박물관의 관람객인 어린이는 박물관 체험을 통해 놀이가 일회적 또는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직관적 놀이, 모방적 놀이, 정보수용적 놀이, 변형적 놀이를 경험하였다. 어린이박물관에서 놀이 경험은 즐거움과 성장의 경험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는 눈으로 체험전시물을 탐색하고, 감각적으로 체험과 놀이를 하고, 부모 또는 또래와 함께 어우러져 관계를 형성하면서 체험과 놀이를 경험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 대상 체험전시물의 내용과 방법을 좀 더 유연하고 확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의 반응에 즉각적이고 다양한 반응으로 피드백이 가능한 체험전시물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지역, 전시주제, 운영방식 등이 상이한 3개 어린이박물관을 대상으로 각 어린이박물관에서 나타난 어린이 관람객의 공통적인 놀이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각 어린이박물관 관람객의 다양성(지역거주유무, 재방문 관람경험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추후 어린이박물관별로 관람객의 놀이 다양성과 특성을 고려한 관람경험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박현주(2004). 수학문제 해결과정에서의 직관적 사고 분석.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향숙(2006). 유아의 직관적 사고에 기초한 확률 지도방안 모색.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ssociation of Children's Museums. (2022). What is a children's museum?

<https://childrensmuseums.org/wp-content/uploads/2021/11/ACMFourDimensionsofChildrensMuseums>. 에서 인출.

Children's Museum of Richmond (2022). Learn through play.

<https://www.childrensmuseumofrichmond.org> 에서 인출.

Encyclopedia, (2022). Children's museums.

<https://www.encyclopedia.com/humanities/encyclopedias-almanacs-transcripts-and-maps/childrens-museums> 에서 인출.

Silverstein, A, P. (2021). Children's museums: places of beauty, joy, wonder, and magic. *Exchange*, 262, 57-59.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한 ‘예비유아교사의 음악 개념 이해 측정 도구’ 개발

Development of ‘A Measurement Tool for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Understanding of Musical Concepts’ using a cognitive diagnosis model

곽진이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한 ‘예비유아교사의 음악 개념 이해 측정 도구’ 개발*

Development of ‘A Measurement Tool for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Understanding of Musical Concepts’ using a cognitive diagnosis model

곽진이(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I. 서론

유아들은 음악적 행동의 주체로서 음악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살아간다. 유아들이 자발적으로 표출하는 다양한 음악적 행동은 이미 음악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임을 보여 준다. 음악적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출생 후 경험하는 환경이나 교육에 따라 발달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유아기에 양질의 음악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Gordon, 2013; Gruhn, 2011). 교사는 유아들이 풍부한 음악적 경험을 통해 타고난 음악적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김진영, 엄정애, 이승연, 2007), 양질의 유아 음악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유아들이 음악교육을 통해 필수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내용인 음악 개념(McDonald & Simons, 1989)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교사의 음악 개념 이해가 현장에서의 음악교육 실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교사의 음악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예비유아교사의 음악 개념 이해에 주목해야 한다. 교사양성과정에서 유아음악교육 강의가 교수학습방법 위주로 진행되는 현실에 비춰볼 때(이영주, 2006; 이옥주, 윤지영, 2019), 예비유아교사의 음악 개념 학습이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양성과정에서 음악 개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음악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비유아교사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사의 음악 개념 이해를 평가한 기존 도구들은 자기 평정 형태이거나 평가 결과로 총

* 본 논문은 2023년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 yi1223@hanmail.net

점만을 제공하므로 실제적인 음악 개념 지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응답자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교육에 직접 활용하는 데 제한이 있고, 모두 지필 형식이어서 청각 예술인 음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음악 개념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실제적인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필 평가와 듣기 평가를 병행하여 다각적으로 평가하고, 응답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인지진단모형은 응답자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인지요소 숙달 여부와 같은 교육에 즉각 활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므로(Lee & Luna-Bazaldua, 2019), 이를 활용하여 필요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 따라서 인지진단모형은 유아교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 중에 있는 예비유아교사에게 적용할 때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본 연구는 도구 개발 단계에서부터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하여 예비유아교사의 실제적인 음악 개념 이해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도구 개발을 통해 '유아음악교육' 교수자는 예비유아교사의 음악 개념 이해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에 기반하여 교수·학습방법을 계획할 수 있으므로 높은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유아음악교육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더불어 검사 결과를 예비유아교사에게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이해 수준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II. 연구방법

1. 인지진단모형

인지진단모형은 학습자의 문항 응답 반응과 인지요소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인지요소 숙달 여부를 확인하므로 학습자의 개별적인 잠재 능력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Lee & Luna-Bazaldua, 2019). 인지진단모형의 핵심 개념인 인지요소(attribute)는 검사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지식, 능력,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Tatsuoka, 1983), 검사를 통해 측정하려는 잠재변수이다. 문항과 인지요소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Q행렬은 학습자가 문항을 맞히는데 필요한 인지요소를 이분변수로 제시한다. 인지진단모형의 대표적 모형인 DINA 모형은 응답자의 능력에 따라 검사 점수가 결정되며, 잠재변수인 기대 반응과 관찰변수인 실제 응답 반응은 실수에 의한 오답 반응(slip)과 추측에 의한 정답 반응(guessing)에 의해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문항 응답에 필요한 모든 인지요소를 숙달해야만 정답 반응이 가능하다고 보는 결합적 규칙을 따르는 비보상적 모형이다(이영선 등, 2012).

2. 연구 절차

Bandalos(2018)가 제시한 도구 개발 절차에 따라 ‘예비유아교사의 음악 개념 이해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연구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예비문항을 구성하기 전, 문헌 고찰을 통해 도구가 측정할 인지요소로 8개의 음악 개념(음색, 박·박자, 리듬, 빠르기, 셈여림, 음높이, 멜로디, 화성)을 선정하였다. 음악교육 관련 문헌들을 기반으로 음악 개념의 세부내용을 추출하였고, 유아교사에게 필요한 지식을 중심으로 범위와 수준을 제한하여 인지요소의 의미를 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1차 시안 문항을 작성하면서 Q행렬 초안 개발도 병행하였고, 2인의 음악전문가 자문을 거쳐 108문항(음원문항 28문항, 일반문항 80문항)의 1차 시안과 Q행렬 초안을 완성하였다. 이후 2회에 걸쳐 진행된 유아음악교육 내용전문가 회의회에서 1차 시안과 Q행렬 초안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97문항(음원문항 24문항, 일반문항 73문항)의 2차 시안을 완성하고, Q행렬을 확정하였다.

2차 시안 문항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3차 시안을 위한 문항을 선정하기 위해 135명을 대상으로 예비연구를 실시하였고, 인지진단모형 중 DINA 모형을 적용하여 문항 모수(실수 모수, 추측 모수, 변별도 지수)를 추정하였다. 변별도 지수를 중심으로 문항의 적절성을 판단하였고, 변별도 지수에 대한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하위 약 40%에 해당하는 문항을 제거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더불어 문항의 내용상 중요도와 중복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1문항(음원문항 14문항, 일반문항 47문항)의 3차 시안을 완성하였다. 이어진 본 연구에서는 3차 시안으로 대면 검사를 통해 512명의 응답 자료를 수집하고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교육측정 전공 이영선 교수가 교육연구 목적으로 DINA 모형 적용을 위해 작성한 코드로 Ox 프로그램 version 9.0에서 실시하였고, 수집된 응답 반응과 내용전문가의 타당성 검증을 마친 Q행렬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최종 도구 문항 확정을 위한 문항의 적절성 분석

인지진단모형 중 DINA 모형을 적용하여 3차 시안 문항(61문항)의 문항 모수(실수 모수, 추측 모수, 변별도 지수)를 산출하고 문항의 적절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DINA 모형에서 문항의 질을 평가하는 데 활용하는 변별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상대적으로 변별도 지수가 낮은 문항을 우선적인 제거 대상으로 고려하였으나 내용상 중요한 문항의 경우에는 변별도

지수가 다소 낮은 경우라도 유지를 결정하였다. 또한 전체적인 인지요소별 문항 구성 비율을 고려하여 변별도 지수가 다소 높더라도 보다 나은 중복 문항이 존재하는 경우 제거하였다. 마지막으로 검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30분 내에 검사를 마칠 수 있으면서도 안정적인 문항 모수 산출이 가능한 수준에서 45문항을 최종 문항으로 확정하였다.

2. 최종 도구의 문항 및 문항 모수

문항 적절성 분석을 통해 최종 선정된 45문항의 최종 도구와 3차 시안의 상대 적합도 지수(relative model fit), 문항 모수 평균을 확인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첫째, 최종 도구의 -2LL, AIC와 BIC 값이 더 작았으므로,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에 근거할 때 3차 시안보다는 최종 도구가 예비유아교사의 음악 개념 이해를 측정하는 데 더 적합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DINA 모형을 적용한 최종 도구의 문항 모수를 비교한 결과, 최종 도구의 실수 모수가 3차 시안보다 근소한 수준에서 높았고, 추측 모수는 다소 낮았다. 이는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한 경우에 문항을 맞출 확률은 약간 증가하고, 추측으로 문항을 맞출 확률은 다소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변별도 지수는 3차 시안과 비교할 때 다소 높아졌는데, 이는 최종 도구가 음악 개념을 숙달했지만 실수로 틀릴 확률과 숙달하지 못했지만 추측으로 맞힐 확률을 배제한 상태에서 문항을 맞힐 확률이 높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응답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1> 3

모형	상대 적합도 지수			문항 모수 평균(표준편차)		
	-2LL	AIC	BIC	실수 모수	추측 모수	변별도 지수
3차 시안 (61문항)	35572.69	35816.69	36333.76	.24(.20)	.38(.17)	.38(.17)
최종 도구 (45문항)	26776.51	26956.51	27337.95	.25(.19)	.35(.16)	.40(.16)

IV. 논의 및 결론

‘예비유아교사의 음악 개념 이해 측정 도구’는 총 45문항(음원문항 11문항, 일반문항 34문항)이며, 1개의 문항이 인지요소 2개 또는 3개를 측정하는 문항도 있으므로 실제 측정하는 인지요소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66문항이다. 본 도구는 대면 검사를 권장하며, 검사 시간은 25분으로 제한한다. 본 도구에는 측정하는 인지요소가 1개를 초과하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검사 결과는 맞힌 문항 수로 총점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요소 숙달 여부와 프로파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하여 Ox 프로그램에서 확인해야 한다.

본 도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확한 답이 존재하는 인지검사 형태이므로 예비유아교사의 음악 개념에 대한 이해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예비유아교사의 음악 개념 이해를 평가한 대부분의 기존 도구들은 자기 평정 형태이거나 검사 결과로 총점만을 제공하므로 실제적인 음악 개념 이해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다. 본 도구는 문항 선정 과정에서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하여 추정된 문항 모수를 활용하면서 추측과 실수에 의한 응답 확률을 최대한 배제하고 인지요소 숙달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문항을 선별하여 개발하였다. 더불어 인지요소 숙달 확률, 인지요소 프로파일과 같은 구체적인 진단 결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도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둘째, 본 도구는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문항 개발 단계에서부터 도구가 측정할 인지요소를 고려하였고, 문항과 문항 응답에 필요한 인지요소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한 Q행렬을 개발하기 위하여 문항 개발과 Q행렬 초안 개발을 병행하였다. 인지진단모형에서는 Q행렬에 근거하여 응답자의 인지 상태를 진단하므로 정교하고 타당한 Q행렬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도구의 Q행렬은 유아음악교육에 대한 풍부하고 실제적인 지식을 갖춘 내용전문가들에게 타당성을 검증받고 정교화하는 과정을 거쳤으므로 예비유아교사의 음악 개념 이해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셋째, 본 도구는 청각을 통해 음악 개념 이해를 평가할 수 있는 음원문항을 포함하여 개발하였다. 청각 예술인 음악의 특성과 현장에서 교사가 청각을 활용하여 유아의 음악적 행동을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기존 도구와 같이 지필 검사 형태의 문항만으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음원을 듣고 응답하는 문항이 포함된 본 도구는 예비유아교사의 음악 개념에 대한 이해를 다각적으로 측정하고 진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김진영, 엄정애, 이승연(2007). (유아교사를 위한) 유아음악교육. 양서원.
- 이영선, 박윤수, 송미영, 김성은, 이영주, 인보란(2012).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프로파일 보고 방안 탐색. *교육평가연구*, 25(3), 411-433.
- 이영주(2006). 3년제 유아교사 양성과정의 음악교육과정 분석. *보육정책연구*, 2(2), 101-124.
- 이옥주, 윤지영(2019). 유아음악교육 대학교재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4), 335-357.
<http://doi.org/10.22251/jlcci.2019.19.24.335>
- Bandalos, D. L. (2018). *Measurement theory and applications for the social sciences*. Guilford.
- Gordon, E. E. (2013). *A music learning theory for newborn and young children*. GIA Publication.
- Gruhn, W. (2011). Music learning in early childhood. In R. Colwell & P. R. Webster (Eds.), *MENC handbook of research on music learning* (Vol. 2, pp. 254-289). Oxford University Press.
- Lee, Y.- S., & Luna-Bazaldua, D. A. (2019). How to conduct a study with diagnostic models. In M. von Davier & Y. -S. Lee (Eds.), *Handbook of diagnostic classification models* (pp. 525-545). Springer.
- McDonald, D. T., & Simons, G. M. (1989). *Musical growth and development: Birth through six*. Schirmer Books.
- Tatsuoka, K. K. (1983). Rule-space: An approach for dealing with misconceptions based on item response theory. *Journal of Educational Measurement*, 20, 345-354.
<http://doi.org/10.1111/j.1745-3984.1983.tb00212.x>

예비유아교사의 자원 분배 행동 양상 및 이유

Patterns and reasons for resource allocation behavior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신샘이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박사수료)

안혜정

(인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예비유아교사의 자원 분배 행동 양상 및 이유

Patterns and reasons for resource allocation behavior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신샘이(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박사수료)
안혜정(인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I. 서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 공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 중에서도 특히 젊은 세대들의 공정성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는데, 2021년 전국 대학생 의식조사(이지희, 2021. 10. 18.)에서 대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해 응답자의 48.8%가 ‘대체로 불공정하다’라고 응답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2020. 3. 26.)가 공정과 관련해 ‘2030 세대’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내용이 교육·시험·채용의 공정성에 대한 불만 제기와 개선 요청이었다. 이러한 공정성에 대한 관심, 사회의 불평등 문제에 대한 불만 제기를 통해 젊은 세대들의 공정한 사회에 대한 갈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공정성은 ‘공평하고 올바른 성질’(표준국어대사전, n.d.)이라는 뜻으로, 크게 절차 공정성과 분배 공정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자원을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하는가?”의 분배 공정성 문제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중요하게 여겨져 왔으며, 우리는 일상적으로 한정된 양의 자원을 나누는 문제를 흔히 경험하지만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Shaw & Olson, 2013) 공정한 분배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분배 공정성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 공정한 분배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3가지 핵심적인 이유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이인재, 2017; Rizzo, Elenbaas, Cooley, & Killen, 2016). 첫째는 평등(equality)으로, 자원을 같은 개수나 같은 양으로 나누는 것이고, 둘째는 업적(merit)으로, 공적에 따라 자원을 나누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필요(need)는 자원이 더 많이 필요한 사람들, 즉 불리한 상태의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

* 교신저자: ahnhj@inje.ac.kr

누어주는 것으로, 복지를 고려하는 것이다(이인재, 2017).

분배 공정성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공정한 분배가 성인들뿐 아니라 유아들에게도 중요한 관심사이며, 유아기가 분배 공정성 발달에 있어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다. 이때 유아는 분배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교사가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교사는 항상 공정성을 염두에 두고 유아에게 공정한 분배와 관련된 경험을 하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며(안예슬, 엄정애, 2021) 교사가 분배 공정성을 고려하여 유아와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교사 스스로 자신의 견해를 점검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왜 그렇게 분배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현직 교사뿐 아니라 교사 양성과정의 예비교사 또한 분배 공정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예비교사는 교사가 되기 위한 시작점이며 예비교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교사가 되었을 때의 교수 실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며(Minor, Onwuegbuzie, Witcher, & James, 2002) 예비교사 양성과정에서의 학문적 경험은 이후 교사가 되었을 때의 특정 분야나 주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에(이지연, 김혜경, 2022) 분배 공정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예비교사 양성과정에서의 교육 경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예비교사의 분배 공정성에 대한 생각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들 중 유아교사나 예비유아교사의 분배 공정성에 대한 생각을 알아본 연구는 전무하며 공정성으로 범위를 넓혀서 살펴보면 그동안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없었고, 영유아교사를 대상으로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연구들(김진아, 2016; 안예슬, 엄정애, 2021; 이지연, 김혜경, 2022; 전방실, 임승렬, 2014)이 드물게 있었다. 해당 연구들은 설문지나 참여관찰, 심층 면담을 통해 교사들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는데, 구체적인 상황을 따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측면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만 알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자 업적의 차이(노력, 결과)가 있는 3명의 인형에게 직접 자원을 분배한다는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였고 그렇게 분배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유아 대상 분배 공정성을 알아본 선행연구(신샘이, 박성주, 2022; 신샘이, 박성주, 이승연, 2022; Rizzo & Killen, 2016; Rizzo et al., 2016)에서 자원이 필수자원인지 사치자원인지에 따라 분배 행동과 그 이유의 차이가 났으므로, 예비유아교사들도 자원의 특성(필수자원, 사치자원)에 따라 분배 결정을 다르게 하는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원의 특성(필수자원, 사치자원)에 따른 예비유아교사의 분배 행동 양상과 그 이유를 알아봄으로써 예비유아교사들의 분배 공정성에 대한 생각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른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필수자원에 대한 예비유아교사들의 분배 행동 양상과 그 이유는 어떠한가?
2. 사치자원에 대한 예비유아교사들의 분배 행동 양상과 그 이유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두 대학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이며 ‘아동권리와 복지’ 과목을 수강 중인 예비유아교사 10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수업시간에 연구자가 대면으로, 혹은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3개의 인형(노력하지 않아 결과가 좋지 않은 인형(마오), 노력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은 인형(라오),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인형(바오))과 자원 6개를 보여주며 에피소드를 들려준 후, URL 설문 링크를 제공하여 3개의 인형에게 자원을 분배하도록 요청하고 분배 후 그 이유를 답하도록 했다. 자료 분석을 위해 먼저 자원의 특성에 따른 분배 행동의 양상과 그 이유를 범주화하고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분석은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실시한 뒤, 함께 모여 토의를 통해 조정하고 세밀화함으로써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Ⅲ. 연구결과

첫째, 필수자원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분배행동의 양상은 차등을 둔 분배와 동일한 개수의 분배로 나뉘었고, 분배의 이유를 살펴본 결과, 차등을 둔 분배는 업적으로, 동일한 개수의 분배는 평등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업적은 다시 ‘노력 고려’, ‘결과 고려’, ‘노력·결과 고려’로, 평등한 분배의 이유는 ‘필요 고려’로 분류되었다. 예비유아교사들의 필수자원 분배는 노력과 결과의 업적을 고려한 차등 분배가 94.2%, 평등을 고려한 동일 분배가 5.8%로 차등 분배 양상이 우세했다. 업적의 하위범주를 살펴보면, 노력·결과를 고려한 분배가 77.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노력만 고려한 분배가 10.7%, 결과만 고려한 분배가 5.8% 순으로 나타났다. 평등의 경우, 필요를 고려한 분배가 5.8%로 필수자원 분배에서 결과만 고려하여 분배한 경우와 함께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둘째, 사치자원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분배행동의 양상은 차등을 둔 분배와 동일한 개수의 분배로 나뉘었고, 분배의 이유를 살펴본 결과 차등을 둔 분배는 업적으로, 동일한 개수의 분배는 평등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업적은 다시 ‘노력 고려’, ‘결과 고려’, ‘노력·결

과 고려'로, 평등한 분배의 이유는 '공평 고려'로 분류되었다. 예비유아교사들의 사치자원 분배는 업적에 따른 차등 분배가 98.1%, 평등을 고려한 동일 분배가 1.9%로 차등 분배 양상이 우세했다. 업적의 하위범주를 살펴보면, 노력·결과를 고려한 분배가 6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노력을 고려한 분배가 18.4%, 결과를 고려한 분배가 17.5% 순으로 나타났다. 평등의 경우, 공평을 고려한 분배가 1.9%로 사치자원 분배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들의 분배 행동 양상과 분배 이유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자원의 특성(필수자원, 사치자원)에 따라 노력과 결과의 정도가 다른 3명의 인형(마오, 라오, 바오)에게 각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고, 왜 이러한 분배를 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1과 2에서 설정한 필수자원과 사치자원의 각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자원의 분배 양상과 이유에 대한 주요 결과 및 두 자원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예비유아교사들이 필수자원과 사치자원을 분배할 때, 두 자원 모두 노력과 결과의 정도가 다른 3명의 인형에게 차등 분배 비율(필수자원: 94.2%, 사치자원: 98.1%)이 동일 분배 비율(필수자원: 5.8%, 사치자원: 1.9%)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같은 실험내용의 유아 대상 연구(박성주 등, 2021; 신샘이, 박성주, 2022)와 비교해보았을 때, 유아들은 필수자원과 사치자원 모두 동일 분배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으나 유아들의 연령이 올라갈수록 차등 분배 비율이 높아졌다. 본 연구에서 예비유아교사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차등 분배 양상은 분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적이라는 이유를 고려하는 것으로 분배 행동의 발달적 경로를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필수자원과 사치자원의 차등 분배 유형은 6가지(0, 3, 3 / 0, 0, 6 / 1, 1, 4 / 1, 2, 3 / 0, 2, 4 / 0, 1, 5)로 나타났다. 이렇게 다양한 차등 분배 유형이 나타난 것은 자원 분배 시 개인마다 나름의 준거를 사용하여 의사결정을 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동일 분배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지만, 필수자원의 동일 분배 비율은 5.8%, 사치자원은 1.9%로 필수자원이 사치자원보다 약 3배 정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분배행동의 이유와 함께 살펴보았을 때, 예비유아교사들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원(필수자원)과 없다고 생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자원(사치자원)을 구분하여 분배를 결정했음을 보여준다.

둘째, 예비유아교사들의 분배 이유는 필수자원과 사치자원 모두 공통적으로 업적을 고려

한 경우가 평등을 고려한 경우보다 높았고, 업적 중에서는 ‘노력·결과 고려’ 분배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노력 고려’ 분배, ‘결과 고려’ 분배 순으로 나타났다. 분배 시 노력과 결과를 함께 고려했다는 것은 업적을 고려할 때도 하나의 준거가 아닌 다양한 준거를 동시에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의 예비유아교사들이 응답한 분배 이유를 종합하면, 업적을 매우 중요한 분배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그동안의 선행연구들(박성주 등, 2021; 신샘이 등, 2022; 한진수, 2011, 2014; Forsythe et al., 1994)에서는 타인을 고려하는 이타적 행동에 대한 결과를 많이 볼 수 있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업적의 차이에 집중하여 분배하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노력과 결과라는 업적의 차이를 부각했기 때문일 수 있다. 즉 연구의 설계에 따라서 분배 시 고려하는 측면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비유아교사들에게 보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분배 공정성에 대해 고려해보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연구들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비유아교사들이 분배 행동의 이유로 업적을 고려한 비율이 높았던 것은 유아들에 비해 경쟁의 경험을 상대적으로 많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상황 때문일 수도 있다. 능력과 경쟁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권리, 기회를 더욱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인성 교육, 협력, 배려들이 유아교육현장에서 유아들에게 가르쳐야 할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지도할 예비유아교사들을 위해서도 업적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고려, 복지 등 타인의 처지, 공동체 안에서의 협력 등 보다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교육(성열관, 2021)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그동안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예비유아교사의 분배 공정성에 대한 생각을 알아봄으로써 예비유아교사양성과정에서 어떻게 분배 공정성을 다뤄야 할지 교사 교육자들의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는 예비교사들이 현실 상황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볼 수 있도록 다양한 분배 행동의 양상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의의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분배 공정성 연구에 있어서도 예비유아교사의 분배 공정성을 탐구하는 데 있어 보다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연구 설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민권익위원회(2020. 3. 26.). ‘교육·채용 등 불공정’ 청년의 목소리 들어 정책으로 실현한다. 보도 자료.

- 김진아(2016). 유아교사의 공정성에 대한 이미지 연구: Q방법론적 접근.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주, 신샘이, 이승연(2021). 필수자원에 대한 유아의 분배 행동 양상 및 이유. *어린이미디어연구*, 20(3), 81-101. <https://doi.org/10.21183/kjcm.2021.09.20.3.81>
- 성열관(2021). 고등학생들의 분배정의 추론: 인정과 재분배. *교육학연구*, 59(4) 63-92. <http://dx.doi.org/10.30916/KERA.59.4.63>
- 신샘이, 박성주(2022). 사치자원에 대한 유아의 분배 행동 양상 및 이유. *영유아교육: 이론과 실천*, 7(2), 61-80. <https://doi.org/10.20926/ETPIYC.2022.7.2.3>
- 신샘이, 박성주, 이승연(2022). 자원의 특성과 개수에 따른 만 6세 유아의 분배결정 양상 및 차이. *육아지원연구*, 17(2), 81-99. <https://doi.org/10.16978/ecec.2022.17.2.004>
- 안예슬, 엄정애(2021). 유치원 교사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및 학급에서의 경험. *한국교원교육연구*, 38(2), 109-138. <http://dx.doi.org/10.24211/tjkte.2021.38.2.109>
- 이인재(2017). 자원 분배의 공정성에 대한 아동의 관점 연구. *한국철학논집*, 55, 340-373.
- 이지연, 김혜경(2022). 사회정의에 대한 보육교사의 관심과 태도 연구. *영유아교육: 이론과 실천*, 7(3), 95-123. <http://dx.doi.org/10.20926/ETPIYC.2022.7.3.4>
- 이지희(2021. 10. 18). [창간33주년 대학생 의식조사] 부동산 투기 등 “한국 사회 불공정”… 메타버스 관심도 ↑. *한국대학신문*. <https://news.unn.net/>에서 인출.
- 전방실, 임승렬(2013). 자유선택활동에서 나타나는 유아공정성에 관한 연구.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7(3), 76-100.
- 표준국어대사전 (n.d.). 공정성. <http://stdict.korean.go.kr>에서 인출.
- 한진수(2011). 최종 제안 게임에서 어린이와 어른의 선택. *한국경제연구*, 29(2), 51-80.
- 한진수(2014). 독재자 게임을 통해 본 대학생들의 선택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제교육연구*, 21(2), 59-83.
- Forsythe, R., Horowitz, J. L., Savin, N. E., & Sefton, M. (1994). Fairness in simple bargaining experiments. *Games and Economic Behavior*, 6(3), 347-369.
- Minor, L. C., Onwuegbuzie, A. J., Witcher, A. E., & James, T. L. (2002). Preservice teachers educational beliefs and their perceptions of characteristics of effective teacher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96(2), 116-127.
- Rizzo, M. T., Elenbaas, L., Cooley, S., & Killen, M. (2016). Children's recognition of fairness and other's welfare in a resource allocation task: Age related changes. *Developmental Psychology*, 52(8), 1307-1317. <https://doi.org/10.1037/dev0000134>
- Rizzo, M. T., & Killen, M. (2016). Children's understanding of equity in the context of inequality. *The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34, 569-581. <https://doi.org/10.1111/bjdp.12150>
- Shaw, A., & Olson, K. R. (2012). Children discard a resource to avoid inequit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141(2), 382-395. <https://doi.org/10.1037/a0025907>

유아의 의사결정권이 존중되는 교실문화 형성에 대한 교사의 경험 탐색

An exploration of early childhood teachers' experiences of creating a
classroom culture that supports children's decision-making rights

이선미

(사이언스신성어린이집 보육교사)

이진화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유아의 의사결정권이 존중되는 교실문화 형성에 대한 교사의 경험 탐색*

An exploration of early childhood teachers' experiences of
creating a classroom culture that supports children's decision-making rights

이선미(사이언스신성어린이집 보육교사)**

이진화(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I. 서론

유아는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에서 다양한 형태의 참여를 경험한다. 가족구성원과 또래 관계에서의 구성원 등으로 능동적 혹은 수동적인 위치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참여를 경험한다. 유아의 참여 경험에서 가장 강력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의사결정권이다. 의사결정이라 함은 행정학적 용어로 개인이나 조직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안을 모색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을 선택 및 결정하는 과정(이종수, 2009)이다. 의사결정은 어떠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합리적인 사고 과정을 거쳐 대안을 생각하고 여러 대안 중 가장 합리적이고 적합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유아기에 중요한 이유는 유아 스스로 자기주도적인 역량을 함양시키고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며 민주시민, 아동권리를 발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소속된 사회에서 상호작용을 위한 행동과 기술을 익히는 여러 과정 속에서 문제 상황에 직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복합적인 인지과정을 거쳐 스스로 생각하기에 만족스러운 수준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Simon 1956; 김민영, 손영우, 박수애, 2005에서 재인용) 경험을 통해서 사회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유아의 의사결정에 대한 일련의 연구에서 유아는 삶과 연관된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교육을 통해 자신의 유능함을 드러내고(이해민, 2021), 이러한 유능함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과정으로 연결되면서 주도

* 본 논문은 2022년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 zziz-z@kakao.com

성이 신장하고, 성취감과 자아존중감 등 사회적 능력의 함양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김성희, 안효진, 2020; 박지영, 2012; 배수나, 권귀염, 2020). 그러므로 유아기는 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여야 하고, 또한 이를 계발하기 적합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이 유아의 의사결정권을 실행하고 연습하는 교실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개인과 개인이 모여 있다는 측면에서 교실은 다원성을 기반으로 한 소통과 공감의 이루어지는 공간이다(김지연, 2022). 교사의 권위가 앞서고, 유아를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관점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2019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위한 유아교실은 유아가 스스로 놀이를 주도하고, 놀이하듯 배울 수 있도록 지원(임부연, 손연주, 2019)하는 형태를 지향한다. 유아는 교실에서 놀이하고 또래, 교사와 함께 어우러져 고민하고 논의하며,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경험의 과정 속에서 교사와 유아, 유아와 유아는 소통을 통해 풍부한 또래 문화가 발생하며 이러한 문화는 교실문화에도 강한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임부연, 김성숙, 2010).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가지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의 가장 강력한 참여권 중 하나인 의사결정권이 존중되는 교실문화는 어떠한지, 또한 유아의 의사결정권이 존중되는 교실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교사의 노력을 이해하기 위해 집단면담의 과정에서 교사들이 각자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해보며 유아 의사결정권이 존중되는 교실문화 형성을 위한 의미를 찾아 보려한다. 이를 통해 얻게 되는 본 연구 결과는 유아의 의사결정권이 존중되는 역동성 있는 교실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교사들에게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교사들이 경험한 유아의 의사결정권이 존중되는 교실문화는 어떠한가?
2. 유아의 의사결정권이 존중받는 교실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어려움은 무엇이며 교사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보를 얻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로 진행하였다. D광역시 어린이집 만 4, 5세 유아반 운영을 최소 1년 이상 경험한 만 4, 5세 유아반 교사 12인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동질성을 고려하여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연차를 고려해 6명씩 두 그룹으로 나누어 고경력 교사와 저경력 교사 그룹으로 구성하였다. 연구기간은

2022년 6월 22일~9월 23일까지 진행되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전 예비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후 그룹별 각 2회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각 회당 90분~100분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포커스 인터뷰 진행 내용은 녹음과 메모로 기록하여 자료를 모았으며, 자료 분석 중 불분명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메시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 시 녹음 본을 전사한 자료와 함께 메시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전사한 자료는 경력별 생각의 차이를 보고자 경력별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범주화를 실시하였으며 범주의 타당성을 위해 유아교육과 교수 1인로부터 자료를 검토 받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내용을 객관화 하였다. 연구 결과에 기술되는 사례는 연구 참여자의 확인을 받아 참여자의 견해가 일치하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자료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는 배재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의 윤리성 검증을 승인받았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유아의 의사결정권이 존중되기 위한 교실 문화 형성에 대한 공통된 교사의 인식으로 교사들은 유아가 자신의 의사결정권에 대해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의사결정권을 스스로 누리고 있음을 경험하였으며 의사결정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닌 항상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유아는 놀이에 몰입하며 자신의 놀이를 주도하고 자신의 의사결정권이 반영된 놀이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교사 또한 유아의 놀이 몰입으로 인해 행복감과 즐거움을 함께 경험할 수 있음을 나타냈다.

유아의 의사결정권이 존중되는 교실문화 형성의 어려움으로는 유아교육 기관에서 만들어진 약속과 유아의 의사결정권의 대립으로 인한 어려움과 많은 업무와 업무로 인한 체력 소진으로 인한 유아의 의사결정권이 제한되어 유아가 의사결정권을 존중 받지 못했던 경험을 어려움을 표현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유아의 의사결정권이 존중되는 교실문화 형성을 위해 교사와 유아뿐만 아니라 부모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부모의 영향으로 유아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더 어렵게 하고 있음을 이야기 하였다.

유아의 의사결정권이 존중되는 교실문화 형성을 위해 필요한 노력으로는 고경력과 저경력 교사 모두 공통으로 유아는 의사결정권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함께 유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여 민주적인 교실로 운영하기 위한 교사의 역량을 갖춰야 함을 이야기 하였다. 또한 교실이라는 공동체에서 자신의 의사결정권에 대해 이해하고 유아의 발달 능력과 수준에 따른 충분한 의사결정 연습과 유아의 의사표현에 대한 교사의 경청, 교사와

부모의 일관성 있는 믿음과 지원이 유아의 의사결정권이 존중되는 교실문화 형성을 위한 바탕이 되므로 노력해함을 나타냈다.

유아의 의사결정권이 존중되기 위한 교실 문화 형성을 위한 교사들의 경험이 경력별로 다소 달랐는데, 고경력 교사들은 유아가 자신의 의사를 최종 결정할 때 교사에게 허락을 구하는 모습을 보며 의사결정권이 실제 유아에게 주어져 능동적으로 이뤄지는 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의사결정권에 소극적인 유아들로 하여금 의사결정권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줘야 하는 가에 대한 갈등이 공유되었다. 또한 유아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권의 범위 혹은 영역에서도 안전과 같은 영역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토로하였다. 반면에 저경력 교사들의 집단면담에서는 의사결정에 적극적인 유아들이 스스로 결정한 일을 실행하며 교사가 예상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을 발생시키는 상황과 유아의 의사결정권을 실현함에 따라 겪게 된 경험과 상반된 교사의 철학, 기관의 약속과 같이 바꾸기 어려운 것에 대한 갈등에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I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주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의사결정권이 존중되는 교실문화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으로 교사들은 유아의 의사결정권에 대해 생활 속에서 알려주지 않고도 매일 누리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했다. 또한 유아는 놀이의 몰입을 통해 유아가 의사결정권을 누리게 되어 교사와 유아 모두 행복하고 즐거워함을 볼 수 있었다. 둘째, 유아의 의사결정권이 존중되는 교실문화 형성을 만들기 위한 교사들의 공통적인 어려움으로는 유아교육기관에서 만들어진 약속과 유아의 의사결정권의 대립으로 인한 어려움과 교사들의 많은 업무, 업무로 인한 체력소진으로 유아의 의사결정권이 제한되는 어려움, 부모참여의 영향 등이 어려운 점으로 토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의사결정권이 존중되는 교실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교사들의 공통된 노력으로는 의사결정권을 누릴 수 있는 유아의 충분한 역량과 유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여 민주적인 교실로 운영하기 위한 교사의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나타냈다. 또한 유아의 발달 능력 및 수준에 따른 의사결정 연습과 유아의 의사표현에 대한 교사의 경청, 일관성 있는 지원을 위한 부모의 역할도 크게 작용한다고 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고경력 교사와 저경력 교사의 각 집단별로 포커스면담이 이루어져서 교사들 간의 인식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토대로 유아의 의사결정권이 존중되는 교실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의사결정권 신장은 교실의 여러 문제를 교사와 유아가 함께 결정하여, 유아는 자신의 의사가 반영된 교실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둘째, 유아는 의사결정권을 누릴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이를 신장시킬 수 있는 교사의 역량이 계발이 필요하다. 특히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중심 교육과정으로 인해 많은 놀이상황에서 유아의 의사결정 기회가 발생하므로 교사는 이를 관찰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하겠다. 셋째, 유아는 성인의 도움과 보호를 받는 존재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유아 스스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라는 시각으로 적극적인 전환이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유아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실문화는 교사와 유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영향도 크게 있으므로 유아의 의사결정권을 이해하고 실행하도록 돕는 부모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참고문헌

- 김민영, 손영우, 박수애(2005). 의사결정의 판단기준과 정보 선택에 있어서 경험과 맥락의 영향-조 중사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8(2), 225-246.
- 김성희, 안효진(2020). 만 5세반 유아의 일상 상호작용을 통해 바라본 민주시민 되어가기. *유아교육 연구*, 40(2), 155-181.
- 김지연(2022). 유아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지영(2012). 유아 의사결정력과 자기주도 학습능력 간의 관계 연구. *아동학회지*, 33(6), 71-84.
- 배수나, 권귀엽(2020). 유아참여권 증진을 위한 학습회의 경험: 어려움과 혼란 그리고 작은 희망의 기록. *육아지원연구*, 15(2), 25-53.
- 이종수(2009). *행정학사전*. 대영문화사
- 임부연, 김성숙(2010). 유아교실문화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5(5), 315-340.
- 임부연, 손연수(2019). 유아교육과정의 맥락 속에서 살펴본 '놀이', '배움'의 의미. *학습자중심교과교육 연구*, 19(3), 265-287.

유아교육에 적용된 메타버스 기술의 국내외 동향분석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ends in metaverse technology
applied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신원애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신학과 기독교유아교육전공 박사)

유아교육에 적용된 메타버스 기술의 국내외 동향분석*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ends in metaverse technology
applied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신원애(충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신학과 기독교유아교육전공 박사)**

I. 서론

메타버스(Metaverse)가 실제 세상의 상당부분을 대체할 것이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Emergen Research(2021)는 세계 메타버스 시장규모는 2028년 한화 약 982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한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세계와 실제 세계의 융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Covid-19로 인해 메타버스 시장 수익이 늘어날 것’이라며, ‘교육산업을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필요성이 커지면서 시장의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매일경제, 2022. 11. 10).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따라 2022년 1월, 정부는 오는 2026년에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점유율 5위 달성을 목표로 ‘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 가치 서비스 발굴 등 메타버스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모범적인 메타버스 세상을 펼쳐갈 방침이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 01. 20.). 이에 교육부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구축하고 메타버스를 교육적으로 활용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여 학습자의 흥미유발과 더불어 배움을 심화하고 경험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김시우, 김시혜, 2021). 메타버스는 가상공간과 현실을 융합하는 형태로, 교육현장에서 오프라인 교수 학습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에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교육사례의 시도와 효과적인 교육 사례들이 도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최신 동향은 메타버스가 유아교육 적용 가능성의 전제조건으로서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시가 공동주최하는 2021 서울 혁신교육 컨퍼런스에서는 AI 기반 융합교육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위해 단계별·체계별 미래형 교육과정을 논하였다. 여기에서 유치원

* 202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연구번호: NRF-2022S1A5B5A16051929)

** 교신저자: ladymuse@nate.com

교육과정은 AI를 삶의 일부로 인식·활용하는 AI 체험중심 2019 개정 누리과정 연계 유아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고 공론화하였다(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2022).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과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등의 움직임이 있는 3차원 모델의 시각화는 생명체적인 실재감을 제공하여, 몰입론(Animism)적 사고를 하는 전조작기 유아들에게 학습효과를 증진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배희경, 2020). 또한 Dewey(1972)는 생활경험적 관점에서 교육이란 생활이며, 성장이고, 사회적 과정이자 계속적인 경험의 재구성이라 하였다. 이는 유아교육에서 가상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라는 교육적 시도가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교과로서의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교육적 의미를 갖추고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메타버스의 개념을 파악하고 현 상황을 분석하였다. 둘째, 국내외 유아교육에 적용된 메타버스 기술의 활용 실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학술자료들을 수집한 후 동향분석을 실시하였다.

II. 메타버스

1. 메타버스의 개념

메타버스(metaverse)는 초월, 상위'를 의미하는 '메타(meta)', 그리고 '우주, 세상, 현실 세계'를 의미하고 있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서, 1992년 미국의 SF소설가 닐 스티븐스(Neil Stephenson)이 발표한 '소노 크래시(Snow Crash, 1992)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메타버스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하나 이상의 가상세계로 구성된 우주이며, 물리적으로 가지 않고도 탐험할 수 있는 가상의 세계이자 이전의 가상현실, 증강현실보다 확장된 개념이다. 따라서 메타버스는 가상세계가 현실세계에 흡수된 형태로 이전의 가상세계에서 더 진보하여 사용자가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확장된 의미를 갖는다. 메타버스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정의가 제각각이지만, 최근 교육분야에서 계보경 외(2021)는 메타버스 활용교육 전문가집단 델파이조사를 진행하여 "메타버스는 현실과 융합된 가상의 공간에서, 사용자들이 아바타 등을 통해 상호작용하고, 사회·경제적 가치를 생산·소비하여 자신의 삶을 확장하는 또 다른 세상"이라고 정의하였다. 2006년 미국 ASF에서는 메타버스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메타버스의 유형을 4가지,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거울세계(MR: Mixed Reality), 라이프로그(Lifelogging)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메타버스는 사람들이 연결하는 소통방식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변

경해 나가고 있다. 이는 메타버스가 양방향이라는 특징을 가지며(이시한, 2021), 대화, 게임뿐만 아니라 업무수행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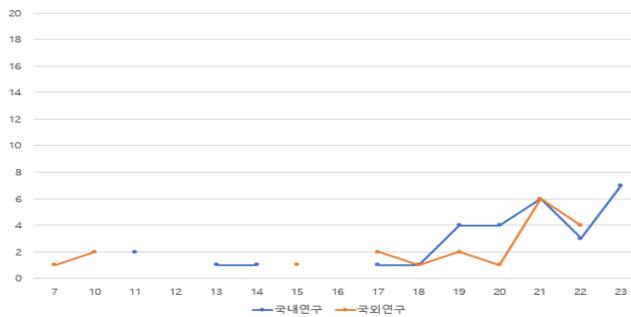
2.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유아교육 사례

줌(Zoom)방식에 의한 교육훈련의 보완책으로 등장한 메타버스형 비대면 교육은 유아교육에서도 그 활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인공지능(AI)를 접목한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이 다양해졌으며, 유아를 위한 체험형 공간인 서울상상나라는 2021년부터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ZEPETO)내에 가상공간인 ‘메타상상나라’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22년 11월, 국립중앙박물관은 메타버스 어린이박물관을 제페토에 공개하고, 시공간의 제약없이 어린이박물관의 콘텐츠를 즐기도록 제공하고 있다.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교구의 자유로운 사용이며(이시한, 2021), 놀이와 경험을 중요시하는 세대를 위한 에듀테크(신정민, 김상연, 2023)로 가능하다는 점이다. 메타버스 콘텐츠는 현장학습 체험 콘텐츠와 B2B형태로 지원하는 태블릿을 활용한 교구플랫폼이 상용화되고 있어 메타버스의 활용은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활성화될 전망이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유아 이상의 학습자로 하여금 백악관을 메타버스 공간으로 초대하는 체험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VR을 활용한 Digital Dinos 프로그램으로 수중공룡과 함께 수영하는 등 메타버스 체험형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3. 메타버스 기술 적용 연구분석

메타버스 기술을 적용한 유아교육과 관련한 국내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학술지인용색인(<http://riss.kr>, 이하 ‘RISS’로 표기)에서 국내 석박사논문 및 학술지를 범주로 하여 제목, 초록 등 검색조건을 활용해 ‘메타버스(Metaverse)’,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거울세계(Mixed Reality)’, ‘라이프로깅(Lifeloggng)’, ‘유아(Early Childhood, Kindergarten)’, ‘보육(Childcare)’ 산출된 자료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다음으로 메타버스 기술을 적용한 유아교육과 관련한 국외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Educational Resource Information Center(이하 ‘Eric’로 표기) 사이트에서 제목, 초록 등 검색조건을 활용해 ‘Metaverse’, ‘Virtual Reality’, ‘Augmented Reality’, ‘Mixed Reality’, ‘Lifeloggng’, ‘Early Childhood’, ‘Kindergarten’, ‘Childcare’, ‘(Preschool) Children’, ‘Preschool Education’, 산출된 자료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후 RISS, ERIC에서 수집한 국내 학

술논문을 국내외 논문을 구분하여 제목, 주제어, 초록, 저자명, 발행연도, 학술지명 등의 텍스트 자료를 Microsoft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하나의 파일로 취합하였다. Microsoft Excel 프로그램의 필터링 과정으로 제목, 주제어, 초록을 비교 검토하면서 중복데이터와 유아교육과 무관한 내용의 자료, 프로그램 실행이 아닌 자료, 학술대회 관련 자료와 연구 보고서들을 제거하였다. 필터링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 자료의 수는 국내 학술지 논문 19편과 학위논문 13편(석사 10편, 박사 3편), 총 32편, 국외 학술지 논문 총 20편이다. 이를 바탕으로 유아교육에 적용된 메타버스 기술의 국내외 동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 1 >

		영아		유아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만 4, 5세
국내	학술지	2(10.5)	0(0.0)	1(5.3)	12(63.2)	4(21.2)
	학위논문	1(7.7)	0(0.0)	3(23.1)	9(69.2)	0(0.0)
국외 학술지		0(0.0)	0(0.0)	1(5.0)	15(75.0)	4(20.0)

< 2 >

국내		일반유아	장애유아
		학술지	17(89.5)
학위논문		13(100.0)	0
국외 학술지		16(80.0)	4(20.0)

* 지면관계상 그림, 표 해석은 생략함

< 3>

		VR	AR	MR	Lifelogging	혼합
국내	학술지	1(5.3)	13(68.4)	0	0	5(26.3)
	학위논문	0	9(69.2)	0	0	4(30.8)
국외 학술지		6(30.0)	9(45.0)	0	0	5(25.0)

< 4>

		언어	미술	신체	음악	안전	자연/ 체험	수학	창의	사회
국 내	학술지	9(47.4)	0(0.0)	3(15.8)	1(5.3)	1(5.3)	1(5.3)	0(0.0)	2(10.5)	2(10.5)
	학위 논문	4(30.8)	0(0.0)	2(15.4)	0(0.0)	0(0.0)	1(7.7)	0(0.0)	3(23.1)	3(23.1)
국외 학술지		4(20.0)	2(10.0)	3(14.0)	0(0.0)	0(0.0)	4(20.0)	1(5.0)	5(25.0)	3(15.0)

Ⅲ. 결론

본 연구의 결과 첫째, 유아교육에서 메타버스는 시작점에 있다. 하지만 메타버스의 교육적 잠재력을 고려할 때, 유아에게 메타버스를 활용한다는 것은 보다 효과적인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아교육 관련 분야 및 전문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유아교육에 적용된 메타버스 기술의 국내외 동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는 국외보다 늦게 출발하였지만, 연구의 속도는 꾸준히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교육분야의 메타버스 연구에 비해 유아교육 관련한 메타버스 연구는 미비하다. 메타버스를 유아교육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발전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유아교육현장에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연구를 적용하여 메타버스에 관한 증거에 기반한 접근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시우, 김시혜(2022). 메타버스 기반 다문화 요리 교육을 통한 문화이해프로그램 설계. 한국컴퓨터 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6(1), 99-101.
- 계보경, 한나라, 김은지, 박연정, 조소영(2021). 메타버스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과 한계. 2021 KERIS 이슈리포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2. 01. 20). 2026년 메타버스 시장점유율 5위...“전문가 4만명. 공급기업

- 220개로”: 20일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발표.. 인공지능·블록체인 등 중점투자.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8285>, 2022년 2월 15일 인출.
- 매일경제(2021). Korea joins the buzz over metaverse with M&A activities picking up("1000兆 시장 올라타자"…메타버스 M&A 뭉치듯). <https://www.mk.co.kr/premium/print/31062/> 2022년 2월 19일 인출
- 배회경(2023). 메타버스 기반의 가상체험놀이교육이 유아의 창의성과 놀이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송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2021). 서울형 메타버스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서교연2022-24). 서울교육정책연구소.
- 신정민, 김상연(2023). 메타버스,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미래형 에듀테크. *정보과학회지*, 40(4), 21-30.
- 이시한(2021). 메타버스의 시대. 다산북스.
- Dewey, J. (1972). *My pedagogic creed, John Dewey: The Early Works*.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지정특강

건강한 연구를 위한 실천적 노력

이진화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건강한 연구를 위한 실천적 노력

이진화(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순서

연구윤리와 연구부정행위

연구윤리와 이해충돌

참고문헌

연구윤리와 연구부정행위

연구윤리정의*

- 연구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양식*
- 연구자가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알고 실천해야 할 가치나 규범**

* 한국학자지원학회 2022년 춘계 학술대회 사정특강 '건강한 연구를 위한 실천적 노력'에서 발제
(출처: *한국연구재단 www.nrf.re.kr, 웹툰공간 - 정혜마담-연구윤리, 2021.10.18일 인용
** 한국연구재단, 이요병 외(2019), 산전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 실천요령, p. 11)

연구윤리 법적 근거

- 법령** □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연구부정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12. 22.>
1. 연구자로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지지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그 밖에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교육부장관은 학술진동률 방제하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원(이하 "연구윤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2. 22., 2021. 3. 23.>
 4.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12. 22.>
 5. 대학원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2. 22.>
 6. 제2항에 따른 연구윤리지침의 작성, 제3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 및 제4항에 따른 대학원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학술진흥법, 제 15조, 2023. 4. 24일 인출

학술진흥법 시행령 15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15조 2(연구윤리 지침의 작성 등), 16조(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원, 제 17조(대학 등의 조치)

- 법령** □ 제15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여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2. 자신이 다른 연구자·대학원에 대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의 검증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危害)를 가하는 행위
 3.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윤리 법규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법조신설 2022. 11. 8.]
[출전 제15조는 제15조의2로 이동 <2022. 11. 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학술진흥법 시행령 15조, 2023. 4. 24일 인출

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 제안, 수행, 결과 발표 전 과정을 포함함

논문, 보고서, 계획서, 연구 중 작성된 연구노트, 학회 발표 자료, 포스터 모두 해당

출처: 김옥주 등 (2022). 연구윤리: 방해꾼인가, 친구인가, 6-7쪽, 한국연구재단

-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 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 등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 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② 대학 등의 장은 이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 지침에 포함시킬 수 있음.

출처: 교육부, 한국연구재단(2015).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55쪽
 김옥주 등 (2022). 연구윤리: 방해꾼인가, 친구인가, 7-8쪽, 한국연구재단
 2022 한국육이지원학의 순계학술대의 지원특강 '건강한 연구를 위한 실천적 노력' 의 내용, 발췌보완

연구부정행위(research misconduct)는 고의적이거나 부주의에 의한 것이든지 간에,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연구행위에 대해 적절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연구제안과 관련해서 기만하는 경우
연구대상들과의 관계처럼 연구행위에서 비윤리적 행위	비밀유지목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좋은 연구 수행으로부터 이탈, 이 결과로 인해 인간, 다른 동물 또는 환경에 대해 예기치 못한 위해의 위험이 발생	위조, 변조 또는 연구 데이터의 조작
예상된 결과들에 적합하지 않은 데이터의 삭제 또는 왜곡을 통해 연구 결과들을 왜곡하는 행위	결과들에 대해 부정직한 오역
거짓 또는 잘못된 것으로 알려진 또는 확인된 데이터의 출판	표절, 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자료들에 대한 부정직한 사용
다른 저자들의 잘못된 인용 또는 잘못 표기	부적절한 저자 표시
연구 기금 또는 연구 설비의 사기 또는 악용	연구부정행위를 시도, 계획 또는 공모하는 행위
다른 사람들을 자극해서 연구부정행위에 관련되게 하는 행위	타인을 통한 연구부정행위 공모 또는 은폐

출처: 교육부, 한국연구재단(2015).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59쪽

연구부정행위를 하면 안되는 이유는.....

- 후속연구자의 열정, 자원과 노력, 시간을 소비하게 한다
- 연구활동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켜 연구에 대한 사회의 지지 기반을 무너뜨린다.
- 필수관계인 연구참여자 부당 저자 표시 등과 같은 이해 충돌
- 연구자로서의 경력에 중지부를 찍힐 수 있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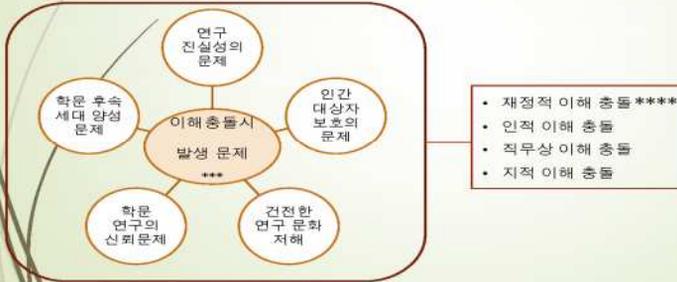
좋은 연구는 책임 있는 연구이다.

출처: 김옥주 등 (2022). 연구윤리: 방해꾼인가, 친구인가, 한국연구재단, 13-14쪽

연구윤리와 이해충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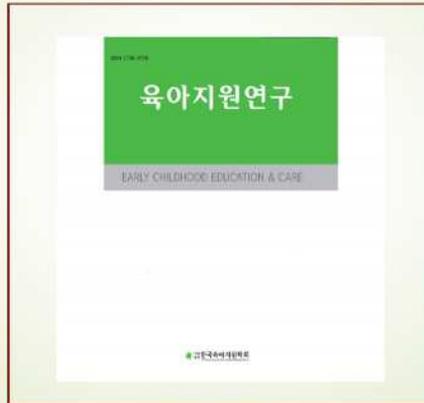
- 전문분야에서 연구의 타당성이나 환자의 치료와 같은 일차적 이해(primary interest)에 관한 전문적 판단이 개인의 사적 이익이나 재정적 이득과 같은 이차적 이해(Secondary interest)에 의해 부당하게 영향을 받는 조건을 말함*
- 이해충돌이란 제 3자가 보기에 연구자의 연구 및 교육 활동이 본연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해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함**

출처: *김옥주 등 (2022). 연구윤리: 방혜문인기, 한국연구재단, 33쪽
 ** 이효빈, 조진호, 임화심(2022). 대학 연구자를 위한 이해충돌예방 길잡이 14쪽, 한국연구재단,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출처: ***이효빈, 조진호, 임화심(2022). 대학 연구자를 위한 이해충돌예방 길잡이, 10-11쪽, 한국연구재단, 대학연구윤리협의회.
 **** 이효빈 등(2022). 대학 연구자를 위한 이해충돌예방 길잡이, 15쪽, 한국연구재단,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원문: 한국연구재단, 이효빈 외(2019). 신진연구자를 위한 연구 윤리 37-38쪽, 30쪽)

육아지원연구 "연구윤리" 이해충돌 규정 찾아보기



한국육아지원학회 <http://www.edukid.org>, 이해충돌 관련 규정, 2023. 4. 24일 인출

❖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학술진흥법, 2023. 4. 24일 인출

교육부, 한국연구재단(2015),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김옥주, 권오만, 김규민, 방은화, 손보미, 이규연, 전주홍, 조진호, 최형섭(2022), 연구윤리: 방해꾼인가, 친구인가?, 한국연구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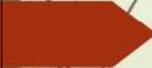
이효빈, 조진호, 명창섭(2022), 대학 연구자를 위한 이해충돌예방 지침서, 한국연구재단, 대학연구윤리협의회

한국연구재단 www.nrf.re.kr, 알뜰공간 - 정책마당-연구윤리, 2021.10.18일 인출

한국연구재단, 이효빈 외(2019), 신진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 첫걸음

한국교육자지원학회 <http://www.edukid.org>.

한국교육자지원학회 2022년 춘계학술대회 지정특강 '경감한 연구를 위한 실천적 노력'의 일부 내용 발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스터 논문발표

1. 아동학대 관련 정책과 유아교육에서의 시사점
강민지(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2.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을 통해 살펴본 아동안전정책의 시사점
하지연(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석사과정)
3. 예비유아교사와 예비특수교사의 세계시민성과 세계시민역량 비교
권미은(남부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4. 아동수당제도 도입 현황과 시사점: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황민지(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석사과정)
5. 만 5세 유아 메이커 교육 기반 놀이에서의 교육적 의미 탐구
주가람(강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유치원 교사)
박희숙(강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6. 지방 중소도시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학생 의식 조사 연구
박주희(국립안동대학교 아동·사회복지학과 교수)

아동학대 관련 정책과 유아교육에의 시사점

Child abuse policy and implication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강민지(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의 아동학대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유아교육에서의 시사점을 모색하여,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논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유아는 ‘유엔아동권리 협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 주체이며, 국가는 모든 형태의 학대로부터 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관련 정책을 살펴본 결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의 아동 징계권 삭제 등과 같은 입법적 조치를 시작으로, 아동학대 예방본부로 ‘아동권리보장원’의 신설,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공공화 선포,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발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배치, 각종 현황에 대한 정기적 조사 실시 등의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아동학대 정책을 예방적 차원과 대응적 차원으로 나누어 모색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정책, 지원 등이 증가한 것에 비하여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줄어들기보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 아동의 발견율도 해외에 비하여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에 유아교육에서도 아동학대 근절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각적 노력과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아동학대의 특징을 기반으로 유아교육기관에서도 예방적 차원과 대응적 차원으로 나누어진 세밀하고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개입에 있어서 유아교육기관의 주체적 역할 모색과 실천이 필요하다. 셋째, 유아교육의 차원을 시작으로 전국민적인 관심과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육 내에서 꾸준한 논의와 관련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 교신저자: 218830@ewhain.net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을 통해 살펴본 아동안전정책의 시사점

Implications for child safety policy examined through
'Child Safety Accident Prevention Project'

하지연(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석사과정)*

본 연구는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의 정부별 추진 방향과 관련 아동안전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었으며, 이를 위해 정부별 관련 사업과 정책을 분석하였다. 가장 먼저 노무현 정부에서 2003년에 '어린이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한 이후, 2007년부터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이 도입·시행되고 있는데, 본 사업은 아동·부모·교사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대응능력을 향상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사업의 수행과 '어린이안전종합대책'의 발표가 이어지고 있으나, 각 정부에 따라 강조하는 아동안전정책이 변화하고 사업의 방향성도 변화해오고 있다. 하지만 '안전'이라는 가치는 정권의 교체나 정책의 변화와 관계없이 보편적이며 일관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UN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아동의 기본권 중 '생존권'을 보장하여, 아동이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가는 등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UN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3번 목표에서도 아동의 안전에 대한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의 생존과 안전에 대한 가치는 영유아의 권리 및 복지, 안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그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법과 제도, 정책,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영유아의 권리 및 복지,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 등에 따라 그 방향성을 합의하고, 일관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교신저자: mibida0085@naver.com

예비유아교사와 예비특수교사의 세계시민성과 세계시민역량 비교

Comparison of global citizenship and global citizenship competence betwee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pre-service special education teachers

권미은(남부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와 예비특수교사 간 세계시민성과 세계시민역량을 비교분석한 연구로, 대상자의 배경변인(학년, 성별, 세계시민활동 경험유무, 세계시민교육 수강 경험유무)에 따라 세계시민성과 세계시민역량에 차이가 있는지, 세계시민성과 세계시민역량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G시 소재의 4개 대학교의 특수교육과 학생 105명, 유아교육과 학생 120명 총 2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예비유아교사와 예비특수교사의 세계시민역량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세계시민성($t=-3.941$, $p<.001$)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계시민성 하위요인에서는 지식($t=-3.941$,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배경변인에 따라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예비유아교사와 예비특수교사의 세계시민성은 전공($F=8.583$, $p<.01$)과 학년($F=2.708$, $p<.05$)에 따라, 세계시민역량은 전공($F=4.757$, $p<.05$)과 성별($F=5.601$, $p<.05$)에서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비유아교사와 예비특수교사의 세계시민성과 세계시민역량 간의 관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원양성기관 담당자들이 대학 내 예비교사들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을 제공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나아가 예비교사의 전공 및 학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교신처 : mieunfox@nambu.ac.kr

아동수당제도 도입 현황과 시사점: OECD 국가를 중심으로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of child allowance system: Focusing on OECD countries

황민지(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석사과정)*

아동수당은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였고, 점진적인 개정을 통해 제도를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OECD 국가 중 아동수당제도를 일찍이 도입한 선진국들은 아동수당을 통해 아동가구의 빈곤율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OECD 국가 중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의 아동수당제도의 현황(도입년도, 지급연령, 지급내용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비교함으로써 아동수당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독일은 1954년에 제도를 도입하여, 18세(최장 25세) 미만의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며, 자녀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월 219~250유로(30~34만원)를 지급한다. 영국은 1945년에 제도를 도입하여, 16세(최대 20세) 미만의 아동에게 자녀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주당 14~21.15파운드(2~3만원)를 지급한다. 일본은 1972년에 제도를 도입하여, 15세 이하의 아동에게 연령, 자녀수, 소득수준별로 차등을 두어 월 1~1.5만엔(10~15만원)을 지급한다. 프랑스는 1932년에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여, 20세 이하의 아동에게 자녀수(둘째이상), 소득수준별로 차등을 두어 월 16.51~169.22유로(2~23만원)를 지급한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은 2018년에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만 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아동수당제도의 발전은 아동의 성장에 필요한 기초적인 비용이 꼭 필요한 대상에게 적절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출생순위, 연령 혹은 소득분위에 따른 차등 지급 및 지급액 인상 통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교신저자: hmj613@ewhain.net

만 5세 유아 메이커 교육 기반 놀이에서의 교육적 의미 탐구*

Exploring the educational meaning of 5-year-old children's play
based on maker education

주가람(강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유치원 교사)

박희숙(강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본 연구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해 메이커 교육 기반 만 5세 유아의 놀이경험을 분석하고 교육적 의미를 탐색하였다.

연구문제 1. 메이커 교육 기반 만 5세 유아의 놀이 경험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메이커 교육 기반 만 5세 유아 놀이 경험의 교육적 의미는 어떠한가?

본 연구는 2022년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간 진행되었으며, Y시 소재 K유치원 만 5세 26명 유아의 메이커 교육 기반 놀이의 경험과 교육적 의미를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메이커 교육 기반 놀이에 나타난 유아의 놀이 경험은 '사용하기', '개조하기 및 실험하기', '창작하기 및 다시-사용하기'로 나타났다. 유아들은 다양한 자료를 사용하고 놀이 방안을 모색하여 산출물을 만들어냈으며 계속해서 개조하고 실험하기를 반복하였다. 또 다시 놀이에 사용하며 계속해서 메이킹 경험을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본 연구에서는 uTEC-R 단계로 새롭게 정의하였다. 둘째, 메이커 교육 기반 유아 놀이 경험의 교육적 의미는 '호기심과 흥미 갖고 몰입하기', '실패해도 끝까지 문제 해결하기', '함께 나누며 놀이 지속하기'로 나타났다. uTEC-R 단계에 따른 놀이의 교육적 의미는 관찰, 몰입, 호기심, 흥미, 끈기, 도전, 문제해결, 실험, 공유, 지속성, 창조, 해소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가 메이커 교육 기반 놀이를 통해 더 다양하고 발전된 배움을 실현할 수 있으며, 유아에게 발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유아들은 메이커 교육 기반 놀이에서 자료를 사용하고, 개조하고 실험하면서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천부적인 메이커(Maker)가 되어 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메이커 교육 기반 놀이에서 유아의 경험과 교육적 의미를 탐색하여 교육 모델을 모색함으로써 유아에 적합한 메이커 교육 실현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본 논문은 2022년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 hspark@kangnam.ac.kr

지방 중소도시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학생 의식 조사 연구

A survey study of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toward
overcoming low fertility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박주희(국립안동대학교 아동·사회복지학과 교수)*

우리나라 2022년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국가통계포털, 2023) 저출산 현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미래 세대를 출산할 가임 연령에 있는 20대 미혼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특히 지방 중소 도시 소재 대학생들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인식과 극복 방안을 알아보고 실효성 있는 저출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은 A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82명(남 36명, 여 46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설문지 조사 분석하였고 빈도와 비율을 구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에 대한 문제 인식은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56%)가 가장 많았으며, '별로 관심이 없다'(26.8%), '매우 관심이 있다'(14.6%)의 순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현상이 본인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51.2%)가 가장 많았으며, '매우 영향을 미칠 것이다'(34.1%),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10.9%)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저출산 현상의 원인은 '경제적 부담'(51.3%)이 가장 많았으며, '일과 육아 양립의 어려움'(37.5%), '아이 키우기가 힘들어서'(35%)로 나타났다. 둘째, 결혼관 및 자녀관에 대해서는 '결혼은 선택이다'가 95.1%, '결혼은 필수다'가 4.9%로 나타났으며,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응답이 35.3%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경제적인 부담과 과도한 사교육비'(33.3%), '자녀 키우기에 위험한 사회 환경'(25.9%), '기타'(18.5%)와 '일과 육아 양립의 어려움'(14.8%)으로 나타났다. 셋째, 저출산 극복 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바람직하다'(60.9%), '매우 바람직하다'(29.2%),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7.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중에서는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지원 확대'(42.6%)가 가장 많았으며, '결혼하기 좋은 여건 형성'(14.6%),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13.4%)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 중소도시의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는 '지방 중소 도시의 산부인과 및 소아과 병원 확대' 등으로 나타났다.

* 교신저자: blessed@anu.ac.kr



한국육아지원학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육아지원학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함).

제2조(목적)

본회는 유아교육, 보육, 아동학, 특수교육, 아동 및 가족복지 관련 분야의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 회원 상호간의 전문적 지식 교류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 육아지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한 기관에 두고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사 업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관련 학문간 연구 및 정보의 교류
2. 학회지 및 각종 간행물 발간
3. 정기적인 국제 및 국내 학술대회 개최
4. 국/내외의 관련 정부 및 연구 기관과의 교류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

제 3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학생회원으로 구분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평생회원은 45세 이상의 정회원으로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를 칭한다.

2. 정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자를 칭한다.

① 대학 및 대학원에서 유아교육, 보육, 아동학, 특수교육, 아동 및 가족복지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② 관련 시설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

3. 학생회원은 유아교육, 보육, 아동학, 특수교육, 아동 및 가족복지 관련 분야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를 칭한다.

제6조(입회 절차)

본 회에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의 권리

① 총회 참석 및 표결권

②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③ 본 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④ 본 회의 학회지 및 간행물을 배부 받을 수 있는 권리

2. 학생회원의 권리

① 본 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② 본 회의 학회지 및 간행물을 배부 받을 수 있는 권리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회칙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본 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3. 본 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이 다음 각 항 중 한 가지에 해당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격 상실

2. 본 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이사회에 의한 제명결의

3. 3년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 4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구성)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5명 (수석 부회장 1명, 권역 부회장 4명)
3. 상임이사 1명
4. 이사 약간명
5. 감사 2명
6. 고문 약간명

제11조(임원선출)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3. 고문은 전회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한다.
4.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역할 및 의무)

본 회 임원의 역할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는 본 회와 관계되는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4. 이사는 이사회 의 구성원으로서 본회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제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5.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6. 고문은 본 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자문한다.

제 5 장 총 회

제14조(총회의 소집)

본 회의 총회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정기총회는 년 1회 4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의 성립)

본 회의 회의 성립과 의결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모든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여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결의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2. 총회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3. 결석회원의 위임은 출석 정족수에 산입하되, 그의 표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16조(총회의 의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예·결산 심의 및 승인
2. 회칙 심의 및 개정
3. 회장 및 감사 선출
4. 회비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17조(수입)

본 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학회 출판물의 인세, 연구 보조금 및 특별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2. 회비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18조(회비의 책정)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책정한다.

제19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본 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과 결산은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20조(결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다음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1조(연구물의 지적 소유권)

본 회가 주관한 연구물의 지적 소유권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가 주관한 연구물의 지적 소유권은 본회에 있다.
2. 본 회가 주관한 출판물과 연구용역의 계약자는 임원회에서 정하고 별도의 계약단서가 없는 한 지적 소유권의 대가인 인세 등은 본 회의 수입으로 편입된다. 그리고 본 회가 주관한 연구용역지출잔금은 본 회 예산에 편입된다.

부 칙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2. (효력발생) 본 회칙은 2005년 6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본 회칙에 의한 최초의 임원임기는 회칙 발효일부터 2007년 2월말로 종료된다.

제10대 한국육아지원학회 이사(2022. 01~2023. 12)

고문(전임회장)	이기숙(부영사랑으로) 문연심(강남대학교) 홍용희(이화여자대학교)	장영희(성신여자대학교) 이윤경(서원대학교) 엄정애(이화여자대학교)	정미라(가천대학교) 심성경(원광대학교)
회장	최일선(경인교육대학교)		
수석부회장	조운주(한국교통대학교)	이승연(이화여자대학교)	
권역별 부회장			
서울·경기·인천권	배지희(성신여자대학교)		
충청·대전·강원권	임원신(남서울대학교)		
경상·대구·부산권	전지형(창원대학교)		
전라·광주·제주권	원계선(제주한라대학교)		
상임이사(총무)	김혜전(중부대학교)	전우용(백석대학교)	
학술이사	임은미(성결대학교)	김고은(성신여자대학교)	
편집이사	이진화(배재대학교)	김순환(이화여자대학교)	이성희(공주대학교)
연구이사	김형미(한국성서대학교)	박선희(강남대학교)	
출판·홍보이사	오지영(오산대학교)	장정윤(강남대학교)	
서기이사	김연경(한국교원대학교)	유주연(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감사	박희숙(강남대학교)	진명희(광주대학교)	
이사	강경아(우송정보대학교) 강재희(오산대학교) 권수현(명지전문대학교) 길효정(용인예술과학대학교) 김영신(서초육아종합지원센터) 김정신(경인교육대학교) 문복진(서울경동유치원) 박진성(침례신학대학교) 안혜정(인제대학교) 이영주(전주비전대학교) 이지혜(한국국제대학교) 장민영(한양여자대학교) 전홍주(성신여자대학교) 정혜인(경남대학교) 조혜선(신한대학교) 최윤정(강릉원주대학교) 하민경(경상대학교)	강수경(가천대학교) 고여훈(청강문화산업대학교) 권연정(우송대학교) 김난실(명지전문대학교) 김영아(숭의여자대학교) 김혜경(서울여자대학교) 박미경(경북대학교) 박해미(경민대학교) 유준호(울지대학교) 이은영(경인교육대학교) 이춘자(침례신학대학교) 장은주(신한대학교) 정지인(부산대학교) 조성연(수원여자대학교) 조혜진(신라대학교) 최지은(서울여자대학교) 한희경(한국교통대학교)	강은진(육아정책연구소) 곽아정(연성대학교) 권이정(공주대학교) 김민정(안양대학교) 김은영(육아정책연구소) 나영이(국제대학교) 박신영(부천대학교) 박혜경(신성대학교) 유청옥(새싹유치원) 이지영(동양대학교) 이현주(아이코리아연수원) 장현진(한국성서대학교) 정혜옥(이화여자대학교) 조인경(대전과학기술대학교) 차기주(가천대학교) 최혜윤(부산대학교)
간사	김민진(이화여자대학교) 하지연(이화여자대학교)	이미연(공주대학교) 라지숙(공주대학교)	이민진(경인교육대학교)

이 수 증

성 명 :

소 속 :

가 2023

- 주 제 : 뉴패러다임 시대, 유아교육의 미래 통찰:
상호문화역량 함양을 통한 유아 글로벌 시민교육
- 일 시 : 2023년 5월 20일(토), 09:00 ~ 13:30
- 장 소 : 온라인(Zoom) 학술대회(경인교육대학교)
- 주 최 : 한국육아지원학회

2023년 5월 20일

한국육아지원학회

